이투데이

프리미엄 석간 경제지
ECONOMY TODAY

etoday.co.kr

대표전화 : 02)799-2600 / 구독 : 02)799-2684 / ISSN 2383-6652

2014년 11월 21일 금요일 제1033호

한국투자증권
함께 가는 금융 친구
I'M YOU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적용해보니

現사외이사 10명중 7명 옷 벗어야

4개 금융지주·6개 주요은행 사외이사 74%가 부적격
모범규준 의무규정 아닌 권고사항이라 실효성 의문

금융당국이 20일 발표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주요 금융지주사 및 은행의 사외이사에 적용할 경우 10명 중 7명이 부적격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번에 마련된 금융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이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이라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관련기사 3면

이투데이가 21일 9월 기준으로 신한·KB금융·하나·농협금융지주와 6개 주요 은행의 사외이사 경력을 조사한 결과, 전날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적용할 경우 부적격률이 74%에 달했다. 반면 이들 금융회사 전체 58명 사외이사 가운데 금융당국이 제시한 금융회사 사외이사 자격요건에 부합한 인물은 15명에 그쳤다. 나름의 금융·경제·회계 등 관련 분야의 실무경험과 지식을 갖춘 사외이사다.

그러나 교수와 공무원의 전문성을 감안하더라도 특정 직업군에 편중되는 현상은 뚜렷했다. 이번 조사에서 교수·연구원 출신 사외이사가 2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공무원 11명, 기업인 11명 등 이었다. 교수와 공무원 출신이 전체의 50%를 넘었다.

특히 KB금융은 사외이사 9명 중 6명(66.6%)이 교수 출신으로 비중이 가장 높았다. 금융지주 사외이사인 교수의 전공은 경제학과 경영학 등 모두 상경계열에 치우쳐 있다. 외환은행의 경우 사외이사 6명 중 1명을 제외하고 교수나 관료 출신으로 채워졌다. 신한은행 역시 사정이 별반 다르지 않았다. 6명의 사외이사 가운데 언론 출신과 기업 대표 2명을 제외하고 교수 및 관료 출신이다. 하나은행은 6명의 사외이사 가운데 2명의 금융분야 출신을 제외하면 모두 교수 출신이다.

이번 모범규준안에는 은행과 금융지주사의 사외이사가 다른 회사의 사외이사를 맡을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국민은행 사외이사가 한국거래소 사외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금융권에서는 교수 출신 사외이사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금융사 내 이른바 학자 권력이 만들어고 있지만 마땅한 사외이사를 영입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한 금융권 인사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가운데 결격사유로 걸러내고 나면 남는 건 교수 출신뿐이다"며 "더 큰 문제는 이들이 세력화해 학자 출신을 추천하는 구조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철우 기자 acw@

한국 소비자 여전히 호갱?
수입차, FTA 효과 없었다

사양 고급화 이유로 값 올려
가격상승률, 물가의 3배 수준

수입차 판매가격 오름세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럽 등 주요 자동차 생산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에도 불구하고, 가격인하 효과가 전혀 없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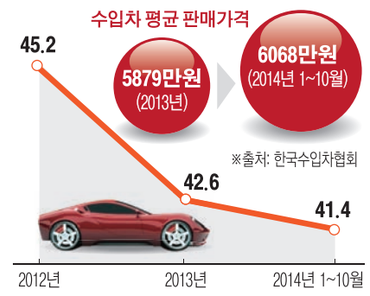
21일 본지가 한국수입자동차협회의 가격대별 수입차 판매 현황을 가중 평균한 결과 올해 1~10월 수입차의 평균 판매가격은 6068만원이었다. 이는 지난해 평균 판매가격인 5879만원보다 3.2% 상승한 수치다. 수입차의 평균 판매가격은 2012년 1.8%, 2013년 2.1% 상승에 이어 올해에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이 같은 결과는 수입차 업체들이 주력 모델에 각종 편의사양을 추가하면서 가격을 올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수입차 업체들이 주력 판매 모델의 가격을 낮추고, 저가 모델을 들여왔다고 국내에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가격을 높여 FTA 관세 철폐 효과를 이용, 수익 극대화를 꾀한 것으로 풀이된다.

모델별로 수입차 중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폭스바겐의 티구안은 지난해 최고 가격이 4760만원이었지만 올해 4830만원으로 인상됐다. 도요타 캠리의 2014년 모델은 3350만~4270만원이었지만 2015년 모델은 3390만~4330만원으로 올랐다. 특히 이들 수입차 업체 판매점은 주력 모델의 편의사양과 안전사양이 추가됐다며 가격을 작년보다 많게는 300만원까지 올려 판매했다.

3000만~5000만원 수입차 판매비율 추이

단위: %



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유럽 등과 FTA를 체결했지만 수입차 업체가 가격을 높이면서 평균 판매가격은 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입차 판매가격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소비자물가는 2012년 2.2% 상승했으나 2013년에는 1.3% 상승에 그쳤다. 올해 월별 상승률은 1%대를 기록하며 연간 상승률이 1% 초반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자물가는 2012년 11월 이후 24개월째 1%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수입차 업체들의 주장과 달리 상대적으로 저가 수입차 판매 비중도 줄어들고 있다.

최재혁 기자 freshphase@

"금융·노동·교육 구조개혁 집중"

崔부총리, 내년 경제정책 방향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21일 정부의 내년 경제정책 방향이 금융, 노동, 교육 분야의 구조개혁에 집중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주요 연구기관장들과 가진 조찬간담회에서 "내년 경제정책 방향은 3개년 계획의 틀 속에서 추진하고자 한다"며 "공공부문의 선도적 개혁을 바탕으로 금융·노동·교육개혁을 통해 자금과 인력부문의 생태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근본적 개혁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에 대해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 경기회복 모멘텀은 미약한 상황이라고 평가한 뒤 "주력 제조업의 경영실적이 둔화하고 있고, 시중에 돈은 많이 풀렸으나 기업·금융기관 등 경제주체의 낮은 기업가 정신으로 돈이 용처를 찾지 못하는 '돈맥경화' 현상이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경기회복의 긍정적 신호가 본격적 실물경제 회복세로 확산하기 위해서는 '가파르지만 넘어야 할 산'이 있는데, 그게 바로 구조개혁"이라며 "전문학적인 양적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구조개혁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해 흔들리는 일본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택임대차 시장과 관련해 그는 "전세에서 월세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해 민간임대시장을 주요 산업으로 육성하는 임대시장 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유충현 기자 lamuziq@

한강 30번째 다리 '구리암사대교' 개통



한강의 30번째 다리인 구리암사대교가 2006년 착공한 이래 8년만인 21일 0시에 개통됐다. 이번 개통으로 서울 중랑과 강동지역이 바로 연결돼 지역간 이동 시간이 10분대로 단축되며 천호대교와 강동대교에 집중됐던 교통량 또한 분산돼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통 첫날 구리암사대교 위를 차량들이 오가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靑예산 깎고 의정활동비 인상 '甲질 국회'

청와대 경호비 등 34억 삭감
국회관련 예산은 114억 올려

국회의 이른바 '슈퍼갑' 행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새해 예산안 심사에서 이어지고 있다. 청와대 예산을 수십억 깎으면서 국회 예산은 대폭 늘렸다. 특히 국회의 잦은 파행에 책임을 지겠다며 내년도 세비를 동결, 관련 예산을 감액해 놓고는 의정활동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다른 예산을 크게 늘린 사실도 확인됐다.

21일 예결위 예산안심사소위의 심사 자료에 따르면 청와대 예산은 수십억 감액이 확정적이다. 분야별로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 -16억 △국가안보실 운영 -11억3000만원 △시설관리 및 개선 -4억7000만원 △요인 및 국빈경호 활동 -2억2000만원 등 총 34억2000만원을 깎았다.

반면 국회의 경우 의원세비 동결로 인해 11억3000만원만 감액했을 뿐 운영위가 제시한 17개 항목의 증액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늘어난 금액만 114억원에 달한다.

증액된 항목 중 덩어리가 가장 큰 건 의원들의 입법활동 지원비로, 운영위와 예산소위를 거쳐 50억원이 늘어났다. 의정활동 지원 인턴 월급 인상을 비롯해 법적 근거도 없는 민간통신사의 서비스 이용료 확대, 교섭단체 정책활동 강화비 등의 명목이다. 이와 함께 입법자료 지원 3억2000만원, 입법정보화 9000만원, 입법정책 네트워크 지원 9000만원, 위원회 활동 지원 8000만원 등도 포함됐다. '세월호 사고 이후 5개월 동안 법안처리 0건'이라는 오명에도 불구하고 입법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깨알같이 올린 것이다.

예산심사가 국회 고유의 권한인 데다 감사와 견제를 전혀 받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국회의원 세비 인상 철회 운동을 벌여 온 '바른사회시민회의' 관계자는 "국회 예산심사가 투명하지 않게 이뤄지다 보니 꼼수 예산이 등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의중 기자 zerg@

약가정책에 발목잡힌 신약 수출

'사용량 연동제' 적용 따라
많이 팔릴수록 약값 깎여
수출계약 '제값받기' 난항

다국적 제약사의 무분별한 국내 진입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가 2009년 도입한 '사용량 약가 연동제' 정책이 오히려 '잘나가는' 국산 신약의 해외 수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21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수백억원에 달하는 연구개발(R&D) 비용을 쏟아붓고 신약 개발에 성공했지만, 국내에서 '잘 팔린다'는 이유로 약값을 제대로 받지 못해 수출 계약이 무산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사용량 약가 연동제'는 경쟁력 있는 제품이 많이 팔릴수록 가격이 깎이는 매우 불합리한 결과를 낳아 수출 가격 협상에서 불리해지기 때문이다.

보령제약이 1998년 개발을 시작, 12년 동안 500억원을 투자해 개발한 고혈압치료제 '카나브(15호 신약)'가 대표적이다. 국산 신약 중 가장 성공적이라는 카나브는 지난 2011년 3월 1일 발매 이후 비약적 매출 신장을 보여 왔다. 국내 매출의 경우 △2011년 100억원 △2012년 182억원 △2013년 218억원의 매출을 올렸고, 올 3분기까지 200억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이 같은 시장의 호응은 해외 수출로 바로 이어졌다. 보령제약은 카나브 발매 이후 지금까지 멕시코와 중남미 13개국을 비롯, 브라질·러시아·중국 등 총 17개국과 라이선스 아웃(license-out) 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2012년과 2013년에는 100억원이 넘는 라이선스 피(license fee)를 받았고, 올해만 100억원이 넘는 라이선스 피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난 9월말께 멕시코에서 카나브가 본격 처방되면서 라이선스 아웃 계약 체결 3년 만에 판매 매출도 발생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카나브는 올초 '사용량 약가 연동제' 적용을 받으면서, 터키와의 수출 협상을 벌였으나 가격 면에서의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수출 계약이 결렬됐다.

또 다른 국산 신약인 일양약품의 위궤양 치료제 '놀텍'도 약가 연동제로 가격이 내려가 브라질·UAE·터키 등의 제약사와 수출 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출 가격 협상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강인효 기자 kangi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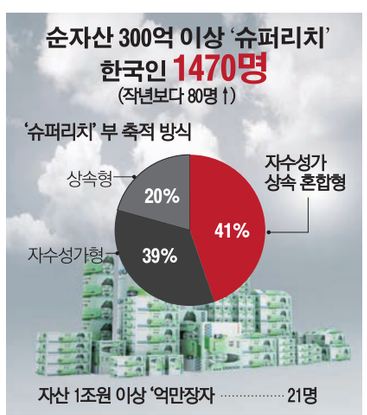
데이터 뉴스 Data Ne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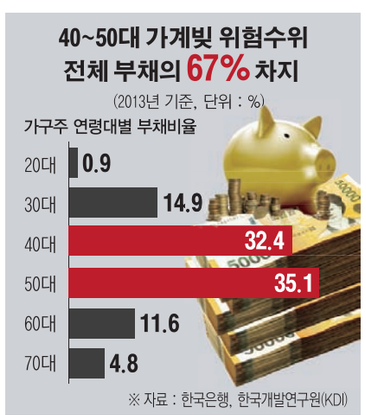
한국인 슈퍼리치 1년새 80명 증가

순자산 3000만 달러(약 334억원) 이상을 가진 한국의 '슈퍼리치'가 147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위스 자산정보업체 웰스엑스(Wealth-X)와 UBS은행이 19일(현지시간) 발표한 '2014년 슈퍼리치 보고서'(World Ultra Wealth Report 2014)에 따르면 한국의 슈퍼리치는 작년보다 80명(5.8%) 늘어난 1470명으로 집계됐다.

슈퍼리치 가운데서도 자산이 1조원이 넘는 억만장자는 21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줄었다.

이재현 기자 nfs0118@





빚더미 이고 사는 위기의 가장들

가계부채가 40~50대에 집중돼 이들이 은퇴하는 10~20년 후 가계부채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김지섭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이 20일 발표한 '가계부채의 연령별 구성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가계부채가 40~50대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 연령이 50대인 가구는 전체 부채의 35%, 40대인 가구는 32%를 보유하고 있었다.

박상영 기자 sypark@

Star 금요섹션 11~16면
커버스토리
스타들의 사랑나눔

경제신문 이투데이 모바일로 만나세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으면 모바일로 이투데이 뉴스와 지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안드로이드 앱)

2014 '이투데이 광고대상' ▶21~25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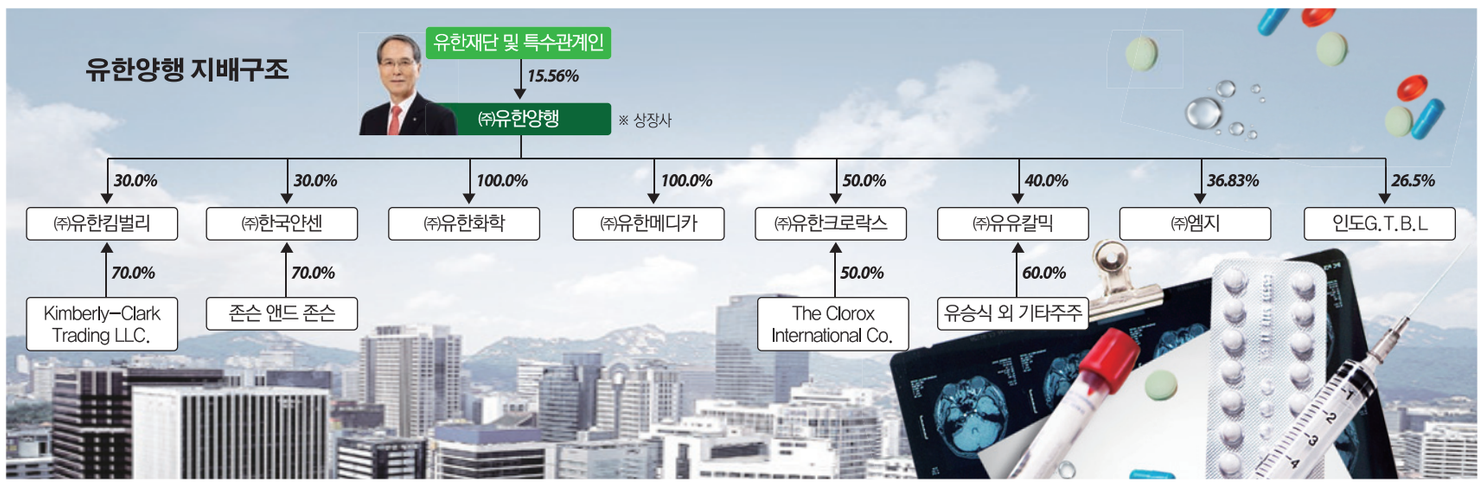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etoday.co.kr 온라인뉴스는 계속

소유·경영 분리… 공익법인이 지분율 15.40% 최대주주

〈유한재단〉

제약사 지배구조 분석 ① 유한양행

최근 국내 제약업계에 최초로 연매출 1조원을 넘어서는 제약회사가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국내 제약산업 전체 매출은 연간 16조원 정도로 상위 글로벌 제약사 한 곳의 매출과 비교해도 턱없이 모자란 수준이다. 하지만 연매출 1조원 회사가 탄생하는 것은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펀더멘털(기초체력)을 갖추게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이투데이는 제약업종에 관심 있는 일반투자자를 위해 주요 제약사들의 지배구조 분석 시리즈를 게재한다.



창업주 故 유일한 박사 주식 재단 기부…전문경영인 체제로
김윤섭 대표 549주 보유…임원들 '책임경영' 차원서 소량만
100% 출자 화학·메디카…킴벌리·한국얀센 30% 지분 보유

유한양행은 "가장 좋은 상품을 만들어 국가와 동포에게 도움을 주자"라는 창업자 고 유일한 박사의 정신으로 지난 1926년 6월 서울 종로에 설립, 올해로 88주년을 맞은 국내 대표 장수기업 중 하나다. 서울 대방동 사옥이 준공된 1962년 11월 한국거래소(옛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개설한 KRX 유가증권시장에 회사 주식을 제약업계 최초로 상장했다.

◇유한양행, 일제강점기 서양 의약품 출시…국내 제약산업 기초 마련 = 유한양행은 일제강점기인 1926년 결핵약과 항생제 등 서양 의약품을 내놓으며 국내 제약산업의 기초를 닦았다. 이어 지금까지 80년 넘게 국민에게 사랑받고 있는 장수 의약품인 진통소염제 '안티푸라민'을 1933년 출시, 1936년에는 주식회사로 변경하고 경기 소사에 근대적 제약공장을 건립했다.

1960~70년대에는 고속 성장기를 거치면서 장수 기업의 기틀을 마련했다. 이후 1982년 세계적 제약회사와 합작으로 유한스미스클라인을 설립했고, 다음해인 1983년에는 한국얀센을 설립했다. 또 1985년 국내 최초로 KGMP(한국우수의약품 제조기준) 적격업체로, 이어 1988년에는 제약업계 최초로 중앙연구소가 KGLP(비임상시험관리기준) 적격시험기관으로 지정됐다.

◇공익법인 '유한재단'의 독특한 지배구조…소유와 경영 분리 = 유한양행의 최대주주는 재단법인 유한재단(공익사업)으로 지난 6월 30일 기준 보통주 171만7623주(지분율 15.40%)를 보유하고 있다. 유한재단의 특수관계인이자 유한양행 대표이사를 지낸 연만희 고문이 1만7949주(0.16%)를, 이원녕씨가 1주를 갖고 있다. 또 유한재단과 연 고문이 각각 우선주 100주와 1만4335주를 보유하고 있다.

이 밖에 또 다른 재단인 유한학원(교육사업)이 84만4663주(지난해 말 기준, 7.57%)를, 옛 신한의 신한은행과 국민연금 고유의 신한은행이 각각 97만534주(8.70%), 78만8100주(7.07%)를 보유해 주요 주주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와 함께 우리사주조합도 682주(0.01%)를 갖고 있다.

이처럼 유한양행은 공익법인이 대주주인 독특한 지배구조를 갖추고 있다. 지난 1971년 유 박사가 타계하면서 소유주식을 공익법인에 기증한 것을 계기로 이러한 지배구조가 탄생하게 됐다.

이러한 투명한 지배구조를 바탕으로 유한양행은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면서 전문경영인 체제를 구축해 나갔다. 유 박사는 지난 1969년 당시 주주총회에서 조권순 전무에게 공식적으로 경영권을 승계했다. 유 박사에게는 아들이 있었는데 "기업 경영에는 정실이 개입돼서는 안 된다"는 신념에서였다. 이와 같은 원칙은 지금도 유한양행 직원 가운데 유 박사의 친인척이 단 한 명도 없을 정도로 철저히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실제로 현직 임원들을 살펴보면 유한양행에 평사원으로 입사해 현 자리까지 올라온 것을 알 수 있다. 김윤섭 현 대표는 지난 1976년 입사해 2012년 유한양행 대표이사로 취임했고, 현재 549주를 보유하고 있다. 이정희·오도환 부사장도 각각 1978년과 1981년 입사해 2012년 부사장 자리에 올랐다. 이 부사장과 오 부사장은 각각 1007주와 229주를 보유하고 있다. 이처럼 주요 임원 대부분이 책임경영 차원에서 소량이지만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유한양행, 유한화학·유한메디카 100% 출자…유한킴벌리·한국얀센과 7대 3 지분 = 유한양행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유한화학과 유한메디카를 자회사로 두고 있다. 1980년 설립된 유한화학은 항바이러스 및 항생제 원료물질을 주로 생산하고 있으며, 1982년 설립된 유한메디카는 의약품과 건강식품 등의 제조 및 매매를 주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밖에 유한양행은 관계기업인 유유칼믹과 엠지 지분을 각각 40.00%, 36.83%씩 갖고 있다. 또 공동기업인 유한킴벌리와 한국얀센 지분을 각각 30.00%씩 보유하고 있으며, 유한크로락스의 경우 지분 절반과 인도G.T.B.L 지분 26.50%를 갖고 있다. 특히 유한양행과 공동 출자한 유한킴벌리는 헝가리 법인 킴벌리 클락 트래딩사(Kimberly-Clark Trading LLC.)가 나머지 70%를, 한국얀센의 경우 미국 법인 존슨앤드존슨(Johnson&Johnson)이 합자투자계약에 근거해 나머지 70%를 보유하고 있다.

강인효 기자 kangih@



정몽진 '사촌형 구하기'… 현대重 주식 3000억 매입

〈KCC 회장〉 〈정몽준 현대重 최대주주〉

3분기 누적적자 3조원… 유동성 지원 관측
제일모직·만도 대박…'미다스 손' 투자 주목

범현대가 진영에 속하는 KCC의 정몽진 〈사진〉회장이 사촌형 정몽준 전 새누리당 의원이 대주주로 있는 현대중공업 살리기에 나섰다. KCC가 현대중공업 주식 3000억원어치를 매입하겠다고 밝힌 것. 이에 업계에서는 현대중공업이 사상 최대 규모의 적자로 자금난에 처하자 KCC가 현대중공업을 도우려 하는 것 아니겠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KCC는 20일 현대중공업 주식 243만9000주를 3000억원에 취득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취득 금액은 KCC의 지난해 자기자본 대비 5.89%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에 따라 KCC의 현대중공업 지분율은 3.11%에서 6.25%(475만2357주)로 늘어난다. 매각 방식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이사회 결의를 통해 장중 매수 또는 블록딜(시간외 대량매매) 방식이 될 전망이다.


정몽준 전 의원

KCC는 현대중공업 주식 취득에 앞서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문동에 있는 토지와 건물(총면적 4만3424㎡)을 처분했다. 처분 목적은 자산유동화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이며 부동산 매각 대금은 3000억원, 매수자는 외환은행이다. KCC가 현대중공업 주식 취득 이유로 내세운 자금운용의 효율성 증대와 비교하면, 결국 보유 부동산을 팔아 현대중공업 자사주나 현대미포조선이 보유한 현대중공업 지분을 매입, 현대중공업을 유동성 위기에서 도와주는 것 아니겠냐는 해석이다.

현대중공업은 올해 3분기 누적 영업적자만 3조원을 웃도는 등 사상 최대 손실이 전망되고 있다. 이에 재구무조 개선 작업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현대중공업 그룹은 앞서 계열사를 통해 7016억원 규모의 주식을 팔아 유동성을 마련했다. 현대삼호중공업은 19일 이사회를 열고 보유 중이던 KCC 주식 80만3000주(7.36%)를 4151억5100만원에 처분키로 결정했다. 현대미포조선도 같은 날 블록딜을 통해 포스코 주식 87만2000주(1%)를 2864억5200만원에 전량 처분했다.

한편, 이번 지분 매입으로 증권가에서 '미다스의 손'으로 통하는 정몽진 회장의 선견지명이 다시 한 번 먹힐지도 관심거리다. 정 회장은 12월 18일 상장을 앞두고 있는 제일모직과 2008년 만도 지분 투자를 통해 수천억원의 차익을 낸 바 있다.

사상 최대의 적자에 처한 현대중공업의 주가는 8년래 최저 수준까지 떨어진 상태다. KCC는 2000년 11만주를 시작으로 10년 넘게 현대중공업 주식에 투자하고 있으며 한때 지분가치만 2조7000억원을 웃돌았다. 주당 단가는 2만3900원에 불과해 2010~2012년 일부 주식 처분으로 10배 이상의 매각 차익을 올렸다. KCC는 3000억원 규모의 주식을 취득해도 주당 평균가가 7만원 중반 수준으로 현 주가보다 낮다. 이에 현대중공업이 향후 정상화 절차를 밟아 주가가 오른다면, KCC의 지분가치 역시 급증할 전망이다.

조남호 기자 spdran@



대한민국 농수산식품의
행복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aT가 광주전남혁신도시에서 새롭게 출발합니다!
국민 모두가 믿고 먹을 수 있는 건강하고 안전한 농수산식품!
이제 aT가 농업인의 터전에서 농업인과 함께 그 희망을 만들어갑니다.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가 행복한 창조농업, aT가 새롭게 시작합니다.

새로운 시작, 행복한 변화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문화로 227 / 대표전화 061-931-1114

실무경험 없는 교수·공무원 출신 사외이사 절반 넘어

'금융위 모범규준' 4대 금융지주 6개 은행에 적용했더니

특정 배경·직업군 쏠림현상 심화
'회전문 인사'에 과도한 특권 누려
다른 회사 사외이사 맡은 경우도
자격요건 부합 인물 15명에 불과
자체·외부기관 활동검증 강화키로

금융위원회가 20일 금융발전심의회를 통해 발표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의 핵심은 교수나 관료 중심으로의 사외이사 편중 현상을 해소하는 것이다. 앞서 KB사태에서 방증하듯 전문성은 낮으면서 권한만 고수하는 사회이사들의 무책임한 행태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그동안 금융회사 사외이사는 특정한 배경이나 직업군에 쏠림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자기 권력화 및 활동성 대비 과도한 특권을 누리는 경향이 뚜렷했다. 특히 이들 사외이사 중심으로 회전문 인사에 따른 병폐도 적지 않았다. 이같은 사외이사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금융당국이 꺼낸 카드가 이번 지배구조 모범규준안이다.

이투데이가 9월 기준 4대 금융지주 및 주요 6개 은행 사외이사 중심으로 경력을 조회한 결과, 전체 58명 사외이사 가운데 이번에 금융당국이 제시한 금융회사 사외이사 자격요건에 부합한 인물은 15명에 불과했다. 이들은 금융, 회계, 재무 분야 등에 종사했거나 현직에 있는 자로 나름의 금융분야 실무경험을 갖췄다.

그러나 교수와 관료 출신 등 특정 부류의 사외이사가 다수를 차지했다. 교수·연구원이 2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공무원 11명, 기업인 11명 등이다. 교수와 공무원 출신이 전체의 50% 넘게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사외이사 겸직 사례는 1명이었다. 이번 모범규준안에서는 은행과 은행지주회사의 사외이사는 다른 회사의 사외이사를 맡을 수 없도록 했다.

따라서 모범규준에서는 금융회사의 사외이사 구성 시 특정 직군에 편중되지 않고 다양하게 구성토록 제한했다. 다양하고 전문적인 인물로 이사진을 구성하고 권한에 걸맞은 책임을 지우겠다는 것이다. 적용 대상은 은행지주 등 551개 금융사 가운데 자산 2조원 이상인 118개사다. 사외이사는 금융 경제 경영 회계 법률 등 관련 분야의 충분한 실무경험과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 실무경험이 중요하기 때문에 교수와 공무원 출신은 불리하다.

금융업에서 중요도가 높고 소유권이 분산되어 있는 은행과 은행지주 사외이사의 임기는 2년에서 1년으로 축소된다. 전체 임기도 5년이 넘지 않도록 제한된다. 다만 보험·금융투자·여신전문회사 등 제2금융권의 임기는 현행대로 3년이 유지된다.

추천 방식도 개선된다. 자기 추천이 금지되고 상호 추천의 경우 후보 추천자와의 관계 및 추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특히 현재 사외이사의 재임을 위해 추천하는 경우 추천 사유에 사외이사 평가 결과와 사추위의 검토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첨부해야 한다. 은행과 은행지주회사의 경우 사외이사 겸직을 할 수 없게 된다.

한편, 사외이사의 활동을 검증하기 위한 평가도 강화됐다. 자체 평가가 매년 실시되고 2년마다 이뤄지는 외부기관 평가도 진행한다. 외부 평가는 권고 사안이다. 평가 시 평가 여부뿐 아니라 세부 평가 기준과 절차, 결과 등을 연차보고서를 통해 공시토록 했다. 사외이사 보수도 개인별 활동 내역과 개별 보수 지급 내역을 연차 보고서에 공개해야 한다. 안철우 기자 acw@

금융지주 및 은행 사외이사 경력 현황

금융사	성명	주요경력	모범규범 결격여부
신한금융	정진	재일본대한민국민단중앙본부단장	부적격
	권태은	나고야외국어대 교수	부적격
	김기영	광운대 총장	부적격
	남궁훈	금융통화위원	적격
	이상경	헌법재판소 재판관	부적격
	히라카와 하루키	국제개발 대표	부적격
	필립 아기니	BNP파리바 본부장	적격
	고부인	산세이 대표	부적격
	이만우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부적격
KB금융	이경재	전 기업은행장	적격
	김영진	서울대 교수	부적격
	황건호	전 금융투자협회장	적격
	이종천	숭실대 교수	부적격
	조재호	서울대 교수	부적격
	고승의	숙명여대 교수	부적격
	김영과	증권금융 사장	적격
	김명직	한양대 교수	부적격
하나금융	김인배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부적격
	박문규	에이제이 대표이사	적격
	송기진	광주은행 은행장	적격
	오찬석	LG하우시스 사외이사	부적격
	윤종남	변호사	부적격
	정광선	재정경제부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	부적격
	최경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부적격
농협금융 (은행)	김준규	대검찰청 검찰총장	부적격
	손상호	금감원 전략기획본부장	적격
	현정택	KDI원장	부적격

금융사	성명	주요경력	모범규범 결격여부
신한은행	이규민	동아일보 편집국장	부적격
	박경서	고려대 교수	부적격
	박세진	법제처 차장	부적격
	구본일	연세대 교수	부적격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 교수	부적격
	히사마쯔 겐죠	레쿠토 대표이사	부적격
국민은행	김중웅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부적격
	박재환	한국은행 부총재보	적격
	강희복	한국조폐공사 사장	부적격
	송명섭	중앙대 교수	부적격
	조인호	한국거래소 사외이사	부적격
우리은행	오상근	동아대 교수	부적격
	최강식	연세대 교수	부적격
	임성열	예보 기획조정부장	적격
	장민	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적격
하나은행	김영기	금융감독원 총무국장 · 감독조정실장	적격
	박종원	고려대 경영학 교수	부적격
	염재호	고려대	부적격
	이기배	변호사	부적격
	정영록	서울대 교수	부적격
	박봉수	기술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적격
기업은행	이종구	변호사	부적격
	조용	한나라당 대표 특보	부적격
	유재한	정책금융공사 사장	적격
	한미숙	대통령실 중소기업비서관	부적격
외환은행	김주성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 실장	부적격
	천진석	하나증권 대표이사 사장	적격
	권영준	경희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부적격
	한견표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부적격
	홍은주	iMBC 대표이사 사장	부적격
	한기정	서울대 교수	부적격



임기 1년 너무 짧아 '독립성 훼손' 우려도

"모피아 부활 아니냐" 지적도

금융당국이 사외이사 제도 개혁에 초점을 맞춘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마련했지만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사외이사 임기를 1년으로 제한하는 등 이번 모범규준이 되레 사외이사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일 발표한 모범규준에서 사외이사 핵심 자격 요건으로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금융·경제·경영·회계 등 관련 분야에 대한 충분한 실무 경험과 지식을 보유했는지 여부'를 제시했다. 현재 교수와 연구원 위주로 구성된 사외이사진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구성을 다양화하겠다는 의도에서다.

구체적으로 위험관리위원회와 보상위원회에는 금융·회계·재무 분야 경험자 1명 이상을 중복되지 않게 선임하도록 정했다. 하지만 지주사와 자회사 간 거래 잔액이 1억원 이상인 개인은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는 조항 같은 결격 요건이 사라지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모피아'(옛 재무부+마피아)가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직군 다양화보다 사외이사들의 책임을 높이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사외이사 임기를 1년으로 제한한 부분은 아직 논란이 분분하다. 사외이사 임기 1년은 너무 짧고 자칫하면 재신임 과정에서 오히려 현 경영진에 의해 사외이사가 휘둘릴 수 있어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 일각에서는 사외이사 임기를 단임제로 바꾸고 임기를 2~3년으로 늘려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대해 김용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사외이사 활동에 대한 외부 평가와 공시를 강화하면 그 같은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입법예고 이후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 최종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밖에 모범규준을 통해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새로 도입, 사외이사 선임과 활동 내용을 포함한 이사회 활동 전반을 상세히 서술해서 공시하겠다고 밝혔다. 사외이사 개개인의 추천 사유, 활동비 내용과 평가 결과까지 새롭게 공시해야 하는 내용이 많아져 금융회사나 사외이사 모두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김민지 기자 kimmj@

이경재 KB의장 사퇴

내분사태 중재 못한 '책임론'
나머지 사외이사 거취 주목



KB금융 내분사태에 대한 사외이사 책임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경재〈사진〉 의장이 사퇴의사를 밝혔다. 나머지 사외이사들의 거취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일 이 의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21일 윤종규 신임 회장의 취임과 동시에 KB금융지주 이사회 의장직과 사외이사직에서 모두 물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롭게 취임하는 윤종규 신임 회장을 중심으로 KB금융이 리딩금융그룹으로 재도약할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 있기에 떠나는 마음이 가볍다"고 말했다.

아울러 "2010년 3월 이후 KB금융 이사회 의장으로서 부족한 사람이지만 성실하게는 일해 왔다"며 "하지만 연이어 발생한 어려운 일들로 의장으로서 마음이 무거웠으나 지주 이사회를 비롯한 그룹 임직원들의 도움으로 빠른 경영 정상화를 이룬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퇴임의 소감을 전했다.

이 의장의 임기 만료는 내년 3월이다. 최근 내분사태를 중재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당국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아왔다.

특히 이날 당국은 KB 내분사태로 불거진 이사회의 자기 권력화를 막기 위해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까지 발표하며 마지막 경고장을 날렸다. 업계 관계자들은 익일 취임하는 윤 회장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 의장이 결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이 의장의 퇴진으로 나머지 사외이사들의 거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 의장 사퇴를 계기로 내년 3월 임기가 만료하는 6명의 사외이사들도 스스로 물러날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 초 임기가 만료되는 사외이사는 이날 사임한 이경재 의장을 비롯해 김영진, 황건호, 이종천, 고승의, 김영과 이사 등이다. 박선현 기자 sunhyun@



피부만 좋아져도
남자는 확 달라 보여요

투명하고 활력 넘치는 피부를 만드는 컨디셔닝 효과
스트레스, 면도, 음주 등 많은 외부 자극들로 남자의 피부컨디션은 계속 떨어집니다.
칙칙하고 거칠어진 피부를 바꾸고 싶다면, 맨 바이오 에센스를 만나보세요.
매일 변화하는 피부컨디션을 빠르게 끌어 올려 투명하고 활력 넘치는 피부로 만들어 줍니다.
기억하세요. 피부만 좋아져도, 남자는 확 달라 보입니다.

3일 후 느껴지고, 14일 후 완성되는 투명하고 활력 넘치는 남자 피부
3일 후, 피부 보습력이 증가되는 것을 느꼈다 90.91%
3일 후, 피부가 매끄러워지는 것을 느꼈다 81.82%
7일 후, 피부가 탱글해짐을 느꼈다 86.36%
7일 후, 피부가 환하고 깨끗해지는 것을 느꼈다 95.45%
14일 후, 피부가 전체적으로 좋아짐을 느꼈다 100%
아이오페 맨 바이오 에센스 인체적용시험자 대상 3~14일 후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2012.11.6 ~ 2012.11.20 성인남성 23명 대상 / 조사기관 경희대 피부생명공학센터
(7점 척도 중 상위 3점을 긍정 응답률로 계산)



IOPE MEN
바이오 에센스

전국 아리따움과 대형 마트에서 아이오페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 고객상담실 080-023-5454 | www.iope.co.kr

내년 한국경제 핵심 대외변수 5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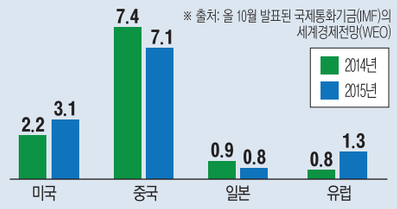
다사다난했던 2014년이 저물고 있다. 특히 한국경제는 대외적 이슈에 상당한 영향을 받으며 울고 웃었다.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미국의 양적완화 테이퍼링(점진적 양적완화 축소)를 기점으로 중국 경제상황과 국제 환율 리스크 등이 올 한해 한국경제 곳곳에 영향을 미쳤다. 특히 최근 이웃나라 일본이 예상밖 추가 부양을 내놓는 바람에 한국 원화 가치는 곤두박칠치기도 했다. 그렇다면 내년 국제금융시장과 한국경제 방향을 좌우할 대외적 핵심 변수는 무엇일까?

美 강달러·中 저성장리스크… '내우' 못지않은 '외환'

〈內憂〉 〈外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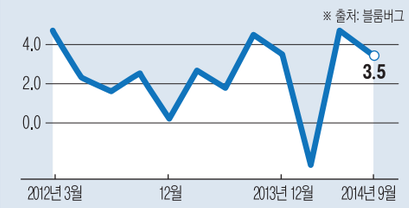
성장

주요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단위: %)



미국

미국 GDP 성장률 추이(단위: %)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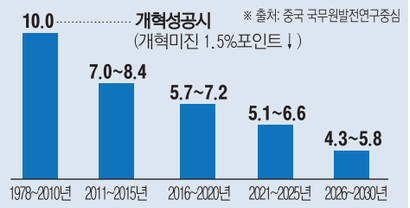
주요 해외투자은행의 환율 전망 ※ 출처: 국제금융센터

	2015년 3월	6월	9월	12월
원·달러 환율 (단위: 원)	1086.9	1089.9	1087.2	1100.8
엔·달러 환율 (엔)	114.93	116.27	118.27	119.36
달러·유로 환율 (달러)	1.2264	1.1964	1.185	1.1709

※ 지난 10월 31일 일본은행 2차 양적완화 조치 이후의 엔화 및 원화 급락 상황을 반영중에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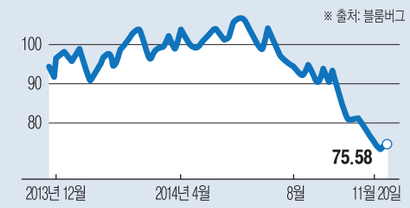
중국

중국 시나리오별 장기성장률 전망(단위: %)



유가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가격 추이(단위: 배럴당 달러)



❶ 세계경제 성장률 3.8%안팎 반등 가능성 그리 높지않아

우선 세계경제의 회복세가 확대될지 여부가 가장 관건이 될 전망이다.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2015년 글로벌 경제에 영향을 미칠 키워드로 '경제 회복 확대'를 꼽았다.

글로벌 경제성장의 원동력인 미국이 내년에도 계속 성장세를 유지할 것인지, 올해와 달리 일본과 유로존(유로화 사용 18개국)이 부진을 딛고 회복국면으로 접어들 것인지가 글로벌 경제에 관건이 될 것이란 설명이다.

골드만삭스는 "앞으로 선진 시장의 움직임이 전반적으로 좋아질 것"이라면서 "중국의 성장속도가 더욱 둔화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다른 신흥시장이 선진시장의 회복세에 힘입어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내년 세계 경제 전망은 그리 밝지만은 않다. 주요 기관들은 내년 세계 경제성장률이 3.8%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국제금융센터는 실제 세계 경제가 전망보다 더 낮은 반등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❷ 미국 3%, 유럽은 1% 내외 선진국 성장률 격차 악재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의 성장속도 차이도 글로벌 시장은 물론 한국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디플레이션 우려에 발목이 묶인 유럽 경제가 이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미국과 경제성장률 격차는 내년에 더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의 경제성장률 격차는 환율과 증시 시장으로 이어져 전 세계 금융시장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10월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미국 성장률이 2.2%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한 반면 유로존은 0.8%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IMF는 또 미국의 내년 경제성장률이 3%, 유로존은 잘해야 1% 선에 턱걸이할 것으로 전망했다. 즉 미국과 유럽의 경제성장 격차가 올해 1.4%포인트대에서 내년 2%포인트대로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경제회복을 위해 미국과 유럽이 내놓은 정책의 방향이 정반대여서 이들 정책이 이들의 성장 속도 격차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핵심 변수다. 미국은 지난달 양적완화 프로그램 종료를 선언, '돈찍기'에서 손을 털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❸ 양적완화 종료 달러 강세 금리인상 땐 신흥국 타격

내년엔 강달러 기조로 주요국 환율의 급변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지난 10월 비전통적 통화정책인 양적완화를 종료하고 금리인상 시기를 타진함에 따라 앞으로 달러 가치의 방향성은 위쪽이다. 국제금융센터는 내년 6·9월께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봤다. 더군다나 일본과 유럽연합이 완화적 통화정책을 펼침에 따라 주요국 통화 대비 달러 강세 현상은 더 가파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국제금융센터는 "내년 주요국 환율의 급변 가능성이 커 개별 기업과 정부 차원에서 보수적 환위험 관리가 필요하다"며 "특히 환율 변동성, 엔저 상황에 대한 대비 및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다만 올 하반기 이미 상당 수준의 달러화 강세가 진행돼 내년 미 경제가 강한 회복세를 나타내지 않는 한 달러 강세폭은 올해 수준을 상회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한다. 즉 달러 강세는 실물경제 회복 속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경기회복이 기대에 못 미치면 달러 강세는 '소문난 잔치'에 그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진영 기자 mint@

❹ 中 성장률, 한국에 절대적 잘해야 7% 턱걸이 전망

한국 실물경제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중국경제의 내년 성장률이 7%대에 '턱걸이'를 할 전망이다. 중국의 경제 둔화가 장기 추세에 접어든 가운데 대내외 요인에 따라 그 둔화 속도를 주시해야 한다는 진단이다.

주요 기관들은 중국의 성장률이 2013년 7.7%, 2014년 7.4%에 이어 내년 7.1%로 전망했다. 중국의 사회과학원도 2016~2020년 잠재성장률을 기존 7.1%에서 6.2%로 하향 조정했다.

더군다나 중국 정부의 지속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이 미진할 시 성장동력이 약화할 뿐만 아니라 거품 붕괴 등 경착륙 위험도 증대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중국 국무원발전연구중심은 정부의 개혁 조치가 미진할 경우 장기 성장률이 약 1.5% 포인트 추가 하락할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중국 정부의 개혁정책은 한동안 경기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부동산 가격 억제는 '투자위축'을, 과잉 유동성 억제는 '신용불안'을, 반부패 척결은 '소비위축'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진영 기자 mint@

❺ 유가 배럴당 30달러까지? 새 석유시장 질서 가능성

유가 하락도 내년 글로벌 경제 핵심 키워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유가는 배럴당 100달러선이 무너진 데 이어 이달 초 80달러선이 무너져 현재 75달러 안팎으로 움직이고 있다. 미국의 원유 생산량 증가와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가격 인하 정책 그리고 글로벌 경제 성장 부진에 따른 수요 감소가 맞물린 영향이다.

당장 오는 27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리는 OPEC 석유장관회의에서 원유 생산량 감축 결정이 나올지 여부에 시장의 관심이 쏠렸다. OPEC의 감산 여부에 대한 시장의 전망은 제각각이다. OPEC가 글로벌 원유시장 점유율 확보를 위해 쉽게 감산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반면, 유가 하락세를 막고자 감산하는 방향으로 뜻을 모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힘을 받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내년 중반 유가가 배럴당 30달러선으로 떨어진다면 '새로운 석유시장 질서'가 정립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亞太증시 내년 11% 수익 미국은 하반기부터 부진

골드만삭스 '2015 증시 전망' 보고서

아시아 주식시장이 오는 2015년 주요 지역 중에서 최고의 수익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골드만삭스는 20일(현지시간) 공개한 '2015 증시 전망' 보고서에서 내년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태평양 증시가 달러 기준 11%의 수익률을 올릴 것으로 내다봤다고 투자전문 매체 마켓워치가 보도했다.

일본 닛케이225지수는 내년 8% 오르고, 유럽 스톡스600지수는 5%의 상승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골드만삭스는 덧붙였다.

미국 증시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올해의 상승세를 이어가겠지만, 하반기에는 부진할 것으로 전망됐다. 골드만삭스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의 상승폭이 내년 5%를 기록할 것이라면서 상반기 2150까지 오른 뒤 하반기 2100선으로 빠질 것으로 예상했다.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6년 만에 금리를 올리면서 증시에도 부담이 될 전망이다. 미국 기업의 순이익 성장률도 둔화할 것으로 골드만삭스는 전망했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S&P500 기업의 주당순익(EPS)은 122달러로 5% 증가하고, 매출은 4%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마진율은 9.1%로 예상됐다.

데이비드 코스틴 골드만삭스 미국 주식 투자전략가는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내년 3%대를 기록할 것"이라면서 "변동성은 제한되고, 주식 수익률도 낮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코스틴 전략가는 내년 미국 증시에서 펀더멘털과 실적 그리고 기술적 움직임에 기초한 투자를 권고했다. 그는 내수 비중이 높은 기업에 주목하고, 유럽 매출 비중이 큰 종목은 피하라고 덧붙였다. 또 적극적인 자사주 매입과 배당 비중이 큰 종목을 추천했다. 업종별로는 IT주가 실적 호전과 함께 주가 상승률이 높을 전망이다. IT업종의 내년 EPS 성장률은 9%로 제시됐다.

유가가 하락하고 있지만 에너지주의 전망이 밝으며, 통신서비스와 금융·헬스케어·필수 소비재·유틸리티 업종 역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고 골드만삭스는 강조했다. 반면, 산업재와 제조업 등에 대해서는 투자 비중을 축소해야 한다고 골드만삭스는 덧붙였다.

뉴욕/민태성 기자 tsmin@

국유지 임대 한도 최대 20년서 50년으로

토지매입비 부담 민간투자자 장기임대방식으로 투자 유도 캠코에 행정대집행 권한 부여

기재부, 국유재산 관리 개선 방향

국유지 임대기간	현행 최대 20년인 국유지 임차 한도기간, 50년으로 확대
소액대부료 일괄 징수	소액 대부료, 연별 징수방식에서 임대기간(최대 5년) 전체 액을 일시 징수
대부료에 대한 최저입찰 예정가 인상	현행 20/100인 최저입찰 예정가, 50/100으로 인상
캠코에 체납처분 권한, 행정대집행 권한 부여	체납처분 권한 부여 여부 법률가 의견 수렴, 행정대집행 권한 부여토록 법 개정
대부료에 대한 시효 규정 신설	차후 국유재산법 개정시 시효제도 신설

정부가 현행 최대 20년인 국유지 임대 한도기간을 50년까지 늘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장기임대방식을 활용, 토지매입비 부담을 겪고 있는 민간투자자를 유인하고 세수도 확보한다는 복안이다.

기획재정부는 21일 국회에 제출한 올해 국정감사 서면답변서를 통해 국유재산법을 이같이 개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는 지난 10월 국감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이 "장기 토지임대형 민간참여 시행 후 민간의 안정적 사업수행 및 수입 확보가 가능하도록 50년간 대부가 가능하도록 바꿔야 한다"며 내놓은 제안을 그대로 수용하겠다는 의미다.

기재부는 또한 통상 5년 동안 연별로 징수해 온 소액 대부료도 5년마다 전체액을 일시 징수할 계획이다. 소액 대부료의 경우 경작용, 주거용이 대부분으로 국유지를 빌린 이들이 대다수 노령층이어서 납부에 애로를 겪어 왔다. 일괄 징수제가 도입되면 대부 기간의 표준지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일부 대부료 손실액이 발생하지만 이는 연 2800만원으로 미미한 수준이며, 대신 징수업무량이 감소하고 피대부자의 송금 수수료도 줄어 경제적 비용 절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행 100분의 20인 최저입찰 예정가를 100분의 50으로 인상해 국고 수입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는 행정재산에 대해 일반경쟁입찰을 두 번 실시해도 낙찰가가 없는 재산에 대해선 세 번째 입찰부터 최초 사용료 예정가격의 100분의 20을 최저한도로 하고 있는데, '대부료 제값 받기' 차원에서 최저한도를 100분의 50으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기재부는 국유재산 관리 위탁을 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압류, 공매 등을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체납처분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국유재산에 대한 대부료, 변상금 및 연체료 체납 시 지금까지 관할 세무서장이 캠코로부터 압류, 공매 요청을 받아 왔지만 지연되거나 방치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기재부는 아울러 캠코에 행정대집행 권한도 부여해 국유지 무단점유에 대응키로 했다.

김미영 기자 bomnal@

내년 경제정책 방향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오전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주요 연구기관장 조찬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열린 조찬간담회에서는 주요 국책·민간 연구기관장들과 '최근 경제동향과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주제로 논의한다. 노진환 기자 myfixer@

금주의 법안

임차인 계약갱신요구 기간 5년서 10년으로 연장 추진

국회 의안과에 따르면 지난 17일부터 21일 오전 현재까지 제출된 법안은 총 99개다. 의원입법이 93개, 정부입법이 6개다.

현재 일정 보증금을 초과한 임대차엔 적용되지 않는 이 법을 보증금 규모와 관계 없이 적용되도록 하고,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임차인이 재건축, 개축 등 임대인의 사정으로 퇴거하게 돼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는 경우엔 퇴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을' 보호에 주안점을 뒀다.

같은 당 윤호중 의원은 올 연말 일몰이 도래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폐지하되, 중소기업에 한해 고용창출인원당 1000만원의 세액공제를 해 주는 별도의 고용창출세액공제를 신설토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냈다.

김미영 기자 bomnal@

뒷돈은 기본… 이권 개입하며 조폭 동원

뉴타운 재개발 간부·시공사 등 무더기 기소

철거업체, 조합장에 뇌물주고 하도급업체선 리베이트 챙겨

용역업체 공사비 부풀려 자금 조성…결국 일반조합원 부담



철거업체 W사 회장 고모(52·구속)씨 등 임원 3명은 지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가재울 3구역, 왕십리 3구역, 거여 2-2지구 등 3군데 재개발조합 임원들에게 재개발 사업 추진위원회 단계에서부터 대여금 형식으로 10억원 상당의 뇌물을 지급하거나 철거 하도급업체로부터 리베이트 16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또한 해당 철거업체는 실체가 없는 이른바 외부용역(OS)업체를 만들어 놓고 조합원들로부터 시공사나 협력업체 선정 등을 위임받는 내용의 서면동의서를 받고 나서 사실상 사업 전반에 대한 전권을 휘둘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서울 주요 뉴타운지구의 재개발을 둘러싸고 사업 추진단계에서부터 실제 공사가 진행되기까지 온갖 비리가 만연돼 있다는 것을 수사를 통해 확인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는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각종 이권을 둘러싸고 리베이트를 주고받고 공사비를 부풀리는 등의 혐의로 가재울·왕십리·거여·북아현 뉴타운지구의 4개 구역 재개발 조합 전·현직 임원과 시공사 관계자, 철거업체 임원 등 15명을 구속 기소하고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이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문제의 재개발 구역에 대해 집중 수사한 결과 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에서부터 철거업체나 정비사업관리업체가 깊숙이 개입해 조합장들을 상대로 로비를 해 유착관계를 형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에 따르면 가재울 3구역 조합장 한모(59·구속)씨는 다른 조합 임원 5명과 철거공사 수주 대가로 W사로부터 1억5000만원 상당의 뒷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또 왕십리 3구역 조합장 이모(69·구속)씨 등 5명 역시 W사로부터 2008~10년 각종 용역 수주 대가로 12억5000만원을 받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드러났다.

뿐만 아니다. 검찰은 재개발조합 임원들이 각종 용역대금의 10%를 리베이트 명목으로 관행적으로 받아온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철거업체나 용역업체들은 각종 공사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리베이트 자금을 조성했고, 결과적으로 이는 일반 조합원들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그간 소문으로만 무성하던 관행적인 리베이트 지급과 뿌리 깊은 비리 구조가 수사 결과 확인됐다"며 "다른 지구에서도 비슷한 유형의 비리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북아현 3구역의 사업구역 확장 추진을 청탁하고 4억원을 사업 전반을 담당하던 정비업체 측에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해당 구역의 시공사로 선정된 대형 건설사 2곳의 박모(52·불구속) 전 부장 등 2명도 재판에 넘겼다.

김면수 기자 tearand76@

"도서정가제는 책통법"

온라인 서점 폭주 사이트 마비

소비자 "휴대폰도 책도 비싸져"

할인 줄면서 책구입 감소할 듯

21일 도서정가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책 유통 시장에 큰 혼란이 일어났다.

도서정가제 시행을 하루 앞둔 20일 오후, 주요 온라인 서점에서 책을 구입하려는 이용자가 폭주하면서 예스24, 알라딘 등 온라인 사이트가 상당 시간 마비되는 홍역을 치렀다.

모든 도서는 21일부터 도서정가제로 인해 최대 15%까지만 할인이 가능하다. 가격은 10%까지 할인할 수 있고, 포인트는 5%까지 적립이 허용된다. 이날까지 마지막 할인이 가능한 온라인 서점들은 일제히 최대 90% 파격 할인에 나섰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이 반값 할인, 90% 땡처리 할인 등을 받기 위해 온라인서점으로 몰리면서 사이트 대거 마비 사태로 이어졌다.

소비자들은 도서정가제 실시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김진영(34·서울시 중랑구)씨는 "스마트폰도, 책도 모두 비싸게 살 수밖에 없는 시대"라며 "도서정가제는 단통법에 이은 책통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한주간 국내 주요 가격정보 사이트들에서는 도서정가제를 비난하는 글들이 대거 올라오면서 해당 정책을 성토하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도서정가제 시행에 따라 온라인 서점들은 반짝 특수를 누렸다. 소비자들이 도서정가제 시행 전 책을 대거 구입하면서 인터파크도서는 최근 1주일(13~19일)간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42%가 증가했으며, 11번가 도서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0% 늘었다.

그러나 업계의 고민도 크다. 반짝 호재를 봤지만, 대량의 책이 판매된 만큼 당분간 책 소비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다. 또한 도서 할인이 줄면서 책 구입 수요가 장기적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걱정도 많다.

조성익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최근 '도서정가제와 소비자의 편익' 보고서를 통해 "도서정가제로 책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며 "소비 위축은 도서시장과 업계에 치명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혜진 기자 sinembargo@



파라다이스세가사미는 20일 인천 영종도에서 글로벌 복합리조트인 '파라다이스시티' 기공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파라다이스시티는 토목공사 후 호텔, 카지노, 컨벤션, K-플라자, 스파, 부티크 호텔 등의 순으로 조성되며 2017년 상반기 문을 열 예정이다. 2014.11.20. 뉴시스

영종도 '파라다이스시티' 첫 삽

1조3000억 들여 복합리조트 건립

2017년 1차 준공 호텔·카지노 열어

파라다이스그룹이 1조3000억원 규모의 복합리조트 사업을 위해 본격적으로 삽을 들었다.

파라다이스그룹과 일본 세가사미그룹의 합작법인인 파라다이스세가사미는 20일 인천 영종도에서 '파라다이스시티' 기공식을 개최했다. 이는 지난 2011년 인천국제공항 국제업무지역(IBC-I 2단계)개발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지 약 37개월 만이다.

파라다이스시티는 총 사업비 1조3000억원을 인천 영종도에 투자, 문화·예술 복합리조트를 구성하는 프로젝트다. 전체 대지 20만3041㎡(전체 대지면적 33만㎡) 규모로 지어지며, 특1급 호텔(711실), 외국인 전용 카지노(대지면적 3만5205㎡, 영업장 면적 약 1만3000㎡), 플라자, 컨벤션시설(2만4266㎡), 실내형 테마파크, 레스토랑, 고급형 스파(2만1739㎡), 부티크 호텔(103실) 등이 들어선다.

파라다이스시티는 2017년 3월 1차 준공을 마치고 우선 호텔과 카지노의 문을 열 예정이다. 이어 7월 부티크 호텔, 플라자 및 스파 등을 2차 오픈할 계획이다. 회사 측은 쇼핑·오락·공연 공간 등 내·외국인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공간들을 통해 '한국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로 만들 계획이다. 또한 파라다이스시티 운영으로 고용 76만6263명, 생산 6조3729억원, 부가가치 2조6662억원 등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김혜진 기자 sinembargo@

"전자파 인증된 셀카봉 쓰세요"

미래부, 블루투스 제품 집중 단속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셀카봉에 대해 '전자파 인증' 검사 단속이 강화된다.

미래창조과학부 중앙전파관리소는 21일 "그동안 전자파 적합 인증을 받지 않은 블루투스 셀카봉에 대해 단속을 실시했음에도 다수의 미인증 제품이 유통되고 있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블루투스 셀카봉은 전파를 이용하는 방송통신기기로 전자파 '적합인증'을 받아야 한다. 전자파로 인해 주변기기에 장해를 주거나 기기 자체의 오동작 또는 성능 저하가 발생할 수 있어, 전파법에 규정된 전자파 장해 방지기준 등의 적합성 평가기준에 관한 시험을 거쳐야 한다는 의미다.

단속 대상은 판매·수입업자로 한정된다. 개인 사용 목적으로 소비자가 해외에서 직접 구매해 들여올 경우 전자파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 방송통신기기를 인증 받지 않고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전파법 제84조 제5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미인증 블루투스 셀카봉과 같은 불법기기 관련 제보나 신고는 미래창조과학부 중앙전파관리소(080-700-0074)로 하면 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아직 블루투스 셀카봉의 전자파 문제가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미리 규제를 통해 스마트폰 문화를 억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하유미 기자 jscs508@

"동영상 재생전 광고 금지 문제 없다"

대법, 공정위 네이버 시정명령 취소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운영사인 NHN이 동영상 재생 업체들을 상대로 '재생 전 광고'를 못하도록 한 것은 공정거래 위반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포털사이트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NHN이 공정위 제재를 받게 된 것은 동영상이 재생되기 전에 삽입되는 '재생 전 광고' 때문이다. NHN은 2006년 4월부터 2007년 3월까지 판도라TV 등 동영상 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네이버 검색을 통해 찾을 수 있는 동영상에 한해서는 재생 전 광고를 넣지 않기로 했다. 공정위는 NHN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사용자제작콘텐츠(UCC) 동영상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했다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함께 2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NHN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업체들에게 불이익을 강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좌영길 기자 jyg97@

서울카페쇼… 구수한 원두향에 취해



올해 우리나라 커피 수입 규모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며 커피 소비가 급격히 늘고 있는 가운데 2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2014 서울카페쇼'가 열리고 있다. 행사장을 찾은 여성들이 드립커피가 만들어지는 모습을 살펴보고 있다. 올해로 13회째인 서울카페쇼는 여러 품종의 생두를 비롯해 에스프레소 기계, 디저트, 카페 인테리어 등 커피산업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20년 방치' 병원 부지에 21억 이행강제금 처분 논란

두산건설 분당신도시에 착공

경영 전망 불투명해지자 중단

용도변경 추진에 이행금 부과

"부당하다" 행정심판 청구

두산건설이 21억원의 이행강제금 부과 논란에 휩싸였다. 1990년대 초 성남 분당신도시 조성 당시 병원을 짓겠다며 사들인 의료시설 용지에서 공사를 중단한 채 장기간 방치하며 업무시설로 용도변경을 추진하다 20억원이 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것이다.

두산건설은 건축허가를 받아 병원을 짓다 사정 변경으로 공사가 중단된 것이라며 짓다만 시설물을 불법 건축물로 보고 이행강제금을 물린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달 23일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남시는 두산건설이 분당구 정자동 161 일원 의료시설용지 9936㎡의 터에 병원 공사를 하다 중단하고 장기간 방치했다며 지난 9월 29일 21억6872만70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두산건설은 1991년 분당신도시 조성 당시 의료법인 명의로 이 땅을 LH(당시 한국토지공사)로부터 매입한 뒤 1994년 11월 지하 2층, 지상 7층, 건축면적 4583.3㎡ 규모로 건축허가를 받아 병원 건립 공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분당에 서울대병원 등 여러 종합병원이 들어서면서 의료시설 경영 전망이 불투명해지자 1997년 말 지하 2층 골조공사만 끝낸 채 공사를 중단했다.

이후 2001년부터 최근까지 수차례 병원 부지의 용도 변경을 시에 요청했다.

성남시는 건축허가 후 10년 이상 병원 건립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공사가 재개되지 않자 2010년 12월 건축 허가를 취소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두산건설은 원상복구를 하지 않은 채 2011~13년 해마다 1억800여만~2억3000여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내면서 이 땅의 용도변경을 추진해왔다.

이 땅은 1996년 매입 당시 ㎡당 73만여원(총 72억여원)이었으나 올해 초 공시지가는 ㎡당 693만여원(총 689억여원)으로 올랐다.

성남시는 "건축허가가 취소돼 사실상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 놓인 시설물과 땅이 장기간 방치돼 시정명령했는데도 수년 동안 원상복구를 하지 않아 무단건축물로 간주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고 말했다.

두산건설은 2011~13년 건축허가 후 방치된 시설물이라는 시 판단에 따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이 적용돼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다.

두산건설 측은 "건축허가를 받아 짓다만 시설물이라 불법 건축물이 아니다. 또 사정변경으로 공사가 중단된 것인 만큼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된 시설물로 보고 이행강제금을 물린 것은 부당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박태진 기자 tjpippo@

동대문구보육센터 도서대여원 모집

여성직장 재탐색

동대문구보육정보센터에서 도서대여원을 모집한다. 직무내용은 도서대여업무, 영유아프로그램 보조 등이다. 24개월 계약직으로 센터 측은 파견근로는 희망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우편, 팩스, 이메일 등으로 접수하면 면접을 거쳐 최종 선발된다. 유아교육학 전공자, 보육교사3급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한다. 지원자의 경력이나 학력에 대한 제한은 없다. 근무예정지는 동대문구 답십리동에 위치하고 있다. 전철역은 수도권 2호선 신답역이다. 주 6일 근무, 월~금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유혜은 기자 euna@

모집요강

모집직종	직무교육강사
직무내용	직업 · 생활문화 교육 프로그램 강의
접수마감일	채용시까지
고용형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3개월
경력조건	관계없음
학력	학력무관
우대사항	인근거주자

종이컵 재활용 관심 20년전만 못해…"실제 1%도 안될 것"

일회용 컵 대신 텀블러를

「이투데이·환경재단 350 캠페인

후원 :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
국회 환경노동위·산업통상자원위

<시리즈 순서>

① 텀블러 이용실태 조사
② 대한민국은 '종이컵 천국'
③ 일회용컵을 안써야 하는 이유
④ '친환경 경영'이 뜬다
⑤ 일회용컵 없이 생활하기
⑥ 종이컵의 죽음과 환생
⑦ 특명 "탄소배출량을 줄여라"
⑧ 일회용컵 사용 절감 제언



재활용업체 적자에 허덕…폐업 속출
정부서 일부 지원하지만 턱없이 부족
전국 98곳 중 68곳 직원 10명도 안돼

수거비용 많이 들어 대부분 소각해
한국산 폐지 질 저하로 수출도 '뚝'
정부 통계부터 제대로…활성화 시급

"종이컵 재활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20년 전보다도 못하다."

폐지 재활용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어려워진 사업환경을 호소했다. 종이컵이나 우유팩을 따로 모아서 배출할 수 있는 여건은 예전보다 나아졌지만 실제로 재활용 원료로 쓸 수 있는 비율은 크게 떨어졌다는 것이다. 일차적으로 배출되는 단계에서 형식적인 분리수거가 이뤄지다 보니 수집된 폐지의 질이 낮아졌고 그만큼 A씨 회사의 경영여건도 어려워졌다. 종이컵 등 종이폐기물의 재활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과거보다 덜해지면서 폐지재활용 업체들이 고사 직전으로 내몰리고 있다. 적어도 환경분야에서는 개별기업의 사익과 국민 전체의 공익이 충돌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재활용업체는 공익이 증진될수록 업체도 좋아진다. 폐지재활용 업체의 경영이 악화했다는 것은 사회·경제적 낭비가 그만큼 커졌다는 뜻도 된다.

◇재활용업체 적자에 허덕여… 상당수 문 닫아 = A씨가 운영하는 업체는 흔히 '고물상'이라고 부르는 규모의 영세사업장이다. 회사 구성원 수는 A씨와 한국인 1명, 외국인 근로자 3명을 포함해 총 5명이다. 이 업체의 매출구조는 아파트, 학교, 공공센터 등에서 직접 폐지를 수집하거나 노인들이 주워 온 폐지를 사들인 후 이를 다시 분류해 재가공업체에 판매해 이윤을 남기는 방식이다.

A씨 입장에서는 버려지는 폐지에 오물이 많이 섞인다는 것은 단순히 일이 힘들어지는 것 이상을 의미한다. 일차적으로 버려진 쓰레기를 사들이는 비용은 이 업체의 '지출'인 반면 그 가운데 원재료가 될 수 있는 것들을 다시 선별해 재가공업체에 판매하는 금액이 '수입'이다. 폐지 배출은 많아졌지만 질이 떨어지면 그만큼 지출은 늘고 수입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정부가 '지출'에 해당하는 폐지 매입비용을 일부 지원해주고 있지만 업체 입장에서는 턱없이 부족하다.

A씨는 "우리 업종 하는 사람 중에 최근 몇 년 동안 적자에 시달리지 않는 경우를 들어본 적이 없다"며 "회사 이름만 있지 실제로는 문 닫은 업체도 많다"고 말했다. 환경관리공단의 환경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전국에 A씨의 회사와 같은 폐지 재활용업체는 총 98곳으로 집계된다. 이 가운데 68곳은 종업원 수가 10명이 채 되지 않은 영세사업장이다.

◇"실제 재활용 1%도 안될 것"… 대부분 소각장으로 = 경기도에 있는 한 중부고속도로 구간의 휴게소. 이곳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먹을거리는 종이컵에 담겨서 판매된다. 배출되는 종이컵의 양은 어마어마하다. 이 휴게소의 폐기물 관리자 B씨는 "종이컵을 따로 분류하는 것만 하루 30~50kg 정도가 된다"며 "경부고속도로 쪽의 큰 휴게소는 훨씬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B씨는 이 휴게소에서 나오는 종이컵 상당수가 일반쓰레기들과 함께 그냥 버려진다고 말했다. 그는 "종이컵에는 음식물뿐 아니라 담뱃재, 침 등이 묻어 있어 종이컵만 따로 수거하기 어렵고 깨끗이 씻는다고 해도 수거 비용이 많이 든다"며 "5톤 차에 일반 파지는 3톤 정도 실을 수 있고 종이컵은 700kg밖에 못 싣는데 누가 그 돈 받자고 종이컵을 회수해 가겠느냐"고 했다.

한해 생산된 종이컵 가운데 어느 정도가 재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통계는 없다. 민간 환경단체 등의 일부 전수조사를 통해 약 14%가량이 재활용되는 것으로 추정될 뿐이다. 하지만 실제 폐기물을 수거하는 현업 종사자들은 그나마도 실제보다 높게 추정된 것으로 본다. B씨는 "종이컵이 재활용되는 비율이 채 1%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 많던 수출도 뚝… 정부가 보다 관심 둬야" = 폐지 재활용업계 관계자들은 오히려 90년대의 사회적 여건이 지금보다 나았다고 말한다. 당시는 서울 난지도 쓰레기 매립지가 포화상태에 이르는 등의 이슈로 쓰레기 배출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많았던 때다. '좋은 일'을 한다는 사회적 인식도 큰 힘이 됐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회상한다.

비록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폐지가 수출자원이었던 적도 있었다. 값싼 펄프재료를 찾는 중국 등의 가공업체가 한국의 폐지를 선호했던 것. 하지만 최근에는 한국산 폐지의 질이 떨어지면서 수출도 뚝 끊기는 추세다. 재활용업계 한 관계자는 "중국업체들이 값이 우리보다 비싸더라도 일본이나 독일의 깔끔한 폐지를 수입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업계와 환경단체 등은 정부의 관심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자원순환사회연대의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에는 종이컵 사용량 통계나 배출량처럼 가장 기본적인 통계자료도 없다"며 "관련 업계가 영세한 만큼 정부가 주도적으로 데이터를 구축해야 정교한 정책 수립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충현 기자 lamuziq@

버려진 종이컵 알뜰하게 대접하는
'부림제지' 아시나요

일반적으로 제조업체에서 환경은 비용으로 여겨진다. 무언가를 '경제적이다'라고 표현하는 것과 '환경적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서로 반대말 정도로 생각하기도 한다. 여기 환경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진보할수록 매출도 늘어나는 제조업체가 있다. 버려진 종이컵이나 우유팩 등 폐지를 모아 화장지로 생산하는 부림제지다. 이 회사는 우리나라에 종이 재활용에 대한 인식이 자리 잡기 전부터 국내 최초로 재활용 화장지를 개발·생산해 왔다. 본래 경제학(economy)의 기원은 '자원배분'에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부림제지는 어떤 면에서 가장 경제적인 기업인 셈이다.

부림제지에서는 버려진 종이컵이 소중한 자원으로 대접받는다. 이 회사의 윤명식 회장(73·사진)은 1985년 우유팩 재생공장을 세워 국내 최초로 폐우유팩과 종이컵을 화장지로 개발했다. 쓰레기를 재활용해 환경오염을 줄이는 것은 물론 펄프 수입량을 크게 줄여 외화를 절약한 것이다.

윤 회장이 재활용 화장지 개발을 결심한 것은 80년대 초 박스공장을 운영하던 중 아파트 단지에 쌓여 있는 우유팩 쓰레기를 보면서였다. 종이컵이나 우유팩에 쓰이는 종이는 식품용기인 만큼 까다로운 기준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인체에 해가 없는 최고급 펄프가 사용된다. 인체에 직접 닿아야 하는 화장지를 만들기에 그만한 재료가 없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1985년 우유팩 재생공장 설립
재활용 화장지 생산 외길 걸어
친환경 제품 홍보도 적극 나서



윤 회장은 폐우유팩을 압력밥솥에 쪄 보는 등 다양한 실험 끝에 코팅을 벗겨 화장지 원료로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힘든 시기도 있었다.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과 학교 등을 발로 뛰며 폐우유팩을 수거한 끝에 냄새도 없고 인체에 해로운 형광물질도 없는 화장지를 개발, 특허등록을 했지만 '공정상 특허요인이 없다'는 이유로 특허등록을 받지 못했다. 중견 규모의 제지업체들이 직원들을 빼내 재활용 화장지를 만들었고 폐우유팩 값과 수거비용이 올라가자 회사는 부도를 맞게 된 것. 이때 회사를 살린 것은 시민들이었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부림제지 살리기 운동'이 벌어져 종교단체와 대기업이 제품을 사 주면서 회사의 경영이 정상화될 수 있었다.

재활용 화장지라는 외길을 걸어온 노력은 결실로 이어졌다. 1992년 재활용 화장지 부문 환경마크를 인증받고, 1993년 세계 환경의 날 대통령 표창을 받는 등 많은 환경 관련 수상경력도 얻게 됐다. 1994년에는 전철표로 재생화장지를 개발해 특허출원하였으며 환경부가 주최하고 재생공사에서 시행하는 친환경제품 홍보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됐다. 부림제지는 현재 매출 80억원을 바라보고 있다. 한해 수거하는 종이컵·우유팩의 양은 5000여톤에 달한다. 판매와 생산라인도 어엿한 모습을 갖췄다. 윤 회장의 어린 시절 별명을 붙인 '코주부 화장지'는 대표 제품이 됐다. 지난해 8월에는 경기 이천시에 3000평 규모의 공장을 지어 화장지 기계를 자동화했다. 직접 눈으로 판별하던 잡티와 불순물은 이제 컴퓨터로 정밀하게 잡아낸다.

현재 부림제지가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재료를 '제대로' 수거하는 일이다. 정상현 부림제지 이사는 "그동안 서울의 아파트를 중심으로 수거하던 것에서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나 지방 새마을운동본부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라며 "우리 노력만으로 한계가 있는 만큼 기금 등을 활용한 정부의 홍보가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유충현 기자 lamuziq@

서울시『경희궁자이』입주자모집정정공고

2014년11월20일자로 입주자모집공고한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자이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를 아래와 같이 정정[공급세대수(특별공급세대수)]공고 합니다.

▣ 공급대상

당초				정정			
구 분	주택형 (주거전용면적)	약식표기	공급세대수 (특별공급세대수)	구 분	주택형 (주거전용면적)	약식표기	공급세대수 (특별공급세대수)
민영주택 (2BL)	59.8547A	59A	7(2)	민영주택 (2BL)	59.8547A	59A	7(2)
	59.8950B	59B	8(3)		59.8950B	59B	8(2)
	59.8655C	59C	3(1)		59.8655C	59C	3
	84.6140A	84A	108(36)		84.6140A	84A	108(35)
	84.8359B	84B	212(70)		84.8359B	84B	212(70)
	84.9443C	84C	62(20)		84.9443C	84C	62(20)
	84.9071D	84D	48(16)		84.9071D	84D	48(15)
	84.9895E	84E	34(11)		84.9895E	84E	34(11)
	84.9339F	84F	15(5)		84.9339F	84F	15(6)
	84.5527G	84G	4(1)		84.5527G	84G	4(0)
	101.9914A	101A	54(2)		101.9914A	101A	54(8)
	101.8976B	101B	6		101.8976B	101B	6
	101.9702C	101C	4		101.9702C	101C	4
	116.9383A	116A	7		116.9383A	116A	7
	116.9862B	116B	15		116.9862B	116B	15(2)
	116.8444C	116C	2		116.8444C	116C	2
	138.6533	138	6		138.6533	138	6
민영주택 (3BL)	59.8547A	59A	52(17)	민영주택 (3BL)	59.8547A	59A	52(18)
	59.7547D	59D	12(4)		59.7547D	59D	12(4)
	59.9425E	59E	5(2)		59.9425E	59E	5(2)
	59.4712F	59F	3(1)		59.4712F	59F	3
	84.6140A	84A	94(31)		84.6140A	84A	94(31)
	84.8359B	84B	132(44)		84.8359B	84B	132(44)
	84.9443C	84C	31(9)		84.9443C	84C	31(11)
	116.9383A	116A	8		116.9383A	116A	8
민영주택 (4BL)	33.9820	33	11(4)	민영주택 (4BL)	33.9820	33	11(4)
	37.2635	37	83(27)		37.2635	37	83(26)
	45.8790	45	59(19)		45.8790	45	59(20)

※ 기타 공고사항 내용은 당초 입주자모집공고(당사 홈페이지 게시물)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이투데이 교육센터 대관안내

대관 문의
대관 담당자와 전화통화로 임대 가능여부 확인
전략사업실: 02-799-2683

대관 신청
대관 신청서를 작성하여 팩스 및 이메일 송부
FAX: 02-784-2666

시설 현황
스크린 | 프로젝터 | 노트북 | 유선 Mic 2ea | Console | Speaker
WiFi 가능 | 현수막 부착 가능

위치 안내
대방역 도보 1분, 샛강역 도보 3분, 여의도역 도보 10분



'이투데이 | 교육센터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62길 1 이투데이빌딩 | 1, Yeouidaebang-ro 62-gil, Dongjak-gu, Seoul, Korea | TEL.02)799-2600 | FAX.02)784-1003 | www.etoday.co.kr




● 칭찬 스티커




● 말하는 포스터



● 물쉼표 노래 & 체조(율동) 애니메이션




● 캐릭터 물컵

전국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코웨이 물쉼표 시간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서울부터 제주도까지
전국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물 마시는 일이 세상 가장 재미있는 놀이'가 되는
코웨이 물쉼표 시간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많은 어린이집, 유치원이
물쉼표 시간과 함께 한다면

스스로, 물을 찾아 마시는
건강한 물습관을 갖게 되는
아이들이 더 많아지게 되겠죠?

세 살 물습관, 평생 가도록
코웨이 물쉼표 시간

하루 두 번 건강한 물습관
물쉼표 시간

코웨이 물쉼표 시간에 참여해주세요

코웨이 홈페이지(www.coway.co.kr)를 통해
신청해주시는 전국어린이집 유치원에, 아이들이 즐겁게
물습관을 키울 수 있는 물쉼표 키트를 제공해드립니다

코웨이의 물쉼표 시간 키트에는 캐릭터 물컵 / 말하는 포스터 / 현판 / 칭찬 스티커 / 율동 애니메이션 2편 / 물교육 동영상 4편 / 가정용 브로셔 / 일반 포스터가 들어있습니다.

물쉼표 시간 응원 이벤트 (11월 30일까지)
물쉼표 시간 참여 어린이들에게 응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www.coway.co.kr/watergrow)

생명을 책임지는 기술
coway

정수기 | 공기청정기 | 룰루비데 | 연수기 | 음식물처리기 | 매트리스 케어렌탈

마감 D-7… 우리銀 매각 이번에도?

유력후보 교보생명 조건부 입찰
경쟁후보 안방보험 불참 가능성
4번째 민영화 도전 또 실패 우려

올해 금융권 최대 빅딜이 될 우리은행 입찰 마감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상황이 좋지 않다. 유력 인수후보인 교보생명은 조건부 입찰 참여를 통해 유보적 입장을 보였고, 또 다른 경쟁후보인 안방보험은 불참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정부의 4번째 민영화 도전이 또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8일 우리은행 경영권지분 매각 예비입찰 및 소수지분 매각 본입찰을 마감한다.

정부가 보유한 우리은행 지분은 56.97%다. '30%+경영권'을 경영권 지분으로 분류해 매각하고 콜옵션이 포함된 나머지 소수 지분 26.97%은 희망 수량 경쟁입찰 방식으로 쪼개 판다. 지분 낙찰자는 다음달 초에, 경영권 지분의 최종 입찰 대상자는 연내에 선정하겠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그런데 상황이 녹록치 않다. 유력 인수 후보인 교보생명은 인수전 참여를 유보했다. 경영권 매각 예비입찰에는 일단 참여하지만 매각가, 컨소시엄 구성, 특혜 시비 등 변수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중단하겠다는 것이다. 최종 결정은 입찰 마감일인 28일 내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보생명이 매각 참여를 결정한다하더라도 안심할 수 없다. 경영권 매각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유효경쟁이 이뤄져야 한다.

그런데 IB업계에서 안반보험이 국부유출 논란 부담 탓에 인수전에 불참할 것이란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만약 유효경쟁이 성립되지 않아 경영권 매각이 무산되면 정부는 '플랜'을 다시 짜야 한다. 증권 등 비은행 계열사는 모두 팔았지만 핵심 계열사인 우리은행의 매각은 실패하면서 반쪽자리 우리금융 민영화가 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경영권 매각이 무산될 경우를 대비해 계획을 세워놓은 것은 없다"며 "28일 입찰 마감뒤 결과를 확인하고 그때 다시 새로운 방안을 논의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은행이 워낙 '빅딜'이다보니, 매각 방안을 논의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며 "만약 이번 경영권 매각이 무산된다면 민영화는 내년으로 미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선현 기자 sunhyun@

금감원, STX 부실대출 산은 징계 수위 낮춰

제재심서 임직원 11명 경징계 결정

금융감독원이 STX 부실대출과 관련해 산업은행 임직원 11명을 경징계 조치했다. 이는 당초 사전 통보된 중징계보다 징계 수위가 낮아진 것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산은 임직원 11명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8월 산은의 STX 부실대출 문제로 중징계 대상 1명을 포함해 총 11명에 대해 제재 내용을 사전 통보했다.

그러나 이날 심의에서는 중징계를 통보받았던 본부장급 인사 1명이 경징계(견책)로 감경됐다. 이밖에 다른 직원 한 명에 대해 추가로 견책 결정이 내려졌고 애초 경징계 통보 대상이었던 나머지 직원들은 주의 조치로 제재 수위가 낮아졌다.

징계 수위가 경감된 데는 금감원장 수장 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아직 진웅섭 원장의 최종 결정은 나지 않았지만 경징계 수준에서 최종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김민지 기자 kimmj@

NH농협금융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14-06415 (2014.09.26~2015.09.24)

전화로 묻지 마세요! 검색으로 찾지 마세요!

연금전문가가 직접 찾아갑니다

연금저축? 연금보험? 절세? 수익률? 복잡한 연금고민!
우리투자증권의 연금전문가가 직접 찾아가 풀어드립니다



찾아가는 연금 서비스 (2014. 8. 25~12. 31)
신청방법 : **고객지원센터(1544-0000)** / 홈페이지, HTS 등
*상담 완료 고객 대상 파리바게뜨 기프티쇼 1매(5천원권) 증정

100세시대 연금저축계좌 EVENT 2014. 8. 1~12. 31 (기간 내 가입 및 이전한 모든 고객 대상)

[EVENT 1] 신규 가입 고객 이벤트
지급조건 : 10만원 이상 펀드 매수 주문 & 10만원 이상/3년 이상 자동이체 약정
제공혜택 : 농촌사랑상품권 1만원

[EVENT 2] 가입/이전 고객 이벤트
4백만원 이상 ~ 1천만원 미만 : 농촌사랑상품권 2만원
1천만원 이상 ~ 3천만원 미만 : 농촌사랑상품권 3만원
3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 농촌사랑상품권 5만원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농촌사랑상품권 10만원
1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 농촌사랑상품권 50만원
3억원 이상 : 농촌사랑상품권 100만원

[EVENT 3] 단체 가입 고객 이벤트 (~11월 30일까지)
지급조건 : 최소 5인 이상 단체 등록
제공혜택 : CJ외식상품권 *5인 이상 초과시마다 외식상품권 5만원 추가 지급

100세시대 연금저축계좌란? 하나의 계좌 안에서 다양한 연금저축펀드에 투자하여 노후에 연금으로 수령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원금손실위험이 높습니다. ■ 당사는 위험성, 손익구조, 수수료, 해지방법 등 금융투자상품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하시기 전에 반드시 영업직원으로부터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투자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 제세공과금(22%)은 고객부담입니다.

우리투자증권

'3%대 금리' 대출 광고… 실제론 4~7% 적용

현대캐피탈 '현혹 마케팅' 논란

당국 "금융사 마케팅 관여 못해"

김모(43)씨는 주택담보대출을 알아보다가 '최저 연 3%대 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현대캐피탈 주택담보대출 홍보 전단지를 보고 전화 상담을 받았다. 하지만 기대는 실망으로 이어졌다. 대출 전문 상담원으로 부터 3%대 금리 상품은 없다는 대답을 듣고 대출 신청을 포기해야 했기 때문이다.

현대캐피탈이 주택담보대출에 실제 적용되는 금리와 거리가 먼 최저금리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대캐피탈이 주택담보대출 전용 홈페이지와 전단지를 통해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판매하면서 '최저금리 연 3%대'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4~7%대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현대캐피탈의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는 연 5.9%다. 사실상 금리에 민감해진 고객을 대상으로 '현혹 마케팅'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캐피탈 업계 관계자는 "현대캐피탈이 2.8~3%대에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데 이 최저금리는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일반 관리 비용이 없다고 해도 수익을 남기려면 최소 마지노선이 4%대 이상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캐피탈 측은 최저금리에 대해 "고객 연봉, 신용등급, 담보가액에 따라 금리를 차등 적용하고 있다"면서 "LTV, DTI 완화 효과로 주택담보대출 실적이 급감해 지난달 금리를 0.87% 인하해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LTV(주택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완화 정책 이후 수요자들이 금리가 낮은 시중은행으로 몰리면서 두 달간 저축은행 등 비은행 금융회사의 대출은 9000억원 줄었다.

현대캐피탈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2012년 6800억원에서 지난해 8000억원으로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지난 8월 이후 증가 추세가 완화돼 11월 현재 6400억원을 기록 중이다.

이에 대해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실제로 고객이 최저금리로 대출을 받기가 거의 불가능한데도 은행을 포함한 금융사들이 고객을 현혹하는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사 개별 상품의 마케팅에 대해 관여할 수는 없다"면서 "금융사들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 하는 만큼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대로 정보를 알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엘리 기자 ellee@

명예해병 된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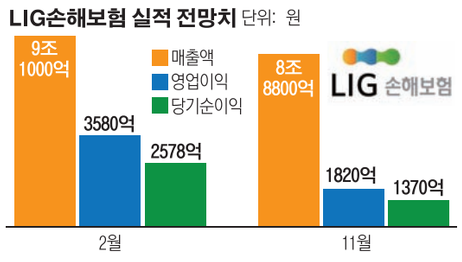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20일 해병대 사령부에서 연평도 하나회관 기부 및 다양한 군부대 지원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명예해병증'을 수여받았다. 이날 열린 명예해병증 수여식에서는 이영주 해병대 사령관과 해병대원들이 참석해 김정태 회장이 명예해병이 된 것을 축하했다. 김 회장은 "무적해병의 일원이 돼 영광"이라며 "조국을 위해 헌신하는 해병대 장병 여러분이 더욱 힘을 낼 수 있도록 하나금융그룹의 지원이 계속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제공 하나금융

4분기 적자 예상 LIG손보, 올 실적 전망 낮춰

미국지점 일반보험 손해율 급증에
순이익 전망 2578억→1370억 수정
LIG "일시적 적자…내년부터 회복"



KB금융지주로의 매각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는 LIG손해보험이 이례적으로 올해 실적 전망치를 대폭 하향조정했다. 3분기까지 실적이 예상보다 저조한 상태에서 손해율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등 4분기 실적이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다만 회사측은 일시적인 효과일 뿐 내년부터는 실적이 회복세에 접어들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LIG손보는 지난 2월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를 3580억원, 당기순이익 2578억원을 기록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하지만 LIG손보는 9개월만에 영업이익 1820억원, 순이익은 1370억원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수정했다. 이는 각각 1760억원, 758억원 줄어든 수치다. 매출액 역시 9조1000억원에서 8조8000억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LIG손보 실적 전망치를 대폭 수정하고 나선 이유는 3분기까지의 실적이 지난해와 비교해 주춤한 상태에서 과거에 판매했던 미국지점의 일반보험 손해율이 급격하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LIG손보는 3분기까지 원수보험료 실적 6조6264억원으로 지난해(6조7304억원)보다 1.5%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2137억원으로 4.0% 줄었다. 순이익만이 1456억원으로 2.6% 늘었다.

특히 지난해 3월 70%에 불과하던 일반보험 손해율은 지난해 말 87.3% 상승했다. 올해 말에는 96.3% 올라 1년 만에 9%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손해율이 상승하면서 미보고발생손해액(IBNR)의 적립금이 550억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IBNR이란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했지만 아직 보험회사에 청구되지 않은 사고에 대비해 쌓아놓는 보험금 추정액이다.

전문가들은 LIG손보의 4분기 순이익은 87억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분석하고 나섰다. 한승희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손해율 상승에 따른 IBNR 적립금이 증가하고 장기IBNR 산출 기준 변경이 반영되는 등 손이익이 당초 계획보다 급감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회사측은 4분기 적자를 기록해 실적전망치가 감소할 것으로 보이지만 내년부터는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했다.

LIG손보 관계자는 "내부에서 올해 IBNR과 관련해 준비금을 올해 적립하고 가자는 생각에서 실적 전망치를 줄인 것이기 때문에 4분기에 적자를 기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하지만 자동차손해율도 업계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장기위험손해율은 오히려 더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어 내년부터는 실적이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현 기자 nfs0118@

토종 하이브리드 기술, 日 턱밑 추격

내달 출시 'LF쏘나타 하이브리드' 복합연비 18.2㎞
경쟁업체 日 토요타 '캠리'보다 리터당 1.8㎞ 우수
2020년까지 8개 모델 늘려 총 12대 라인업 계획도

현대자동차가 하이브리드 기술에서 세계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토요타를 바짝 뒤쫓고 있다.

20일 현대차에 따르면 다음달 출시를 앞두고 있는 LF 쏘나타 하이브리의 복합 연비는 리터당 18.2km로 전 모델보다 9% 향상됐다. 이는 경쟁 모델인 토요타 뉴 캠리 하이브리드(16.4km/ℓ)보다 리터당 1.8km 우수한 수치다. 현대차는 LF 쏘나타 하이브리드를 발판으로 친환경 분야에서 토요타를 앞지르겠다는 전략이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내연 엔진과 배터리 엔진을 동시에 장착한 것으로 저속 구간에선 배터리를 이용해 주행하기 때문에 친환경적이다. 토요타는 1997년 하이브리드 기술이 적용된 '프리우스'를 세계 최초로 양산한 뒤 지금까지 글로벌 하이브리드카 시장 주도권을 놓치지 않고 있다.

반면 현대차는 2009년에서 첫 하이브리드 모델인 아반떼 하이브리드를 출시했다. 출시 시점만 놓고보면 무려 10년 이상의 뒤쳐져 있다. 하지만 후발주자인 현대차는 빠른 기술개발을 통해 토요타의 원천 기술을 빠른 속도로 따라잡았다.

현대차 관계자는 "하이브리드차는 모터와 배터리, 내연기관, 변속기 등의 부품이 모두 들어가 각 부품의 부피를 어떻게 줄이느냐가 중요하다"면서 "현대차는 엔진 모드에서 모터 모드로 순간적으로 변환시켜주는 엔진클러치 기술을 통해 토요타의 하이브리드보다 모터 크기를 30%정도 줄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일본에게 3년이상 뒤쳐졌던 하이브리드 기술이 국내 자동차 업체와 배터리 업체의 협업을 통해 일본 업체와 기술 격차를 거의 따라잡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아직까지 갈길은 멀다. 세계 최대의 시장으로 꼽히는 미국 하이브리 시장에서 토요타는 점유율 63%를 기록한 반면, 현대기아차는 7.9%로 한참 뒤지고 있다. 국내에서 팔리고 있는 양사의 대표적 중형 세단인 쏘나타와 캠리 하이브리드 모델 판매 비중에서도 크게 차이가 난다. 쏘나타의 경우 올해 10월까지 하이브리드 모델의 판매량은 전체의 4.6%에 그쳤다. 반면 토요타 캠리의 경우 하이브리드 판매 비중이 28%에 달했다.

최근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은 2020년까지 친환경 차량을 22개로 늘리고, 평균 연비를 25% 향상시켰다는 이른바 '2020비전'을 내놨다. 첫 번째 승부처는 하이브리드 시장이다. 현재 현대기아차는 4개의 하이브리드 모델을 운영 중이다. 2020년까지 8개 모델을 더 늘려 총 12대의 하이브리 라인업을 갖출 계획이다.

현대차는 내년 상반기에는 쏘나타를 기반으로 첫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을 내놓는다. 이를 준중형 모델까지 확대, 6년 안에 6개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을 출시할 방침이다.

김범근 기자 nova@

부산은 지금 게임천국



올해 10주년을 맞은 국제 게임전시회 '지스타 2014'에서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게임을 체험하고 있다.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지스타 2014'에는 35개국에서 온 617개사가 2567개 부스를 마련하고, 관람객을 맞고 있다. 연합뉴스

2014 지스타

'모바일게임' 전성시대

올 게임대상 '블레이드'… 19년 만에 첫 모바일게임 수상
엔씨, 모바일게임 첫 공개… 넥슨은 역대 최다 15종 출품

'게임대상' 19년 역사이래 최초로 국내 모바일 게임인 '블레이드'가 왕좌를 거머쥔 가운데, 2015년에는 이를 탈환하려는 대작 PC게임들이 모바일로 넘어간 '최고'의 자리를 찾기 위해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23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고 있는 '2014 지스타'에서는 엔씨소프트와 넥슨 등 지난해 참가하지 않았던 기업들이 대거 참가해 PC와 모바일 게임 등을 일반에 공개했다.

먼저 엔씨소프트는 리니지의 3번째 시리즈 '리니지 이터널'의 PC·모바일 버전과 '프로젝트 혼(HON)' 등 7개 신규 게임을 지스타에서 공개했다. 특히 엔씨소프트가 모바일 게임을 지스타에서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엔씨 김택진 대표는 지난 18일 지스타 사전 기자 간담회에서 "지스타를 기점으로 회사의 모든 전략은 모바일과 PC가 함께 간다"며 "PC로 출시한 게임은 모두 모바일로도 출시된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말해 그간 PC만 고집했던 회사 전략에 큰 변화가 있음을 밝혔다.

넥슨도 이번 지스타에 역대 최다인 15종의 게임을 출품했다. PC게임인 '메이플 스토리2'와 '서든 어택2' 등 기존에 성공한 게임의 후속작을 출시하며, PC시장 장악력을 계속 끌고 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또 스마일게이트 역시 개발비 500억원을 투입, 3년간 제작한 '로스트 아크'를 일반에 처음 공개하며 시장을 노리고 있다.

한편 올해로 10회째를 맞은 지스타는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돼 지난해보다 100여개 많은 35개국 617개사가 2567개의 부스를 열었다. 또 개인 이용자를 맞는 BTC관은 109개사 1397개 부스를, 기업을 대상으로 한 BTB관은 508개사 1170개 부스를 차렸다.

김태헌 기자 119@

오비맥주 '외국인 사령탑'

프레이레 신임사장… 장인수 사장은 부회장에
AB인베브, 인수 7개월여 만에 본격 '친정체제'

오비맥주가 새 사령탑으로 외국인 사장을 전진 배치하며 본격적인 새판짜기에 돌입했다. 지난 4월 AB인베브가 오비맥주를 인수한 지 7개월만에 조직 수장을 교체함에 따라,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장인수 부회장



프레데리코 프레이레 사장

오비맥주는 20일 프레데리코 프레이레 AB인베브 아시아태평양지역본부 통합부문 부사장을 신임 대표이사 사장으로 임명했다. 반면, 그간 대표를 맡았던 장인수 대표는 부회장으로 승진됐지만, 사실상 경영 전선에서 이선으로 후퇴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프레이레 신임 사장은 1996년 AB인베브에 입사, 18년간 영업·생산·구매·물류 등 요직을 두루 거친 글로벌 맥주 전문가다. 오비맥주는 이번 인사에 대해 "갈수록 격화되는 국내 맥주 시장의 경쟁환경 변화에 맞서 '맥주시장 1위' 자리를 한층 더 확고히 다지기 위한 공격적인 경영체제 개편"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외국인 사장의 일선 배치가 이미 예고된 인사였다는 데 주목한다. 오비맥주를 아시아 시장 공략의 전초 기지로 활용하기 위해 본사의 '코드'에 맞는 대표 선임이 필수적이었다는 것. 게다가 지난 여름 국내 맥주 1위 브랜드 '카스'가 산화취 논란에 휘말리면서 시장 점유율이 떨어진 것도 AB인베브가 직접 경영이라는 카드를 꺼낼 수 있는 이유가 됐다.

한국 시장을 빠르게 잠식해 나가고 있는 수입맥주와의 한판 승부도 주요 배경이다. AB인베브는 자사가 보유한 고품질 맥주를 들여와 국내 수입맥주 시장에서 글로벌 노하우와 역량을 과시할 전략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류 업계 관계자는 "AB인베브가 인수 후 7개월 동안 한국 시장에 대해 충분히 학습을 마친 만큼 이번 사장 교체를 시작으로 인사이동이나 시스템 교체 등 대대적인 조직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윤철규 기자 yoonck@

다음카카오, 전직원 최신형 휴대폰 교체

다음카카오가 3200명에 달하는 전 직원에게 원하는 휴대폰을 지급한다.

회사 관계자는 21일 "통신비 지원차원에서 회사가 모든 직원에게 휴대폰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내부에서는 다음과 카카오의 합병을 기념하는 기념품이라는 말이 우세하다.

휴대폰 기종이나 가격은 개인 취향에 맞게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게 했다. 통신사 지원금과 단체구입에 따른 할인을 가정할 경우 단말기 기기값을 한대당 50만원으로 추정할 때, 도합 17억5000만원에 이를 전망이다.

박성제 기자 psj@

30만원대 프리미엄폰 팬택 '재기 발판' 될까

베가팝업노트 35만2000원
출고가보다 50% 이상 낮아
오늘 오후 본입찰 접수 마감



팬택 '베가팝업노트' 사진제공 팬택

본입찰 마감을 앞둔 팬택이 파격적 가격을 앞세운 신제품 출시로 재기를 노린다.

매각주관사 삼정회계법인은 21일 팬택 본입찰 접수를 마감한다. 이날 오후 3시까지 진행되는 본입찰에는 현재 중국 업체를 포함한 국내외 업체 2~3곳이 인수를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26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내년 3월경 매각 절차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유찰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팬택의 청산가치가 약 1900억원에 달해 이보다 많은 최저 입찰가격을 제시할 업체가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특히 적극적 관심을 보이는 중국 등 해외 업체들은 공장 등 생산설비가 아닌 팬택의 특허 등 자산과 브랜드에 관심을 두고 있어 유찰을 통해 매각 가격을 낮출 가능성도 있다. 이럴 경우 매각 일정이 지연, 팬택 청산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본입찰이 사실상 마지막 회생 기회인 팬택은 지난 8월 19일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개시 이후 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법정관리 일주일 만에 비용절감을 위한 순환 유급휴직을 시행했고, 9월과 10월에는 각각 스마트폰 '베가넘버6'와 '베가R3' 업그레이드를 실시하며 사후서비스도 충실히 진행 중이다.

지난 7월부터 사실상 이통사 공급이 중단된 단말기 공급도 SK텔레콤을 통해 '베가팝업노트'를 출시하며 영업활동을 재개했다. 지난 5월 출시된 '베가아이언2'는 현재 KT와 LG유플러스에서 출고가(78만3200원)보다 50% 이상 싼 35만2000원에 판매 중이다.

지난 7월 SKT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 3사가 팬택의 단말기 구매 요청을 거부하며 팬택은 영업활동은 물론 신제품 출시가 제한, 사실상 업무가 중단된 상태였다.

하지만 이번 베가팝업노트 출시로 자금 운용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으로 국내 스마트폰 가격이 상향평준화된 상황에서 삼성전자와 LG전자 등의 스마트폰에 뒤지지 않는 사양에 반값 가격을 갖춘 팬택 스마트폰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기존 베가아이언2 가격 인하로 이통사의 신제품 구매 여력이 커진 점도 팬택의 영업활동에 긍정적이라는 분석이다.

김지영 기자 gutjy@

KT렌탈 매각가 1조 넘을듯

SK네트웍스·오릭스 등 20여곳 출사표… 예상 밖 흥행

KT렌탈 인수전에 SK네트웍스, 오릭스, 효성 등 20곳이 출사표를 낸 가운데, 예상 밖의 흥행에 매각액이 1조원을 넘어설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1일 재계와 인수합병 업계에 따르면 20일 인수의향서 접수 마감 결과 16~20개 업체가 예비입찰제안서(LOI)를 접수했다.

KT 관계자는 "인수 희망업체가 많아 6000억원대는 무난할 것으로 보이는데, 내부적으로는 1조원까지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입찰에는 렌터카 3위 기업인 SK네트웍스, 타이어와 자동차 배터리 사업을 하는 한국타이어, 수입차 사업을 하는 효성 뿐만아니라 일본 최대 렌터카 업체 오릭스, 유통업체 GS리테일 등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기업 가운데 SK네트웍스와 일본기업인 오릭스가 치열한 경합을 벌일 전망이다.

SK네트웍스는 렌터카 사업과 SK주유소, 자동차 정비(스피드메이트), 긴급출동 서비스망을 탄탄히 갖추고 있다. 때문에 KT렌탈 인수에 성공할 경우 가장 큰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기업으로 평가된다.

오릭스그룹은 일본에서 자동차 리스와 렌터카업계 시장에서 업계 1위를 달리는 '오릭스오토'를 계열사로 두고 있다. 오릭스는 KT렌탈 인수를 통해 즉각적으로 한국시장에 진출할 수 있고, 시장점유율에서도 단숨에 1위에 올라서게 된다.

이외 한국타이어는 사업 다각화 차원에서, GS리테일은 렌터카 사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삼기 위해 인수 경쟁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KT렌탈의 이 같은 흥행은 렌터카 업체 가운데 시장점유율 26%를 차지하는 1위 업체이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 연평균 13%의 성장세와 10%대의 영업이익을 유지하는 알짜기업이라는 점도 주효했다.

이에 따라 매각액은 2009년 KT가 대한통운에서 인수했던 3000억원대보다 2배 이상 높은 6000억원대를 훌쩍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박성제 기자 psj@

한화B&B '일자리 제공형' 사회적기업 인증

직원 40% 취약계층 고용

한화그룹의 식음료 계열사 한화B&B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사회적기업 인증을 획득했다.

지난해 12월 한화갤러리아의 카페사업부문이던 '빈스앤베리즈'를 한화B&B라는 별도의 회사로 분할하고 사회적기업 인증 준비를 시작한 지 1년만이다.

한화그룹은 한화B&B가 대기업 계열로서는 처음으로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일자리 제공형'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한화B&B는 전국 36곳에서 델리카페 '빈스앤베리즈'를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서 일하는 직원 200여명은 모두 정규직이다. 주말이나 피크타임때 충원하는 파트타임 직원은 20명이 채 되지 않는다. 한화그룹은 지난해 3월 비정규직 직원 2043명을 정규직으로 일괄 전환한 바 있다. 또 매장직원의 40%(80여명)는 한부모가정, 저소득층 등 다양한 취약계층으로 고용하고 있다.

한화B&B는 매장의 주 원재료 매입 시 15% 이상을 사회적기업 제품으로 우선 구매하고 있으며, 경영컨설팅을 통해 연간 30개 이상의 골목카페에 운영 노하우와 음료 레시피를 전수하고 있다. 한화B&B는 골목상권과의 동반성장을 위해 올해 1월과 6월 2회에 걸쳐 '골목카페 지원사업'을 진행했다.

조남호 기자 spdran@

확산되는 드론·로봇 '無人시대'가 열린다

무인(無人) 산업의 현장 적용이 날로 늘어나고 있다. 세계 최대 유통업체 아마존은 이미 무인 비행기(드론) 배송 서비스 계획을 밝혔고 물류 창고도 로봇이 많은 부분 책임지고 있다. 페이스북도 드론팀을 꾸리고 있고 구글 역시 드론과 로봇 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한 수면 아래 움직임이 바쁘다.

아마존 로봇, 물품 운반
무인기는 30분내로 배송
페이스북·구글 드론활용
전세계 인터넷 연결 박차
"사람 일자리 뺏길라" 우려



아마존이 물류 창고에서 쓰고 있는 로봇 WSJ

◇ 로봇, 아마존 물류창고를 책임진다= 지난 여름 캘리포니아주 트레이시에 있는 아마존 물류창고에선 로봇이 4개 층을 담당하기 시작했다. 오렌지색으로 1m가 약간 넘는 둥그런 모양의 이 로봇은 지난 2012년 아마존이 인수한 키바 시스템즈에서 개발한 것이다.

월스리트저널(WSJ)은 연말 시즌 아마존의 이 로봇들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개시할 것이라고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아마존 직원들은 일부 로봇은 하루에 최소 300개 물품을 운반하고 있다고 전했는데, 사람이 일할 때나 과거 기계 시스템에 의해 100개 정도의 물품이 운반되는 것에 비해 훨씬 효율적이다.

로봇 활약으로 아마존의 '당일 배송'의 꿈이 빠르게 현실화될 듯하다. 아마존은 무인기를 통해 30분 안에 배송이 가능한 '프라임 에어(Prime Air)'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기도 하다.

비용 절감도 가능하다. 제이니 캐피탈 마켓츠의 애널리스트 숀 밀린은 "로봇 활용을 통해 고객 주문을 처리하는 전 과정을 수행하는 비용(fulfillment cost)이 연간 4억~9억달러 절감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 페이스북·구글도 사업 '속도'= 페이스북도 드론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CNN머니는 페이스북이 최근 항공기술 전문가 등 드론 사업 관련 인물을 뽑았으며 이들은 전 세계 인터넷 연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커넥티비티 랩에서 일하게 된다.

구글 역시 배송을 위해 로봇을, 그리고 드론을 통해서는 인터넷 연결을 확장하려는 계획이다. 구글은 미국의 대표적인 로봇 개발업체 보스턴 다이내믹스 등 다수의 로봇 업체를 인수했다.

◇ '사람 일자리 뺏을라' 우려 =로봇이 점점 인간에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은 호감을 느낀다. 하지만 너무 근접했다고 생각되면 불편해 하게 되는데 이를 '불쾌한 골짜기(uncanny valley)'라고 말한다. 일자리를 둘러싸고 사람과 로봇 간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도 높기 때문이다. '고용의 미래(The Future of Employment)' 저자 중 한 사람인 칼 벤네딕트 프레이는 저숙련 일자리 70%는 향후 10~20년 내 70%가 로봇으로 대체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윤경 기자 s914@

"美유통업계, 올해 '블랙프라이데이' 특수 없다"

쇼핑계획 확실 29%로 하락… 평상시보다 할인폭 작은 탓

미국의 올해 블랙프라이데이 쇼핑객이 전년에 비해 감소할 전망이라고 투자전문매체 마켓워치가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소매협회(NRF)가 의뢰하고, 프로스퍼인사이트앤드애널리틱스(PI&A)가 6600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서베이에서 응답자의 61%는 추수감사절 연휴에 구매 계획이 있다고 대답했다.

이 중 추수감사절 당일에 매장 또는 온라인을 통해 쇼핑을 할 것이라는 응답률은 18.3%에 그쳤다. 이는 전년 동기의 23.5%에서 하락한 것이다.

마켓워치는 이 같은 결과를 고려하면, 추수감사절 당일에 쇼핑에 나서는 소비자는 전체의 11%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추수감사절인 오는 27일부터 시작되는 4일간의 연휴 중에서 블랙프라이데이인 28일에 쇼핑에 나서겠다는 응답률 역시 전년의 69.1%에서 68.2%로 낮아졌다.

조사에 따르면, 올해 추수감사절 연휴에 쇼핑에 나설 생각이 있는 소비자는 1억4010만명이다. 이는 전년의 1억4030만명에서 감소한 것이다.

쇼핑 계획이 확실하다는 응답률 역시 지난해의 30.6%에서 29.5%로 하락했다.

젊은층의 쇼핑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18~24세 응답자의 80%는 추수감사절 연휴에 쇼핑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세대별로 가장 높은 것이다.

전문가들은 올해 이른바 '머스트-해브(must-have)' 아이템이 적은 데다, 일부 유통업체들이 블랙프라이데이 세일을 앞당겨 진행하고 있는 것도 추수감사절 쇼핑이 부진할 수 있는 배경으로 보고 있다.

매튜 샤이 NFR 대표는 "올해 홀리데이 시즌에 큰 변화를 볼 것"이라며 "소비자들은 큰 폭의 할인을 원하고 있으며, 관망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블랙프라이데이 할인폭이 크지 않다는 불만도 퍼지고 있다. 너드월렛이 27개 유통업체의 블랙프라이데이 광고를 분석한 결과, 25개 업체의 광고 중 1개 이상의 품목 가격이 지난해와 같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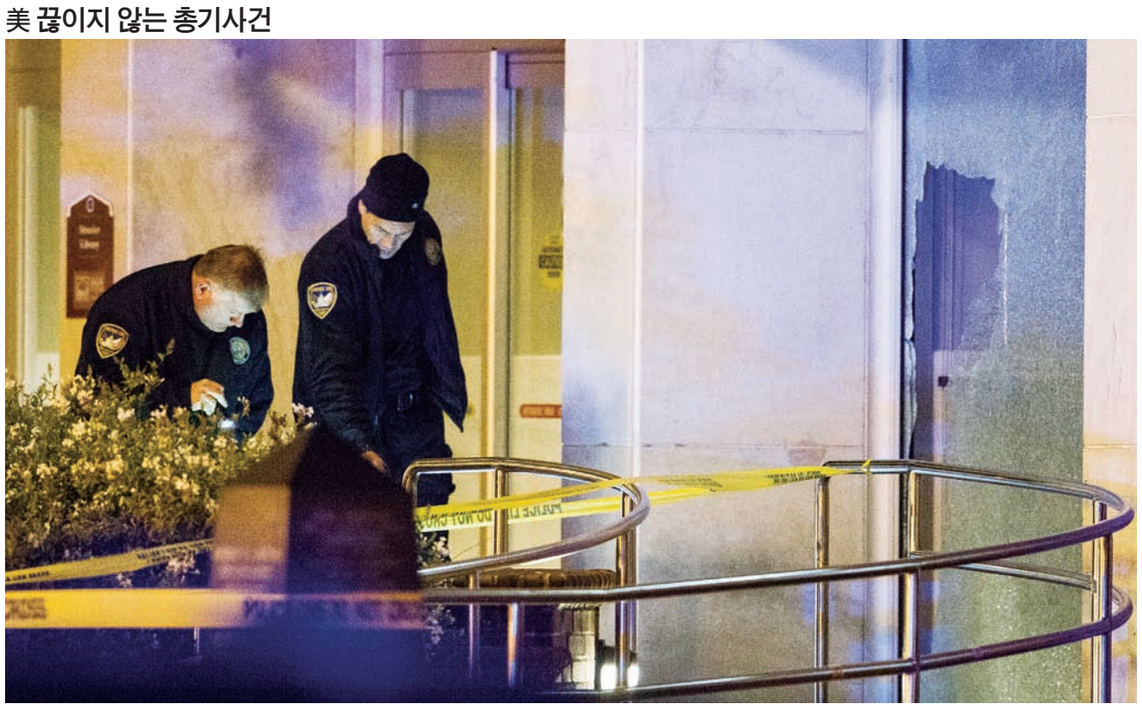
상당수 유통업체들이 블랙프라이데이 할인 가격이라고 선전하는 품목 역시 평상시 같은 가격에 팔리고 있다고 마켓워치는 설명했다.

앞서 NRF는 올해 블랙프라이데이부터 크리스마스까지 연말 홀리데이시즌에 유통업계 매출이 전년 대비 4.1% 늘어난 6169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뉴욕=민태성 특파원 tsmin@



美 끊이지 않는 총기사건



20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탤러해시 플로리다주립대 도서관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현장을 경찰이 조사하고 있다. 이날 새벽 범인은 도서관 밖에서 유리창을 통해 건물 안쪽으로 총기를 난사했고 대학 경비대와 대치 과정에서 사살됐다. 이날 사건으로 최소 3명이 다쳤고 이 가운데 2명은 부상 정도가 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탤러해/AP연합뉴스

알리바바 회사채 투자자 '북적북적'

9조원규모 발행…응찰률 7배 달해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의 사상 첫 회사채 발행에 대한 투자자들의 인기가 폭발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블룸버그통신 등은 20일(현지시간) 알리바바가 80억 달러(약 8조9000억원) 상당의 회사채를 발행했는데 주문이 무려 570억 달러나 들어왔다고 보도했다. 응찰률이 7.125배에 달한다.

일부 투자자들은 회사채 발행 규모가 늘어나길 바랐지만, 알리바바는 최초에 설정했던 규모를 유지했다.

알리바바의 이날 회사채 발행으로 올들어 지금까지 글로벌 회사채 발행 규모가 3조8000억 달러에 달해 사상 첫 4조 달러 돌파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알리바바는 지난 9월 뉴욕증시에 250억 달러 규모의 기업공개(IPO)를 실시했다. 당시 공모가인 68달러에서 거래를 시작했으나, 상장 당일에만 주가가 100달러 가까이 육박하면서 성공적인 데뷔전을 치렀다.

이에 뉴욕증시는 글로벌 IPO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다. 금융정보업체 딜로직은 9월 말 기준으로 뉴욕증권거래소와 나스닥에서 올 들어 지금까지 실시된 IPO 규모가 770억 달러로 런던과 홍콩증시를 합한 것보다 두 배 많다고 밝혔다.

서지희 기자 jhsseo@

글로벌 리포트

아마존, 파이어 전용 WP앱 출시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조스가 미국 유력 일간 워싱턴포스트(WP)와 자사 태블릿 '파이어'전용 응용프로그램(앱)을 출시했다고 20일(현지시간) CNN머니가 보도했다.

WP의 아마존 파이어판은 하루 2회(오전, 오후 5시) 업데이트되며 기기를 산지 첫 6개월간은 무료로 그 후 6개월간은 월 1달러에 각각 구독할 수 있다.

이에 대해 CNN머니는 베조스가 지난해 10월 2억5000만 달러(약 2800억원)에 WP를 인수한 지 1년여 만에 처음 나온 양사 간 본격적 제휴 상품이라고 소개했다. 베조스는 이번 제휴를 통해 WP의 온라인 구독자는 물론 아마존 파이어 구매 고객을 동시에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첫 6개월 무료 구독이 끝나면 월정액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월정액 요금은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으나 3~5달러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다카타, 에어백 결함 2년간 숨겨

에어백 결함에 따른 대규모 리콜 파문을 불러 일으킨 일본 다카타가 해당 문제를 2년간 완성차업체와 안전당국에 통보하지 않았다고 밝혀 논란이 일 전망이다.

미국 상원에서 20일(현지시간) 열린 청문회에서 다카타는 에어백 결함을 2005년 5월 처음으로 인지했다고 밝혔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시미즈 히로시 다카타 글로벌 품질 담당 선임 부사장은 청문회에서 "2005년 5월 이전에 에어백 문제 관련한 의사소통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다"며 "우리는 2007년에 이 문제를 자동차업체, 미국 안전당국과 공유했다"고 증언했다.

청문회의 초점은 당국과 업체들이 운전자의 부상이나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결함에 왜 이렇게 대처가 늦었는지, 또 향후 수리를 가속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등에 맞춰졌다. 에어백 결함으로 지금까지 미국에서 1000만대 가까운 차량이 리콜됐다. 에어백이 교통사고 시 터질 때 너무 강력해 금속 파편이 튕겨나가 승객의 안전에 위협적인 것이 리콜 이유다. 이 결함으로 미국에서 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 들어서는 사고가 아니라 고온다습한 지역에서도 에어백이 터질 수 있는 문제도 발견됐다.

美대형銀, 금속값 조작 '부당이득'

미국 대형은행들이 각종 편법을 통해 구리와 알루미늄 등 금속 가격을 좌지우지하면서 부당 이익을 챙기고 있다고 2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WSJ는 미국 상원 상설 조사위원회 보고서를 인용해 대형은행들이 당국의 상품 보유 한도 규정을 교묘하게 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방준비제도(연준, Fed)는 우량 자산의 5%에 해당하는 상품의 보유만 허용하고 있지만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이런 한도를 넘기고 있다는 것.

JP모건체이스는 귀금속이 상품 한도 산정에서 빠진다는 점에 착안해 대표적인 산업용 금속인 구리를 귀금속으로 분류했다. 또 알루미늄을 자회사가 보유한 것으로 해서 한도를 초과했다.

은행들이 한도를 넘는 상품을 보유하게 되면 가격 결정력이 생겨 시장을 왜곡할 수 있다. 또 상품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서 전체 금융시스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美이민개혁, 불법체류자 500만명 혜택

합법체류 자녀 있고 최소 5년 거주… 한국인 18만명 관심

미국 내 한국인 불법 체류자가 약 18만명으로 조사됐다. 이는 출신국별로 8위에 해당하는 것이다.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가 20일(현지시간) 공개한 '주별 불법체류자 변동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현재 한국 출신 불법 체류자는 2007년부터 18만명 수준을 유지했다.

한국 출신 불법 체류자는 1995년에는 약 16만명이었고, 2000년 11만여 명으로 줄었다가 2005년에는 약 15만명으로 다시 늘었다.

멕시코인 불법체류자가 약 585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엘살바도르(67만5000) 과테말라(52만5000) 인도(45만) 온두라스(35만) 중국(30만) 필리핀(20만)이 뒤를 이었다.

한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날 오후 특별연설을 통해 수백만 불법 이민자에 대한 추방을 유예하는 이민개혁안을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혁안으로 400만~500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통해 시민권이나 합법적 체류 권한을 가진 자녀를 둔 부모를 구제할 계획이다. 미국에서 최소 5년간 불법으로 거주하면서 전과가 없는 사람이 구제 대상이다.

미국 정부는 구제된 불법 체류자들에게 일정 기간 합법적으로 머물 수 있는 비자를 제공하고, 임시 취업허가증을 줄 예정이다.

뉴욕=민태성 특파원 tsmin@

유가 하락 '웃는자와 우는자'

美 셰일혁명에 공급걱정 '뚝'…中은 원유수입 호재
이란·베네수엘라·러 등 기존 산유국은 수익성 악화

유가 하락이 세계의 지정학적 지형을 바꾸고 있다. 그 가운데 승자는 주요 2개국(G2, 미국·중국)이며 패자는 러시아와 베네수엘라 등 산유국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고 2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미국은 셰일혁명으로 산유량이 늘면서 다른 서구 국가들과 함께 핵개발을 추진했던 이란에 압박을 가했다. 과거와 달리 중동에서의 원유 수입이 줄어들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됐기 때문.

에드 모스 씨티그룹 상품 리서치 글로벌 대표는 "미국 셰일혁명이 낮은 유가라는 새 시대를 창출했다"며 "지금이 일부 지정학적 지형이 바뀌는 순간이라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1980년대 후반 유가 하락으로 구소련이 붕괴했다. 또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 1990년 쿠웨이트를 침략하기로 한 결정에도 영향을 미쳤다. 러시아는 다시 유가 하락의 낙진을 맞은 것 같으며 이란과 베네수엘라 등 다른 산유국들도 타격을 입었다고 통신은 전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미국과 유럽연합(EU)의 강력한 제재에 시달리는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유가 하락은 대재앙과 같다"고 한탄하기도 했다.

미국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지난 5개월간 30% 이상 하락해 현재 배럴당 75달러선에서 움직이고 있다. 미국의 산유량은 이달 첫 주에 하루 906만 배럴로 1983년 1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대니얼 예르긴 IHS 부회장은 "지난 10년간 석유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은 중국 경제의 고속성장과 원유 수요였다"며 "이제는 미국의 놀라운 생산량이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 등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원국들은 자신의 시장점유율을 미국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유가 하락을 방관하고 있다.

중국도 유가 하락 수혜를 톡톡히 볼 전망이다. 중국 샤먼대의 린보창 에너지경제연구센터 소장은 "중국은 원유의 약 60%를 수입하기 때문에 또다른 승자"라며 "정부는 유가 하락에 따라 남는 자금을 국방과 환경보호 자금으로 돌리는 것보다 전략비축유 축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또 러시아와의 각종 경제협력 협상에서도 유리한 위치에 설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러시아와 지난 5월 4000억 달러 규모의 가스공급 계약을 맺었다. 이달에는 서부노선 가스공급에 합의하기도 했다.



미국 텍사스 주의 한 셰일시추전. 블룸버그

린 소장은 "유가가 계속 지금 이 상태를 유지하면 중국이 러시아에 우위를 점할 것"이라며 "러시아는 여전히 에너지 분야에서의 수입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배준호 기자 baejh94@



PPL은 미생처럼… ▌15면

세상 모두의 별이 되어라



1995년 결혼과 동시에 필리핀·페루·우간다·인도·볼리비아 등 26개국에서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차인표·신애라 부부. 사진제공 컴패션

Cover Story

스타들의 사랑나눔

"진짜 전쟁은 아무리 그럴싸한 명분을 붙여도 하면 안돼요.
그 피해자는 어린아이와 여자예요.
전쟁이 일어나는 데 아무런 빌미도 제공하지 않은,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이 좋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세상이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해요."
그녀는 굵은 눈물을 흘렸다.
"아가야 힘내."
굶어 죽어가는 11세 소녀 다비타를 꼭 안았다.
김혜자는 전장으로 변해버린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의 한 중앙에 있었다.

"손을 잡았는데 살이 있는 내 손이 부끄러웠습니다. 우리가 모두를 살릴 수는 없지만 적어도 한 명이 한 명 정도는 살릴 수 있지 않을까요. 먹는 게 소원이라는 이 아이의 소원 정도는 우리가 해줄 수 있지 않을까요." 정애리는 우간다를 찾아 먹는 게 소원이라는 소녀 미리암의 손을 잡으면서 할 말을 잃었다.

김혜자의 절절한 당부(8일 방송된 KBS '2014 희망로드 대장정')와 정애리의 간절한 호소(14일 방송된 SBS '2014 희망TV')가 TV화면을 타고 전달되자 수많은 사람들이 후원과 기부의 뜻을 밝혔다.

스타는 이렇듯 사랑 나눔의 기폭제 역할을 한다. 김혜자, 정애리 등 수많은 스타들은 대중의 강력한 영향력을 바탕으로 기부, 봉사 등 사랑 나눔을 확산시키는 아름다운 파장을 일으킨다. 조인성· 유재석 등 연예인과 스포츠 스타들은 올해 펼쳐진 아이스버킷챌린지에 동참해 우리 사회에 루게릭병 환자와 단체에 대한 폭발적인 관심과 기부를 촉발시켰다. JYJ의 김준수·박유천·김재중은 팬미팅이나 작품 제작발표회 때 꽃화환 대신 쌀화환을 받아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에게 기부해 쌀화환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승기는 팬클럽과 함께 힘든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에서부터 연탄까지 배달하며 힘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스타의 팬클럽이 사랑 나눔에 동참하는 분위기 조성에 큰 기여를 했다. 차인표는 아이티, 필리핀, 나이지리아 등 세계 각국의 굶주림에 고통받는 수많은 아이들을 정기적으로 후원해 일반인의 사랑 나눔이 한국을 벗어나 세계 각국으로 향하게 만드는 일등공신 역할을 했다.

소외되고 고통받는 이 있는 곳 어디든… 기부·봉사 손길
'사회약자 보호'·'장기기증'·'해외입양' 사회문제에도 관심
대중의 동참·인식변화 이끌어… '사랑나눔 기폭제' 역할

프로골퍼 최경주와 박지성은 재단을 만들어 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 스포츠 선수로 꿈을 키우는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레슨 등을 통해 재능기부를 지속적으로 펼치며 재능기부를 하나의 사랑 나눔의 주요한 흐름으로 자리잡게 만들었다.

연예인과 스포츠 스타들의 이같은 사랑 나눔은 그 자체로도 긍정적인 의미가 있지만 기부와 봉사 등 사랑 나눔 대열에 수많은 일반인을 합류시키는 효과가 매우 크다는 점에서 그 가치는 남다르다. 수많은 사람들이 연예인과 스포츠 스타의 사랑 나눔을 직·간접적으로 접하면서 노숙자 등 불우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 사회적 약자에 대해 따뜻한 손길을 내밀고 아프리카, 아시아 등 빈곤과 굶주림에 허덕이는 국가의 어린이들에게 훈훈한 후원을 하는 기회를 갖기도 한다.

또한 기부나 봉사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이나 가정에서의 사랑나눔 교육이 이뤄지지 않는 우리 사회에서 연예인과 스포츠 스타들의 사랑 나눔은 교육적인 역할도 하고 있다. 장애인 단체, 고아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시설 관계자나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연예인들과 스타들의 기부나 사랑 나눔은 많은 사람들을 사랑 실천에 동참하게 이끌며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친다"고 강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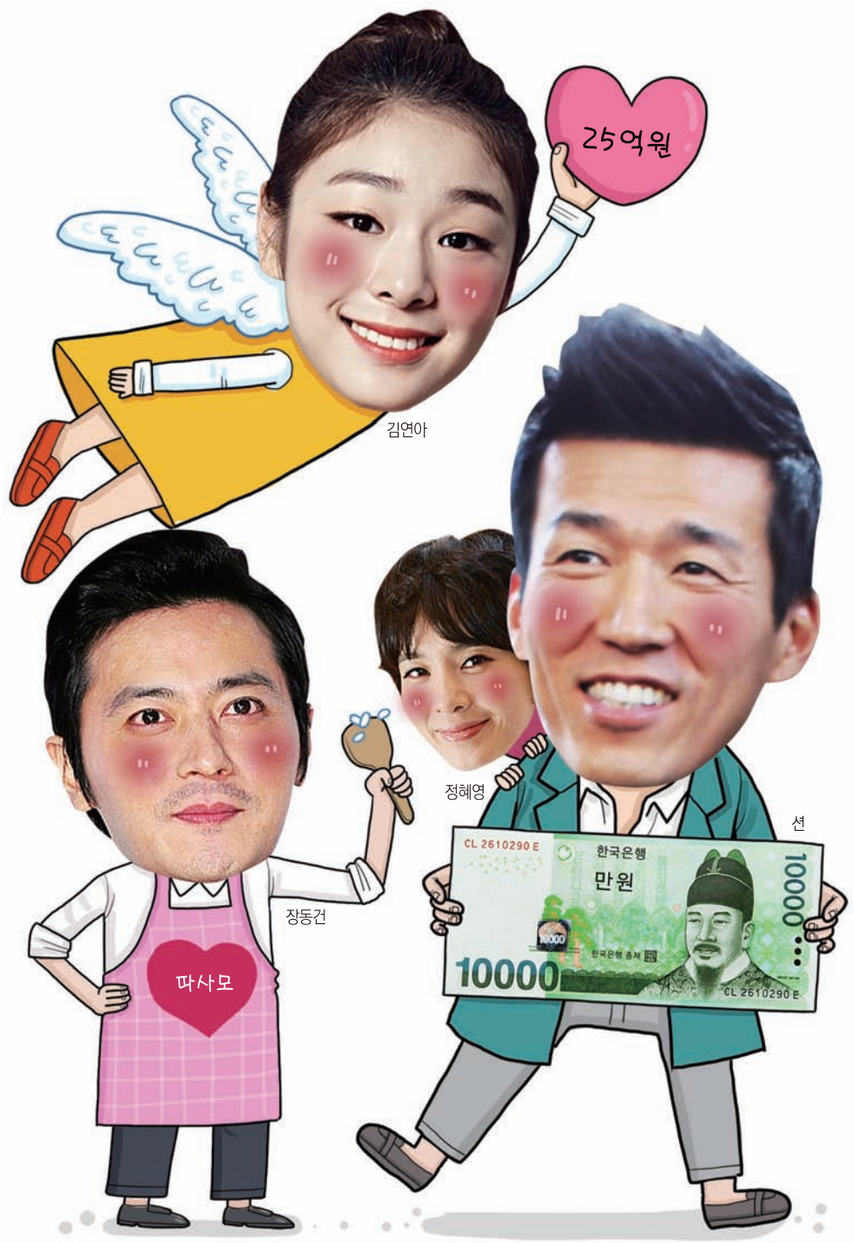
스타의 사랑 나눔은 한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중국에 학교를 건립하는 등 사랑 나눔에 적극적인 이영애가 지난 2월 사고를 당해 조산한 산모에게 1억원이 넘는 병원비를 기부한 사실이 대만 언론에 의해 보도돼 중화권에 이영애와 한국, 한류 스타에 대한 이미지가 크게 신장됐다.

스타의 사랑 나눔은 또한 기부나 봉사, 사랑 실천의 새로운 흐름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역할도 한다. 김희애·최경주를 비롯한 수많은 스타들이 재능 기부의 물꼬를 텄고 최수종·최강희는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켰다. 또한 신애라·차인표 부부는 입양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불식시키고 국내 입양의 기회를 확대시켰다. 쌀화환 등이 이제는 기부의 주요한 트렌드로 자리 잡은 것도 연예인과 스포츠 스타들의 힘이 컸다. 이효리 등 스타들로 인해 버려진 유기견에 대한 보호 운동이 거세게 일었다.

이 때문에 연예인과 스포츠 스타들의 또 다른 이름은 '사랑 나눔의 기폭제'인 것이다.

배국남 기자 knbae@

커버스토리 12·13면



대표 선행 스타들 누구?

아프지만 따뜻한 한해였다. 세월호 침몰과 경주리조트 붕괴, 경기 성남 판교의 환풍구 추락사고 등 사건·사고로 얼룩진 한해였다.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끔찍한 사건·사고는 또 다시 우리를 급습했다. 하지만 따뜻한 손길로 아픈 상처를 어루만져주는 사람도 있었다. 이들이 있었기에 우리 사회는 아직 살만 했다. 날개는 없지만 '(기부)천사'라 불리는 사람들, 늘 변함없이 따뜻한 사람들, 스타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았던 사람들을 조명해본다.

션·정혜영 10년간 한결같은 온정 손길
장동건·정준호 봉사모임 만들어 나눔 앞장
김연아 25억 넘게… 마음씨도 여신

◇연예인 스타

추운 겨울날 따뜻한 선행으로 마음을 훈훈하게 해주는 스타들이 있다. 다양한 방식의 기부와 나눔으로 이웃에게 따뜻한 손길을 건네면서 기부문화를 만드는데 기여한다.

션·정혜영 부부는 연예계 기부천사로 불리며 나눔에 앞장서는 대표적인 스타다. 최근에는 화보 모델료 3000만원을 전액 기부하는가 하면 지난 10년간 1000시간이 넘는 봉사활동과 아동 난치병 환자 지원기관 등에 수십억원을 직접 기부하는 등 활발한 나눔 활동으로 2014 파라다이스상 사회복지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또한 두 사람은 어린이 재활병원을 짓고자 3억원을 기부하는가 하면 '션과 함께 하는 만원의 기적'이라는 모금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두 사람은 결혼 10주년 기념일에 약 1년간 1만원씩 모은 365만원으로 '밥퍼(무료급식 봉사단체)'를 찾아 기부와 봉사를 해 관심이 집중됐다. 김장훈은 활발한 기부활동과 독도 지키기 운동 등으로 선행에 앞장서는 가운데 지금까지 기부액이 무려 100억원을 넘어 독보적인 기부천사의 이미지를 구축하며 선행을 실천하고 있다.

연예인 봉사단체를 통해 나눔을 실천하는 스타도 있다. 대표적인 봉사활동 모임인 '따뜻한 사람들의 모임(따사모)'에는 정준호, 김원희, 장동건, 조인성, 안재욱, 김선아, 차태현, 김정은, 박진희 등 다수의 유명 연예인들이 소속돼 자선바자회, 봉사활동, 장학회, 재능기부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스포츠 스타

레전드급기량 뒤엔 레전드급 선행이 뒤따랐다. '피겨 여왕' 김연아(24)와 '탱크' 최경주(44·SK텔레콤), '산소탱크' 박지성, '코리안특급' 박찬호(41)가 대표적인 주인공이다.

김연아는 2010년부터 유니세프 친선대사로 활동하며 25억원이 넘는 돈을 기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미국의 경제전문지 포브스는 지난 6월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지역의 대표적 자선가 48명을 선정하면서 김연아를 포함시켰다.

최경주는 기부에서도 뚝심이 느껴졌다. 2007년 자신의 이름을 딴 재단을 설립해 어려운 환경에서 꿈을 이뤄가는 아이들을 위해 장학금을 지원해왔다. 올해 초에는 후학을 위해 1억6000만원을 재단에 쾌척했고, 세월호 침몰사고 후에는 유가족을 위해 1억원을 기부했다. 이에 미국골프기자협회는 지난 4월 최경주에게 '찰리 바틀릿상'을 수여했다. 이 상은 기부와 자선활동으로 사회에 많은 공헌을 한 프로골퍼에게 주는 상으로 42년간 단 32명만 수상했다. 아시아에서는 처음이다.

박찬호 역시 자신의 이름을 딴 재단을 설립해 선행을 이어가고 있다. 박찬호는 재단을 통해 어린 꿈나무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후학 양성에 힘쓰고 있다. 지난해 국내 프로야구 복귀 때는 계약금 6억원과 한화 구단에 백지 위임한 연봉 2400만원을 전부 유소년 및 아마 야구를 위해 기부했다.

박지성은 전 세계 어린이들을 위해 자선행사를 이어가고 있다. 아시안 드림컵으로 동남아 곳곳의 단체와 시설을 지원하고, 유소년 축구 꿈나무들을 후원했다. 지난 7월에는 1억원 이상 고액기부자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에 가입하기도 했다.

오상민·김민정 기자 golf5@

굿네이버스 모자보건캠페인 이투데이는 굿네이버스를 응원합니다



인 터 뷰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사랑의 열매'

"옷깃에 열린 빨간 열매, 이젠 아시죠"

1998년 설립 연간 5000억원 모금
스타 인지도, 나눔확산에 큰 기여

어렵고 힘든 이웃들에게 희망을 주고 국민에 나눔의 행복을 전하는 국내 대표 기관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 열매'다. 사랑의 열매는 1998년 설립 이래 연간 5000억원에 달하는 모금액으로 사랑과 나눔에 앞장섰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는 스타들과 함께 가난과 소외, 장애 등으로 그늘에서 고통 받는 사람들이 삶의 희망을 느낄 수 있도록 힘썼다. '사랑의 열매' 대외협력본부 신예나 팀장을 만나 스타들의 나눔 사례와 효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다.

신 팀장은 "스타들과 함께함으로써 그들의 인지도로 인해 나눔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며 "1억원 이상 고액기부자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 확대와 자영업자의 정기기부인 착한가게 확대, 개인 기부의 확대 등 스타들이 나눔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방송 및 연예인 출신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으로는 방송인 현영과 김보성, 배우 수애, 가수 현숙 등 4명이다. 이봉주는 올림픽 입상 등으로 받는 연금 일부를 '사랑의 열매'에 정기 기부하고 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스타는 누구냐는 질문에 신 팀장은 황기순과 박상민을 꼽았다. 그는 "매년 국토대장정을 하는 황기순과 박상민씨가 생각난다"며 "매년 여름에 더울 때 자전거 국토대장정으로 모금활동을 해주고 있다"고 털어놨다. 이어 "연말이 다가오니 2012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아너 소사이어티 200호로 가입했던 수애씨도 생각난다. 어려운 유년시절을 보내고 기부하는 모습이 참으로 인상 깊었다"고 전했다.

그렇다면 오랜 기간 꾸준히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스타는 누구일까. 신 팀장은 배우 채시라를 떠올렸다. 그는 "채시라씨는 공동모금회 창립(1998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봉사활동과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목소리 기부와 사랑의 열매 광고 출연 재능기부 등 꾸준히 활동하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신 팀장은 "스타들의 나눔 문화와 홍보대사 활동이 연말 캠페인의 인지도와 일반시민들의 기부 참여를 높여 나눔 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본다"고 덧붙였다.

김민정 기자 mj_kim@



국경 넘어~ 바다 건너~
아프리카 오지부터 동남아 빈민촌까지
김혜자·고두심·정애리 등 해외봉사 활동

사랑 나눔의 영향력은 지역이나 국가에 국한되지 않는다. 연예인들은 국내뿐 아니라 조력이 필요한 해외에서도 따뜻한 관심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NGO 등 단체 또는 방송사의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통해 해외봉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다. 김혜자, 차인표, 신애라, 션, 정혜영, 정애리 등이 대표적이다.

지난 14일, 15일 방송된 '희망TV SBS'에서는 동콩고에 간 김혜자, 인도네시아로 떠난 고두심, 그리고 우간다를 만난 정애리의 모습이 드러났다. 이들은 메마른 환경에 놓인 현지의 아이들 등 세계 난민과 만나 시청자에 감동을 전했다. 더불어 정경화, 오윤아, 서영희, 윤소이, 서유정이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남수단, 방글라데시, 필리핀으로 떠난 모습도 담겼다. 2010년 시작한 '희망TV SBS'는 김현주, 고 박용하, 조성하, 남규리, 강민경, 류덕환 등 스타들이 출연해 국외에서 따뜻한 손길을 뻗쳤다.

뿐만 아니라 지난 11월 8일부터 오는 12월 6일까지 KBS 1TV '희망로드 대장정'에서는 계속되는 내전으로 피폐해진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고아원을 방문하는 김혜자의 모습을 그린다. 그간 해를 거듭해온 '희망로드 대장정'을 통해 전광렬, 박신양, 한고은, 유승호 등이 온정을 공유하는 모습이 전파를 탔다. 이처럼 스타들은 자신의 의도와 부합하는 기획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봉사 활동에 대한 실천의 메시지를 표출한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재능기부 스타들 누구?

스타들의 재능기부가 새로운 사랑 나눔의 형태로 사회 각계각층에 온정을 전하고 있다. 재능을 통한 선행은 단순한 물질 기부보다 사회적 영향력이 크다. 특히 대중의 사랑을 받는 스타들의 재능은 나눔의 효과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남상미·김성령 '다큐 내레이션' 목소리 기부
이효리·송일국 노숙인 자활 잡지 표지 모델
유준상 '사랑의 실' 도안 직접 디자인



일러스트 사유진 기자 yjsa2018@

스타들의 재능기부가 가장 보편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은 목소리 재능기부다. 배우 남상미는 14일 방송된 EBS '글로벌 프로젝트 나눔-몽골, 쓰레기 마을에 사는 엄마와 딸' 편의 내레이션을 맡아 목소리 재능기부를 실천했다. 남상미 소속사 JR엔터테인먼트 김영롱 실장은 "소외된 아이들을 위한 의미 있는 프로그램의 내레이션 제안을 받아 목소리 재능기부에 흔쾌히 참여하게 됐다. 이렇듯 목소리로 재능기부에 동참하게 되어 뜻 깊다"고 밝혔다. 다큐 프로그램으로 재능기부에 동참한 스타는 이성재, 박유천, 김성령, 염정아, 김남길 등이 있다.

스타들의 재능기부 형태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분야는 공익 목적의 잡지 모델이다. 노숙인 등 주거취약계층의 자립을 돕는 잡지 '빅이슈'가 대표적이다. 재능기부 형태로 동참하는 스타들은 초상권을 기부하며 선행에 나선다. 현재까지 이효리, 김제동, 구혜선, 송일국, 클라라, 인피니트, 아이유 등이 빅이슈의 표지모델로 등장했다. 최근 '빅이슈'로 재능기부에 나선 송일국은 "많은 분들이 좋은 일을 위해 아낌없이 재능기부하는 모습에 감동받았다. 앞으로도 이런 뜻 깊은 일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싶다"고 밝혔다.

또 최근 SBS 수목드라마 '피노키오'를 통해 흥행배우로 발돋움한 한류스타 이종석은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착한도서관 프로젝트 홍보대사로 발탁돼 시각장애인을 위한 오디오북 제작에 직접 참여했고, KBS 전 아나운서 이지애는 tvN 휴먼 다큐 '리틀빅히어로'의 특별 내레이터로 나서 재활용 옷가게를 운영하며 호스피스 봉사활동을 하는 이주희, 김경순씨를 응원했다.

'리틀빅히어로'는 고정적으로 내레이션에 참여해 온 유인나를 비롯해 특별 내레이터로 나선 배우 박해진, 류수영, 김보성, 신애라, 이하나, 장윤주 등의 도움을 통해 선행을 이어왔다.

이 외에도 이효리, 이상순 부부는 2011년 재능기부 프로젝트에 함께 참여하면서 가까워졌다. 배우 유준상은 대한결핵협회 창립 60주년을 맞아 한정판으로 제작된 '사랑의 실' 도안에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재능기부를 했고, 지난 3월에는 전주 공예전시관에서 열린 2014 '스타전시'(Star1004)'전에 작품을 내놓아 이웃돕기에 나섰다. 주니엘은 가수답게 서울특별시교육청이 후원하는 'New 졸업가' 프로젝트를 통해 노래로 재능기부에 참여했다.

스포츠 스타의 재능기부도 활발하다. 축구의 신태용 감독과 '양신' 양준혁 야구 해설위원, 소치올림픽 쇼트트랙 금메달리스트 김아랑 선수, '도마의 신' 양학선 선수, LA올림픽 레슬링 금메달리스트 김원기 선수 등이 현재 한국재능기부협회와 함께 재능기부를 실천하고 있다.

최두선 기자 sun@

인터뷰 영화배우 구혜선

"비록 작은 재능이지만… 아이들에 큰 희망 됐으면"

'시골학교 벽화' 등 재능기부 앞장
"대중에 받은 사랑, 다시 돌려줘야"



"내 작은 재능으로 나눔에 참여하게 되어 영광이다. 손길이 닿는 곳곳에서 아이들의 꿈이 자라고 희망이 피어났으면 좋겠다."

연기자와 영화감독으로 활동하고 있는 구혜선은 누구보다 따뜻하고 적극적인 재능기부의 선봉자다.

구혜선은 지난해 4월, 3년 전 폐교된 전남 영광의 한 초등학교를 찾아 그림 재능기부를 하는 뜻 깊은 시간을 보냈다. 구혜선은 '희망TV SBS'의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 '드림 위드(Dream With)'의 일환으로 폐교를 리모델링, 지역아동센터로 만드는 프로젝트에 동참했다. 이 외에도 SBS 스페셜 '오늘을 사는 아이들-아동 호스피스' 편 내레이터, 반려동물과 사람 사이의 교감을 다룬 다큐멘터리 '너는 내 운명' 등에 참여해 목소리 재능기부에도 참여했다.

최근 노숙인의 자활을 돕는 잡지 '빅이슈'의 재능기부에 동참한 구혜선은 "아직도 국내에 고통 받는 아동들과 이웃들이 많다. 조금의 관심만 보여 주면 효과는 배가 되어 그들을 도울 수 있다. 스타들의 재능기부는 어려운 이웃에게는 희망이다. 나의 재능으로 누군가의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참 행복할 일"이라고 밝혔다.

구혜선은 또 "대중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연예인으로서 그 고마움과 감사함을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있다"며 "돈이나 물질적 보답도 무시 못할 부분이지만 재능기부야말로 서로 소통하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따뜻한 기부문화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두선 기자 sun@

등골은 오싹, 마음은 훈훈

조인성·유재석·원빈·고현정·김태희 등 '아이스 버킷 챌린지' 동참



보기만 해도 등골이 오싹한 얼음물을 머리 위로 쏟아 붓는 '아이스 버킷 챌린지' 열풍이 올 여름 대한민국을 강타했다.

'아이스 버킷 챌린지'는 온몸이 굳어가는 루게릭병 환자들을 돕기 위해 미국루게릭병협회(ALS)에서 만든 기부행사다. 규칙은 양동이에 담긴 얼음물을 스스로 끼얹고 다음에 참여할 세 명을 지목한다. 지목당한 사람은 24시간 안에 얼음물을 뒤집어쓰는 인증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리거나 100달러를 ALS에 기부해야 한다.

우리나라 스타들도 미국에서부터 전 세계로 확산된 '아이스 버킷 챌린지'에 적극 동참했다. 특히 이 캠페인이 알려진 데는 가수 팀의 역할이 컸다. 팀은 8월 17일 "미국에 있는 지인이 도전장을 보냈고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늦은 밤 예술의전당 앞에서 (아이스 버킷 챌린지를) 했다"며 한국 연예인 최초로 '아이스 버킷 챌린지'를 선보였다.

이후 '아이스 버킷 챌린지'는 수많은 연예인과 유명 인사들에게 번져나갔다. 조인성, 유재석, 원빈, 최민식, 설경구, 박명수, 김구라, 고현정, 보아, 김우빈, 시크릿 전효성, 클라라, 박한별 등 많은 스타들이 참여했다. 또한 정우성, 김태희 등 기부를 한 스타도 많았다.

오예린 기자 yerin2837@

"혼란한 세상, 당신의 부처는 어디에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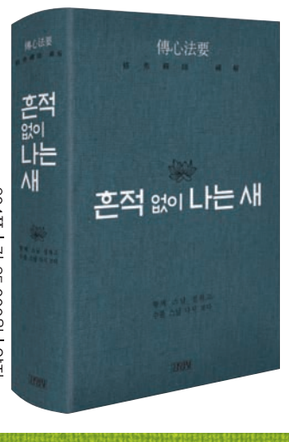
김영사

수불 스님 《전심법요傳心法要》 선해禪解

흔적 없이 나는 새

종교 베스트 셀러

황벽 스님 설하고 수불 스님 다시 보다



604쪽 | 값 25,000원 | 양장

허공을 나는 새 흔적이 없듯이, 붉은 화로에 떨어지는 흰 눈의 자취가 없듯이 흔적 없이 마음을 내고 마음을 쓰라!

당대唐代 지성인 배휴가 묻고, 스승 황벽 선사가 답한 진리의 문답. 임제종의 초석이 된 《전심법요》를 현대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풀어 쓴 수불 스님의 선 수행 길라잡이. 1200년 전 진리를 향한 뜨거운 구도의 순간이 단박에 되살아나다!

수불 스님 이십대 초반에 지명 스님을 은사로 부산 범어사로 출가. 부산, 서울, 창원의 안국선원에서 250회 이상 '간화선 집중수행'을 개설하여 출가 수행자만 아니라 재가 수행자까지 2만 명 이상에게 간화선을 체험케 하였다. 간화선이 정확하고 빠르며 쉽고 효과적인 수행법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며 '간화선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다. 현재 부산 범어사 주지, 안국선원 선원장, 동국대학교 국제선센터 선원장, 부산불교연합회 회장.



TEL:031)955-3200 www.gimmyoung.com 책은 서점에 있습니다.

배국남의 ★타성공학

㊽ 배우 **이민호**

6년 무명생활, 그의 오늘을 만든 밑거름



2003년 '반올림'으로 데뷔한 후

별 주목 못받다 '꽃보다…' 스타덤

'상속자들' 대표 한류스타 자리매김

화려한 성공에도 안주 않고 노력

자선활동 등 국내외 팬들과 소통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노력해 개선하겠습니다. 시청자와 관객에게 진정으로 인정받는 연기자가 되겠습니다." 아플 법도 한데 그는 차분하게 질문에 답을 했다. 이민호(28)다. 2009년 드라마 '꽃보다 남자'로 스타덤에 오른 뒤 만난 이민호에게 연기력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질문을 던졌다. 이민호의 스타로서의 성공 원동력은 이 답변에서 찾아야 한다. 그는 자신의 답을 실천으로 옮겼다. 그리고 2010년 '개인의 취향' 2011년 '시티헌터' 2012년 '신의' 2013년 '상속자들' 등 출연하는 작품에서 연기력의 스펙트럼과 세기를 더욱 진화시켰다. 또한 캐릭터의 분석력과 소화력도 발전시키고 맡은 배역의 진정성을 배가시켜 시청자의 찬사를 이끌어냈다.



연예계에는 한 작품이나 한 곡의 노래의 폭발적 인기로 한순간 스타가 된 연예인 중 얼마 안 돼 바닥으로 추락해 대중의 관심권 밖으로 밀려나는 일회용 스타(One Hit Wonder)가 적지 않다. 스타가 된 뒤 자신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의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스타가 된 뒤 자신의 사생활 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몰락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민호는 자신이 말한 것처럼 연기의 세기를 더욱 정교하게 진화시켰고 캐릭터의 진정성을 높여 갔다. "전작에서는 연기를 설정하고 상황을 부여해 한두 달 동안 인물을 어떻게 표현할까 생각하는 편이었다. '꽃보다 남자' 때도 안하무인 설정을 넣었다. 하지만 '상속자들'에서는 고민하지 않고 극본 안에서 느껴지는 감정에 충실하고자 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연기했다." 이민호는 이처럼 스타가 된 뒤에도 연기자로서의 부족한 부분을 찾아내 노력으로 해결하는 자세를 견지했기에 자칫하면 일회용 스타로 끝날 수 있는 상황을 극복하고 강력한 스타덤을 구축하며 연기자로서 화려한 성공시대를 이어가고 있다.

이민호의 이 같은 자세는 그의 짧지 않은 무명생활과 관련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민호가 '꽃보다 남자'를 통해 데뷔하자마자 톱스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 고교시절 연기에 관심을 갖고 잡지 모델로 나섰고 기획사 관계자를 만나 연기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2003년 '성장드라마-반올림'의 단역을 시작으로 단역 웨이터 등 주로 비중이 작은 캐릭터를 맡아 연기했다. 시청자는 드라마에서 그의 존재조차 알지 못했다. 대중의 눈길을 끌지 못해 한때 이름까지 바꿨다. 한동안 '이민'이라는 예명으로 활동했다. 앞이 보이지 않는 무명 생활은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안겨주기도 한다. 이민호 역시 6년여의 무명생활을 거쳐 '꽃보다 남자'를 통해 스타덤에 오른 것이다. 무명의 고통을 알고 있기에 스타가 된 뒤에도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끊임없이 개선해 나간 것이다.

이민호의 오늘의 성공을 있게 한 또 다른 원동력은 대중문화와 스타의 존재 기반인 대중과 팬의 트렌드와 욕구에 부합하는 콘텐츠를 제공하고, 스타로서의 바람직한 자세를 견지한 것이다. 스타가 된 뒤 인기와 명성에 안주하며 작품 활동을 하지 않고 광고 모델로만 나서며 명성만을 상품화하는 스타가 많다. 하지만 이민호는 연기자로서 가장 중요한 작품을 통한 대중과 소통을 꾸준히 해 왔다. '꽃보다 남자' 이후 매년 한두 편의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 연기자로서 이민호의 존재감을 드러냈다. 그는 '상속자들'이 폭발적 인기를 얻었음에도 그 인기에 안주하지 않고 얼마 안 돼 유하감독의 영화 '강남 1970'(2015년 1월 개봉예정)에 출연해 강도 높은 액션 연기를 소화해 연기자로서의 역량을 확장시킨 것은 단적인 예다.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 등 외국에서도 '상속자들'이 큰 반향을 일으켰다. 지금의 내가 느낀 것은 '이제는 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구나'라는 점이다. 날 사랑해주는 팬이 많은 만큼 여러 분야에서 활동해 내 모습을 최대한 발전시키고 싶다. 작품에 있어서도 이전에는 1년에 한 작품을 했다면 이제 준비기간을 줄여 1년에 3~4작품을 해야 하는 배우가 됐다고 생각한다." 이민호는 이처럼 누구보다 연기자로서 존재 의미를 잘 알고 실천하고 있다.

작품을 통한 대중과의 소통뿐만 아니라 한국과 외국 팬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이민호의 자세는 스타로서의 성공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어준다. 연예인 중 스타가 된 뒤 자신의 사생활 관리 부실에서부터 팬들에 대한 거만한 태도, 스타병, 신인 때와 다른 문제 있는 행태 등으로 대중의 외면을 받는 연예인이 많다. 이민호는 전혀 그렇지 않다. '신의'를 연출한 고 김종학 PD는 "톱스타인데도 이민호는 촬영장에 먼저 나와 성실히 촬영에 임했고 늘 솔선수범해 촬영장 분위기를 좋게 만들었다"고 했다. 이러한 태도는 대중과 팬들에게도 마찬가지였다. 팬 관련 행사에서부터 팬들과 만남, 그리고 대중과의 소통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그는 겸손했고 최선을 다했다. 이민호는 국내외 팬들과 함께하는 자선활동에서부터 팬들을 위한 웨이보,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 활동까지 팬, 대중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교류한다.

"팬과 대중이 있기에 연기자 이민호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 팬과 대중은 하늘이지요. 최선을 다해야 하죠." 이민호의 이 말에서 그 어떤 스타보다 매우 강력한 팬덤을 구축한 비결을 엿볼 수 있다.

이런 이민호이기에 그가 한국을 넘어 아시아에서 가장 인기 높은 한류스타로서 화려한 비상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최고의 한류스타 이민호가 말한다. "오랫동안 좋은 연기로 대중과 함께 호흡하는 연기자가 되는 것이 유일한 꿈"이라고.

대중문화 전문기자 knbae@





5만 붉은 물결… "이 순간을 기다렸다"

JYJ가 18·19일 이틀간 일본 도쿄돔에서 JYJ 재팬 도쿄 돔투어 이치고 이치에 인 도쿄를 통해 10만 관객과 만났다. 사진제공 씨제스엔터테인먼트

JYJ '도쿄 돔 투어'

18·19일 이틀동안 10만명 운집
"한결같이 기다려준 팬에 감격"
일본 싱글 '웨이크 미…' 첫 무대
앙코르로 동방신기 '비긴' 감동

"돔에 선다는 건 매번 기분 좋은 일입니다." 19일 2014 JYJ 재팬 도쿄 돔투어 이치고 이치에 인 도쿄(2014 JYJ JAPAN DOME TOUR 이치고 이치에 in Tokyo) 기자회견에서 JYJ 김준수가 이같이 밝혔다. JYJ의 이번 도쿄 공연은 일찌감치 매진됐다. 드디어 베일을 벗은 18일과 19일 이틀간 10만명의 일본팬은 JYJ를 보기 위해 도쿄돔에 운집했다. 아시아 투어를 통해 한류 강자임을 입증한 JYJ가 일본 도쿄돔 공연으로서 확고한 위상을 과시했다.

박유천은 "그동안 잘 찾아뵙지 못한 일본 팬들이 한결같이 기다려 주신 게 신기하고 감사했다"고 털어놨다. 김재중 역시 "JYJ로서 돔투어는 처음이나 오랫동안 저희를 사랑해 주셨던 분들이기에 새로운 무대지만 마음은 따뜻했다"고 전했다.

19일 도쿄돔을 빽빽이 채운 객석은 숨 죽이고 JYJ의 첫 등장을 기다리고 있었다. 암전이 되자, 일제히 5만개의 붉은 야광봉이 기대감을 고조시켰다. 이들은 JYJ 월드와이드 앨범 '더 비기닝' 수록곡인 '엠티(Empty)'로 단체군무를 펼치며 오랜 기다림을 품은 팬들에게 화답했다.

후렴구의 아카펠라가 돋보이는 '텟 미시' 등에 이어 김준수, 박유천, 김재중의 각기 다른 매력이 솔로 무대를 통해 빛났다. 김재중은 조용필의 발라드곡 '걷고 싶다'의 일본어 버전인 '아루키타이'를 온 정성을 쏟는 모습으로 소화했다. 이를 이해한 객석 역시 1절을 마치자마자 마음을 어루어만지는 듯 차분한 박수를 쏟아냈다. 김준수 역시 일본 가수 아야카의 '소라토키미노 아이다니'로 솔로 무대를 열었다. 애절한 음색과 군더더기 없는 감정으로 강약을 밀도 있게 조절하는 김준수표 발라드에 감미로운 분위기가 도쿄돔에 휘몰아쳤다. 다음 박유천의 무대를 위한 암전이 순간 길어지자 객석 환호는 드높아졌다. '유천쨩'을 부르짖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가운데 보다 여유로워진 박유천이 등장했다. 후쿠야마 마사하루 원곡의 '사이아이'를 자신만의 스타일로 꾸며 여심을 흔들었다.

월드와이드 앨범, 일본어 곡 등이 펼쳐진 가운데 절정은 한국어곡에서 터졌다. 바로 KBS 2TV 드라마 '성균관 스캔들' OST '찾았다' 무대에서다. 5만 객석의 폭발적 반응은 한마음으로 부풀어 오른 JYJ에 대한 사랑 그 자체와 일치했다.

특히 JYJ는 막바지로 치닫으면서 일본 싱글 '웨이크 미 투나잇(Wake me tonight)'을 이번 도쿄돔 공연을 통해 첫선을 보이기도 했다. 마지막 앙코르 무대는 10년을 함께해 온 일본 팬들에 맞춘 동방신기 2006년 발매곡 '비긴(Begin)'이었다. 이제는 5명이 아닌 3명으로 함께해 빛깔을 밀도 있게 더한 '비긴'에 그간의 추억과 곡절이 서려 JYJ 일본 도쿄돔 공연의 감동을 배가시켰다.

공연장을 찾은 미즈코(45세)씨는 "나고야에서 왔다. 정말 힘들게 표를 구했다. JYJ를 왜 좋아한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좋고 눈앞에서 공연을 보게 돼 행복하다. 한국어를 배웠고 오늘도 한국어로 '사랑해요. 고마워요'라고 외쳤다. 일본어 곡을 선택하는 걸 보면 항상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 같다. 함께 있어 줘서 고맙다고, 네가 있어서 힘이 된다고 그런 내용이 많다. 나도 그들이 있어서 힘이 된다"고 밝혔다.

도쿄뿐 아니라 내달 오사카돔, 후쿠오카돔으로 이어지는 돔투어를 통해 관객과 만남을 예약해 둔 JYJ다. 올해로 데뷔 10주년을 맞이해 오랜 응원과 지지를 보내 온 일본 팬들과의 공연을 뜻 깊게 새겼다.

도쿄=이꽃들 기자 flowerslee@

"무대가 좁다"… 안방극장까지 접수한 아이돌

tvN '미생' 임시완·MBC '미스터 백' 이준 등 실감나는 연기 호평

연기돌의 안방극장 공세가 더욱 거세졌다. 아이돌이 나오지 않는 드라마를 찾는 것이 오히려 더 어려운 실정이다. 발연기라는 수식어가 늘 따라다니던 연기돌이 다양한 장르 속 각양각색 캐릭터를 소화하며 연기자로서 입지를 굳혀 가고 있다. 그들은 어떤 매력으로 시청자의 마음을 사로잡을까.

제국의 아이들 임시완은 tvN 드라마 '미생'에서 스펙, 특기, 경력이 전무한 낙하산 인턴 장그래 역을 맡아 신입사원의 모습과 직장인의 삶을 현실감 있게 그려내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임시완은 극중 과장인 이성민, 대리 김대명과 연기호흡을 자랑하며 호평을 받고 있다.

엠블랙 이준는 MBC 수목드라마 '미스터 백'에서 뻔뻔한 뺀질이에 베짱이 기질을 가진 재벌 2세 최대한 역을 맡아 상남자로 변신했다. 특히 이준은 임시완의 연기력에 부러움을 표하면서 "또래 가수 출신 연기자들 중 내가 제일 못하는 것 같다.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각오를 다졌다.

연기돌은 주말 안방극장까지 꿰차면서 각 방송사의 가족극에 출연 중이다. 시크릿 한선화는 '장미빛 연인들'(MBC)에서 타이틀롤을 맡아 세상물정 모르는 막내딸로, 제국의 아이들 박형식은 '가족끼리 왜이래'(KBS)에서 철부지 막내아들 차달봉 역으로 열연 중이다.

이 밖에 가수로 데뷔한 이후 연기 활동을 하는 여느 아이돌 그룹과 달리 배우로 얼굴을 알린 후 음반을 발매한 그룹 서프라이즈 서강준('가족끼리 왜이래')과 이태환(MBC '오만과 편견')은 안방극장에서 주목받는 신예로 떠오르고 있다.

임시완·박형식의 소속사 스타제국 박민성 팀장은 "임시완과 박형식의 피나는 노력이 지금에 와서 빛을 발하는 것 같다. 길지 않은 연기 경력이지만 두 멤버 모두 역할의 비중에 연연하지 않고 다양한 작품과 캐릭터를 통해 연기내공을 쌓아 왔다. 많은 응원과 사랑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tvN '미생' 임시완, MBC '장미빛 연인들' 한선화, KBS 2TV '가족끼리 왜이래' 서강준.

김민정 기자 mj_k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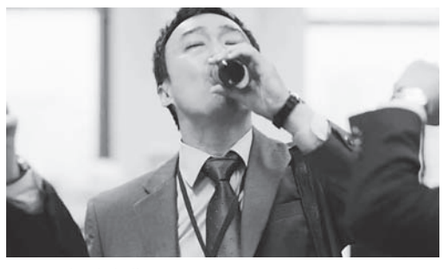
PPL

좋거나 내용에 알맞게 자연스레

나쁘거나 뜬금없이 웬 상표?

간접광고 마케팅 중 하나인 프로그램 속 PPL(Product Placement)은 두 얼굴을 갖고 있다. PPL은 각 장르 속 적재적소에 배치되는 상품으로 최근에는 자동차부터 식당, 생필품에 이르기까지 소재를 가리지 않고 활용되고 있다. 이에 작품의 내용과 잘 어우러지는가 하면, 눈살을 찌푸릴 정도로 방송 흐름을 방해하기도 한다.

최근 방송 중인 tvN 드라마 '미생'과 KBS 2TV 드라마 '내일도 칸타빌레' 속 PPL은 엇갈린 반응을 이끌고 있다. 직장 속 얽히고 설킨 에피소드를 담아 공감대를 넓혀 가고 있는 '미생'에서는 A4용지, 홍삼 농축액 등 직장인이라면 친숙한 물건들이 극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었다. 영업3팀 오 과장(이성민), 장그래(임시완), 김 대리(김대명)는 접대에 나서기 직전 숙취해소 음료를 들이키며 사실감을 더했고, 이따금씩 등장한 인스턴트 커피는 인물들의 시름과



tvN 주말극 '미생'.

피로를 달랬다. 알고 보니 이는 배경에 걸맞게끔 김원석 PD가 의도한 엄격한 기준에 따라 각 제품 회사로부터 협찬을 받아 이뤄진 배치였다.

'미생'처럼 PPL의 본래 목적은 제자리에 놓여 몫을 해냄으로써 순기능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최근에는 제작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극의 내용과 맞지 않음에도 끼워 맞추는 PPL 사례가 대다수다. 일본 원작 드라마를 각색한 '내일도 칸타빌레'의 경우 과도한 PPL의 대표 사례로 꼽히고 있다. 카페, 외식업체 브랜드, 냉장고, 참치캔 등이 쉴 새 없이 등장해 생뚱맞은 인상을 남겼다.

한국CM전략연구소 경원식 소장은 "엄밀히 말해 PPL인지 모르게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PPL이다. 극과 관계없이 자꾸 강조하려다 보니 어색해지는 것"이라며 "개연성 없이 상품을 알리기만 할 뿐 근본적으로 시청자에게 공감을 자아내지 못하는 것은 PPL의 부작용"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경 소장은 "PPL 시장이 커지는 한편, 제작사의 욕심 속에 악순환이 거듭되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연출자의 원칙이 존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쩐의 전쟁' 스토브리그 개막

'FA 최대어' 최정, 사상 첫 100억시대 여나

KBO, 19명 공시…역대 최다
삼성·SK 등 5명씩 가장 많아
구단별로 최대 3명 영입 가능
한화·KT '통 큰 베팅' 예고

사상 최대 프로야구 자유계약선수(FA) 시장이 열렸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9일 2014시즌 FA 승인 선수 19명을 발표했다. FA로 승인된 선수는 20일부터 26일까지 원 소속구단과 협상을 벌일 수 있고 27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원 소속구단을 제외한 나머지 구단과 협상할 수 있다. 구단별 대상 선수는 SK(투수 이재영, 3루수 최정, 2루수 나주환, 외야수 김강민·조동화)와 삼성(투수 윤성환·배영수·안지만·권혁, 3루수 조동찬)이 각각 5명으로 가장 많다. 역대 최다인 19명이 FA를 신청했고 대어급도 많아 FA 시장에서 오가는 금액이 엄청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FA 선수 15명의 재계약총액은 523억원이 넘었다.

자유계약선수(FA)
타자는 매 시즌 패넌트레이스 총 경기 수의 3분의 2 이상 출전, 투수는 규정 투구 횟수의 3분의 2 이상 투구한 시즌이 9시즌에 도달한 경우 FA 자격을 얻는다. 패넌트레이스 1군 등록일수가 145일(2006년 이전 150일) 이상인 경우에도 1시즌으로 간주한다. 4년제 대학 졸업 선수(대한야구협회 4년간 등록)는 위 조건의 8시즌에 도달하면 FA가 된다.

FA 승인 선수 19명 중 투수는 8명이다. 이 중 윤성환(33), 장원준(29), 안지만(32) 정도가 A급 선수로 꼽힌다. 이번 한국시리즈에서 윤성환은 2승을 쓸어담았고, 안지만은 싸움닭 근성으로 팀의 우승을 이끌었다. 좌완 장원준은 5년 연속 두 자리 승수를 올렸다. 역대 투수 FA 최고 몸값은 장원삼이 지난해 말 계약한 60억원이다.

타자 중에는 최정(27)이 첫 FA 100억원 시대를 열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정은 10시즌 동안 꾸준한 타격 실력으로 통산 0.292, 168홈런, 634타점을 기록하며 최고의 3루수로 자리매김했다. 역대 FA 최고액은 지난해 강민호가 롯데와 계약한 4년 75억원이다. 김강민(32)은 외야진 보강을 노리는 팀들에 매력적인 카드다. 내년부터 경기 수가 144경기로 늘어나기 때문에 기량 좋은 중견수의 인기가 뛸 것으로 보인다.

이번 FA 시장에서 통 큰 배팅을 할 팀으로는 한화와 KT가 꼽힌다.

김성근 한화 감독은 취임 기자회견에서 "FA 선수를 모두 데려왔으면 좋겠다"고 말한 바 있다. 원 소속팀과의 협상에 실패하고 나오는 선수 중 김 감독의 눈에 들어오는 자원이 있다면 한화 구단은 손발 걷어붙이고 나설 가능성이 높다. 원더스에서 그랬듯 김 감독은 다른 구단이 필요 없다고 버린 선수를 에이스로 재탄생시키는 재주를 갖고 있다.

KT도 팀의 중심을 잡아 줄 수 있는 베테랑 수혈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현재 KT 선수 중 대부분은 경험이 부족한 어린 선수들이라 즉시 전력감이 필요하다. KT는 FA 선수를 3명까지 영입할 수 있고, 기존 9개 구단으로부터 20인 보호선수 외 한 명씩을 지명해 양도받을 수 있다.

최성근 기자 sgchoi@

초고가 골프회원권 사라지나

회원 만족도 떨어져…8억 초과 1곳만 남아

무료 혜택에 매출 연결 안돼
"경영악화의 주범" 지적까지

고가의 '속빈' 골프회원권이 사라지고 있다. 그린피 무료에 다양한 혜택까지 보장된 고가 골프회원권이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호화로운 혜택에 비해 골프장과 회원만족도는 크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오히려 골프장 경영 악화의 주범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8억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회원권 수는 최근 수년 사이 사라지고 있다. 2008년 4월 13개로 최고치를 기록했던 초고가 회원권은 지금은 경기 용인의 남부CC(9억2400만원) 단 하나만 남은 상태다. 투자가치 소멸과 접대수요 감소가 원인이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골프장 내장객이 매출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초고가 회원권은 그린피 무료 혜택이 적용되는 만큼 골프장 경영은 갈수록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결국 장기적 매출 부진은 골프장 경영 악화를 낳고, 골프장 경영 악화는 입회금 반환 대란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회원들은 불안감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김계환 한국골프컨설팅 대표는 "고가의 회원권을 발행하는 골프장은 대부분 빈약한 경영 구조를 드러내고 있다"며 "골프장 소유주의 무리한 시공과 허영심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말했다.

반면 6000만원 미만의 초저가 회원권 수는 크게 늘었다. 지난 2005년 1월 18개소에 불과하던 초저가 회원권 발행 골프장은 2012년 9월 39개로 급증했다. 지금은 5000만원 미만 저가 회원권도 100개 이상이다.

저가 회원권을 발행하는 골프장은 예탁금에 그린피까지 별도로 받고 운영하는 만큼 안정적 경영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서천범 한국레저산업연구소장은 "앞으로도 골프회원권 값은 투자가치 소멸과 입회금 반환 문제 등이 겹치면서 완만한 하락세가 지속될 것"이라며 "회원권 값이 하락하면서 회원제 골프장들은 입회금 반환 문제에 시달리고 회원권 보유자들도 경제적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김계환 한국골프컨설팅 대표는 "골프장이 회원제와 퍼블릭으로 양분되는 구조부터 잘못됐다. 같은 회원제라도 주주회원제와 예탁금제·소멸성 등 다양한 구조로 운영 가능하다. 우리도 골프장 체질개선을 위해 보다 현실적 운영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오상민 기자 golf5@

그린피 할인·해외 저가상품…겨울 라운드 즐겨볼까

비회원에 동계 이용권 판매 등
골프장 내장객 유치 전쟁 '후끈'
연습장은 특가 이벤트 펼치기도
여행사 파격 패키지로 고객 유혹

누가 골퍼의 겨울은 휴면이라 했나. 겨울을 맞은 골퍼들이 바빠졌다. 동계 그린피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는 골프장이 늘면서 겨울 골프도 마다하지 않는 '열혈골퍼'는 행복한 고민에 빠졌다.

쌀쌀한 날씨에 가장 민감한 곳은 골프장이다. 이에 전국 대부분 골프장은 그린피 할인행사를 통해 내장객 유치 전쟁을 펼치고 있다. 경기 광주의 그린힐 골프장은 이달 말까지 비회원을 대상으로 동절기 이용권을 판매한다.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이용 가능한 이 이용권은 주중 그린피 9만원·주말 14만원으로 회원에 준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 리베라CC(경기 화성)와 신안CC(경기 안성)에서도 이용 가능하다.

강원 강릉의 메이플비치골프앤리조트는 12월 1일부터 7일까지 주중 그린피 8만원·주말 11만원이 적용되고, 12월 8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는 주중 6만~7만원·주말 8만~9만원에 라운드 가능하다. 이 골프장은 또 이틀간 36홀 라운드와 숙박·조식이 포함된 골프 패키지 상품도 16만~20만원(주중)에 선보였다. 전북 고창의 골프존 카운티 선운은 오전 8시 30분까지 출발 고객에 한해 주중 그린피 6만원·주말 10만원에 라운드할 수 있도록 했다. 11월 주중 8만원·주말 13만원보다 2만~3만원이나 저렴한 금액이다.

골프연습장도 특가 이벤트가 한창이다. 서울 용산구의 서빙고골프연습장은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3개월간 75만원 하던 3개월 회원권을 50만원에 판매하고, 서울 구로구의 동도센트리움 골프클럽은 25만원(여성 21만원) 하던 1개월 이용권을 2개월 주중 29만원(남)과 25만원(여), 2개월 전일 35만원(남)과 31만원(여)으로 할인 판매하고 있다. 인천 영종도의 드림골프레인지는 내달 1일부터 기본 패키지(타석 90분·쇼트게임컴플렉스 60분)를 4만2000원에서 2만7000원(평일)으로 할인하고, 스카이패스(잔디타석·칩샷 60분·퍼팅 30분·벙커 30분)는 7만원에서 3만5000원으로 반값 할인이 적용된다.

저가의 해외골프 상품도 쏟아지고 있다. 골프 부킹 사이트 엑스골프는 중국 황산의 송백CC 골프 패키지를 67만9000원에 선보였다. 12월 24일부터 3박4일이며, 왕복항공료(유류할증료)와 무제한 그린피, 숙박(2인1실), 전 일정 식사, 여행자보험 등이 포함된다. 모두투어는 필리핀 마닐라 깔라따간 골프클럽 3박5일 상품을 27만7000원(최저가)에 내놨다. 왕복항공권(유류할증료)과 리조트 숙박(2인1실), 전 일정 식사, 그린피, 여행자보험 등이 포함된다.

오상민 기자 golf5@



www.rynkorea.com
RYN 대한체육회 공식 파트너
세계가 인정한
대한민국 워킹 슈즈 린
WORLD BEST NO.1
· 해외 20여개 국가로 수출
· 대통령 표창 수상
· 미국 오바마 대통령 표창 수상
· 대한체육회 / 대한올림픽위원회 공식 파트너사 선정
· 베이징 장애인 올림픽 국가대표선수단 공식후원사 선정
· 광저우 아시안게임 국가대표선수단 공식후원사 선정
· 미국 FDA 1등급 의료기 등록(국내 신발업계 최초)
· 유럽 CE 의료기기 인증(국내 기능성 신발 최초)
· 이탈리아 AC STUDIO와 디자인 협약
(주)RYN코리아는 인류의 건강한 삶을 구현한다는 기업정신으로 기능성 워킹화에서부터
스포츠 패션까지 세계최고의 제품만을 고집하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1등 기업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젊은 희망을
행복과 이어주는 행복주택

젊은이들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주거문제를 해결하는 행복주택!
집 걱정 없이, 마음 놓고 미래를 향한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도록
따뜻한 주거복지를 실현하여 새로운 행복을 짓습니다

국토교통부 LH 한국토지주택공사



행복주택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하여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를 활용하여 저렴하게 공급하는 새로운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공병호의 독서산책

KOTRA
'2015 한국을 뒤흔들 12가지 트렌드'

요즘 외국에서는 무엇이 뜨고 있는가. '2015 한국을 뒤흔들 12가지 트렌드'는 해외의 최신 트렌드를 전하는 책이다. 대한무역진흥투자공사(KOTRA)가 올해 3번째로 펴낸 이 책은 외국의 현장에서 활동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알기 쉽지 않은 최신 트렌드를 담고 있다. 일상, 위기와 변화 그리고 상처와 치유라는 소제목 아래 모두 12개 장으로 구성돼 있다. 순서에 구속되지 않고 관심 있는 분야를 골라서 읽을 수 있는 책이다.

한국은 아웃도어 패션이 유행하고 있지만 뉴욕은 트레이닝복이 뜨고 있다. 운동복이 피트니스 센터를 벗어나 거리로 나오고 있다. 이른바 '액티브웨어'라고 불리는 유행의 선두 주자는 그리스 문자 오메가를 닮은 룰루레몬이다. 룰루레몬의 로고는 여성 소비자들에게 건강하고 패셔너블한 여성의 심벌처럼 인식되고 있다. 미국의 액티브웨어 시장은 전년 대비 13% 증가한 반면에 청바지 매출은 전년 대비 6% 줄어들고 있다. 미국의 방송사 NBC는 청바지 시장의 위축과 관련 "편안함을 강조하는 애슬레저 패션의 유행"이라고 보도한다. 명품 업체들이 앞을 다퉈 액티브웨어 열풍에 동참하고 있다.

최근 실리콘밸리에서는 하드웨어 창업에 대한 투자가 활발하다. 3D 프린팅 혁명은 제품의 소량 생산은 물론이고 언제든 손쉽게 제품의 프로토타입을 제작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이러한 혁신은 제조 사이클을 단축시키고 신제품의 마케팅 콘셉트를 짜고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기까지의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임으로써 제조업의 혁신을 가능하게 한다. 이런 추세를 반영하듯 하드웨어 창업에 특화된 공간이 테크숍(Techshop)이다. 미국 전역 열 곳에 설치된 테크숍은 3D 프린터부터 각종 제조설비와 기기, 하드웨어 생산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갖추고 있어 누구나 월 175달러만 내면 이를 활용할 수 있다. 특히 테크숍에서는 연중 다양한 강좌와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돼 하드웨어 창업에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어려운 3D 프린팅 방법도 배울 수 있다. 때문에 이곳에서는 구체적인 아이디어와 도면만 갖고 있으면 누구든지 시제품을 만들 수 있다. 이로서 1인 제조업이 실현될 수 있는 이상적인 공간이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뉴욕서 뜨는 트레이닝복
파리선 '색칠공부' 힐링
코트라 무역관이 전하는
따끈따끈한 현장 이야기

프랑스에는 오랜 경제 침체에 지친 사람들에게 저렴한 힐링을 제공하는 사업이 뜨고 있다.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채색' 사업인데, 이미 그려져 있는 밑그림에 색연필로 예쁜 색을 채우는 '색칠공부'를 말한다. 그동안 어린이 전유물로 여겨져 왔는데 이제는 어른들이 본격적으로 가담하고 있다. 영미권에서 시작된 채색을 통한 마음 치유는 2012년 아세트 출판사에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100가지 채색 앨범'을 출간하면서 프랑스에 도입되기 시작했다. 대표주자인 아세트는 1년 동안 30만부를 판매했으며, 2014년 상반기 취미 실용서적 베스트셀러 15권 중 5권이 채색 앨범일 정도로 주목받고 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겨난 것일까. 타고난 재능이나 심화된 예술적 기교가 없는 평범한 사람도 채색 아트를 통해 약간의 노력만으로 아름다운 예술 작품을 창조해내면서 본능 충족의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위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전 세계 GDP의 5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거대한 경제 규모를 자랑하는 미국도 심화되는 빈부 격차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미국 중산층은 연간 소득이 대략 4만~12만 달러 구간을 차지하는데 중산층 비중은 지난 40년 동안 10퍼센트 이상 하락했다. 이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증세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한다. 따근따근한 현장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책이다.

◇외부 필진의 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신율의 정치펀치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깊어지는 세대 간 균열구조

우리나라의 사회적 균열구조가 바뀌고 있는 것 같다. 과거 우리 사회의 주요한 균열구조가 지역갈등이었다면, 이제는 이것이 세대 간 균열구조로 변하고 있는 것 같기 때문이다. 이런 조짐은 지난 대선 때부터 나타났다. 당시 50대 이상의 중·장년층과 청년층의 표심이 확연히 갈렸는데, 이때부터 이미 세대 간의 균열 조짐은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세대 간의 균열구조가 이제는 정당에도 투영되는 것 같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두고 벌이는 여야의 입장 차이에서도 이런 세대 간의 입장 차이가 반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공무원연금 적자를 줄이는 방안에 대해 "많이 받는 사람들을 더 깎아 젊은 세대를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새누리당은 "아무리 사정이 급하다고 해서 국가가 약속했던 지급액을 한꺼번에 깎을 수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새누리당의 경우 중·장년과 퇴직 공무원에게 유리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젊은 공무원에 유리한 안을 지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여야의 입장 차이는 지금 거론되고 있는 정책에도 반영되고 있다.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 행사가 중요한 예다. 이런 세리머니는 신혼부부에게 저리 임대주택을 제공해 주는 차원을 넘어, 젊은층에 어필하려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 행사에 지난번 대선의 주역이라고 할 수 있는 친노들이 대거 참석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친노들은 지난 대선 때 전략적 극단주의, 즉 자신의 핵심 지지층을 묶는 전략을 주로 사용했는데, 이번 행사에 대거 참여하는 걸 보면 자신들의 핵심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젊은층을 묶으려는 지난 대선 전략을 다시 구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어쨌든 젊은층은 상대적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을, 그리고 장년층은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현상이 고착화된다면, 각 정당은 유·불리를 떠나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고민해야 한다. 즉, 갈등 없는 세상은 없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입장에서 지역갈등이 더 나은지 아니면 세대 균열이 더 나은지 이제는 판단해 볼 때가 됐다는 말이다.

세대 갈등은 항상 존재해 왔던 사안이다. 심지어 "요즘 젊은이들은 버릇이 없다"고 적힌 고대 파피루스도 발견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세대 간의 갈등이 항상 존재해 왔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세대 간의 균열이 정치적 성격을 띨 때다. 더욱이 우리나라와 같이 정치를 타협의 과정이 아닌, 적을 타도하는 과정으로 생각하는 곳에서 세대 갈등이 정치적 성격을 띠게 되면, 이를 으레 있었던 갈등의 '역사적 차원의 재방송'이라고 보기는 힘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대 간의 균열'이 '증오의 구조'로 바뀌기 전에 정치권은 어느 정도 선에서 균형을 맞춰야 한다. 특히 요즘과 같이 청년실업률이 높아 가고 있는 상황에서 세대 간의 갈등을 그냥 놔두면 청년층의 기성세대에 대한 증오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새정치민주연합 산하 연구기관인 민주정책연구원이 내놓은 '70세 정년론'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자칫 노령층이 젊은층의 사회 진입을 막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세대 갈등의 해소는 지역갈등 극복보다 어려운 일은 아니다. 특히 정당은 선거로 먹고사는 존재라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즉, 선거에서 자신의 지지계층을 넓히기 위해서는 고른 연령대의 유권자 지지를 받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특정 연령대의 유권자에 치중되는 정책을 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이는 새누리당이 호남에서, 새정치연합이 영남에서 표를 얻는 것보다는 훨씬 쉬운 일일 것이다. 그리고 타협점을 찾기도 훨씬 쉬울 것이다. 지역감정이 편견의 산물이라면, 세대 갈등은 사회경제적 상황에서 파생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즉, 원인이 되는 사회경제적 요소만 축소시키면, 세대 간의 갈등은 어느 정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바로 지금이 행동할 때다. 더 늦으면 수습되기 힘들 수도 있다.

온라인 와글와글 학교 비정규직 파업, 아이들 밥도 근로자 밥도 다 걱정



○…전국 학교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총파업을 시작했다. 급식 공급에 차질이 빚어진 학교에서 학생들의 점심을 빵과 우유로 대체하며 온라인상에는 찬반이 엇갈렸다. "학생들이 무슨 죄라고 밥을 굶기냐?", "교육공무원 되고 싶으면 당당히 시험 쳐서 정문으로 들어가세요. 지금 학교에 정규직으로 있는 사람들도 피나는 노력으로 거기까지 간 겁니다", "공무원시험 안 봐도 공무원이 된다면 너도나도 급식소에서 일하겠네" 등 쓴소리가 이어졌다. 반면 "학생들이 무슨 죄냐고? 나중에 저런 사회를 그대로 물려주는 게 죄다", "하루 밥 안 먹는다고 큰일 안 납니다. 그것보다 부당함을 먼저 잡아야 교육이 되지요", "상황이 저리 된 건 파업하시는 분들 때문이 아니라 파업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든 정부 때문입니다" 등 옹호의 견도 많았다.

○…교육부가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오류를 인정하고 전원 정답 처리하기로 했다. 네티즌은 "아이고 의미 없다", "저것 때문에 인생 바뀐 사람도 많을 텐데. 참 빨리도 결정 내린다", "1년 낭비한 시간도 보상해 줘야 하는 거 아님?", "수능 문제가 지식을 테스트하는 게 아니고 실수를 유발하게 하려고 비비 꽈대니 출제자들도 정답인지 아닌지 헷갈리지", "이미 대학 간 사람들은? 1년 동안 쏟아부은 등록금은? 군대 간 사람들은? 정말 교육부 대책 없다" 등 비난을 쏟아냈다. 반면 "그래도 오답 인정해서 다행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교육과정평가원이 뻔뻔하게 버티는 태도 좀 버렸으면 좋겠네", "굉장히 이례적인 일 아닌가? 사과하고 성적 재산출에 합격 기회까지 주려고 법률안제정 한다는데 그리 삐딱하게만 볼 거 있나?" 등 격려의 메시지도 보였다.

김은총 기자 kec@

오늘의 Hot Click 베스트5

이투데이 온라인 집계

1. 임대료 비싼 상권 세계 순위, 1위 뉴욕 '피프스 애비뉴'
2. 베가 팝업노트, 월 8000원에 사는 법
3. 최승희 승무 사진 공개… 한국 신무용의 개척자
4. 사망 판정 60대 남성, 가족들 신병인수 거부 '충격'
5. 도서정가제 시행, OECD 중 16개국 도입

오늘의 BAE 배국남.com www.baekn.com

이성민 "내 인생의 '빅매치'는 가족"



배국남닷컴은 20일 영화 '빅매치'의 이성민을 만났다.

이성민은 이날 오후 서울 건대입구 롯데시네마에서 열린 '빅매치'의 언론시사회 및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영화 비하인드 스토리를 전하며 개봉 전 기대감을 드러냈다. 앞서 이성민은 "내 인생의 빅매치는 우리 가족이다. 딸이 중학생인데 일을 마치고 집에 가면 아내와 딸이 기다린다. 현관 앞에 와서 기다릴 때 많이 긴장된다(웃음). 두 여자를 상대하는 게 대단히 힘들다. 딸과 아내가 싸울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런 이성민이 극중 최익호(이정재)의 형 최영호 역을 맡아 라미란과 부부 호흡을 맞춘다. 이에 이성민은 "라미란과의 키스신이 기억에 남는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이성민은 '빅매치'에서 생애 처음으로 특수 분장을 시도했다. 전직 레슬링 선수라는 캐릭터의 리얼함을 살리기 위해, 선수들의 특징인 일명 '만두귀' 설정을 했다. 이를 위해 이성민은 매 촬영마다 2시간씩 '만두 귀' 분장을 해야 했다. 최근 '미생'에서 오 과장 역으로 호연을 펼치고 있는 이성민은 "'빅매치' 영호 역과 오 과장 역 중 어떤 배역이 더 힘든가?"라는 질문에 "납치가 더 힘들었다. 사무실에서 일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재치 있게 답해 웃음을 자아냈다. 이어 이성민은 "영화를 찍으면서 고생을 별로 안 했다. 소리만 많이 질렀다. 촬영 후에 목이 많이 쉬었다. '빅매치'는 종합영화다. 기대 많이 해 달라"고 했다.

영화 '빅매치'는 도심 전체를 무대로 천재 악당으로부터 형을 구하기 위한 익호의 무한질주를 그린 오락액션 영화다. 이정재, 신하균, 보아, 김의성, 라미란, 배성우, 손호준, 최우식 등이 출연하며, '고고70', '사생결단' 최호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오는 27일 개봉 예정이다.

최두선 기자 sun@



正論

연구개발 패러독스와 갈라파고스화 위기



김 기 찬
가톨릭대 경영학부 교수
세계중소기업학회 차기회장

지난 1월 블룸버그의 조사에 의하면 한국이 가장 혁신적인 국가(Most Innovative Countries)로 선정되었다. 연구개발 집중도 3위, 하이테크 집중도 3위, 연구집중도 6위, 생산능력 2위, 특허활동 2위, 아시아 전체에서 GDP순위 4위, 생산성 33위를 기록하였다. 한편 미국이 3위, 일본이 4위, 싱가포르가 7위를 차지하였다. 이는 창조경제의 한국을 설명하는 좋은 자료이다. 그럼에도 한국은 이러한 혁신성과를 시장화하여 돈을 벌어내는 데 실패하고 있다. 기술을 수출하여 돈을 벌어들이는 기술수지균형(Technology Balance of Payment)이 OECD 34개국 중 30위를 차지하고 있다. 세계경제포럼(WEF)이나 스위스 IMD의 국가경쟁력 평가는 26위로 떨어지고 있다. 전형적인 연구개발 패러독스의 나라이다.

왜 그럴까? 한국인은 학자적 연구정신((scholarship)은 뛰어나지만 이것을 시장화하고 투자해가는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는 연구실을 좋아하고 상업에 종사하고 싶어하지 않는 한국인의 특성과도 연관이 있어 보인다. 글로벌기업가지수기관(GEDI)에 의하면 한국의 기업가정신지수는 OECD 34개국 중 24위에 머무르고 있다.

한국의 경제위기는 여기에서 시작되고 있다. 이제 한국은 3만달러 시대를 바라다보는 축복이 있지만 이것은 기업측면에서 보면 고비용 국가로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이다. 더 이상 저비용 생산형 기업구조로는 신흥국들과 경쟁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빨리 선진국형으로 산업구조를 바꾸어야 한다. 이것은 중국의 등장에 대비한 차별화된 신제품 개발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럼에도 낮은 기업가정신과 연구개발의 패러독스가 차별화된 신제품으로 승부를 거는 비즈니스 모델로의 이행을 가로막고 있다. 아베노믹스로 시작된 원엔환율이 지난 2년간 40% 이상 하락하고 있다. 그러면 일본기업과 경쟁하는 우리 기업들은 40% 이상의 원가절감으로 일본 경쟁업체와 승부해야 한다. 이처럼 한국기업은 일본의 아베노믹스와 중국의 급속한 기술 경쟁력 향상으로 해외시장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그 결과 세계의 소비자들이 다시 일본제품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일본 자동차 빅3의 판매량은 지난해보다 10% 이상 늘어나고 있으며, 영업이익도 10% 이상 커지고 있다. 반면 한국 제조업체들의 수익성은 대체로 전년 대비 10% 이상 급감하고 있다. 그런 만큼 최근 한국경제의 수출 증가율이 크게 둔화되고 있다. 지난 3년간 수출 증가율은 0.8%에 불과했다. 우리 중소기업들의 해외수출 비중도 지난 10년간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 중소기업들이 매출액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3%대에 머무르고 있다.

중소기업은 전문점 전략이기보다는 잡화점 전략이었다. 연구개발을 통해 차별화된 제품을 개발하여 해외시장에 도전하기보다는 다양한 제품을 만들어 한국시장 내에서 시장 기회를 찾아보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한국 중소기업의 갈라파고스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세계 진화에서 고립되면 더 이상 생존하기 어렵다. 지난 1995년 이후 일본 중소기업이 해외진출하지 않고 국내에서 머무르는 갈라파고스화증후군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원인이 되었다. 활력은 해외시장에서 찾아야 한다. 3%대 경제성장률에 머무르고 있는 한국시장에서 우리 중소기업의 성장 기회는 많지 않다. 아세안 시장은 6.5% 이상 성장하고 있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의 2014 보고서에 의하면 동남아국가연합(ASEAN)이 2010~2030년 사이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아세안 국가의 연평균 명목 GDP 성장률을 6.4%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므로 해외시장의 보물은 아시아에 있다.

세계 인구의 60%가 아시아에 거주한다. 아시아의 성장으로 아시아의 시장적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다. 즉 아시아시대(Asianization)가 오고 있는 것이다. 한국 중소기업의 희망은 서쪽에서 찾아야 한다.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기업들은 서쪽 사랑의 기업들이다. 우리 기업들, 연구개발 패러독스와 갈라파고스화를 극복하고 서쪽으로 가라. 그곳에 답이 있다.

하유미의 고공비행

제7홈쇼핑, 현실성도 명분도…



얼마전 정부(미래창조과학부)가 '제7홈쇼핑'의 모토인 '공영' TV 홈쇼핑 신설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골자는 이렇다. 우선 정부의 관리·감독 아래 초기 판매수수료율 상한을 20%로 제한키로 했으며, 운영수익 전액을 홈쇼핑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해 재투자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창조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혁신적인 아이디어 제품을 포함한 중소기업 제품과 농축수산물을 95% 이상 또는 100% 편성한다는 방침도 포함돼 있다. 법인 성격은 재단법인(비영리), 또는 주식회사(영리) 중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내용은 그럴 듯하다. 하지만 지금까지 기존 홈쇼핑들의 초기 설립 취지, 이후 발생한 문제들을 감안하면 '현실성'과 '명분'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기 힘들다.

항목을 조목조목 한번 따져보자. 우선 수수료 문제. 현재 홈쇼핑업계의 판매수수료율이 평균 32% 수준으로 상당히 높은 점을 감안해 상한선을 대폭 낮췄지만 '매년 경영상황을 고려해 판매수수료 상한을 조정하는 안'도 복수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즉 언제든지 올릴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셈이다. 공영홈쇼핑이지만 영리법인으로 갈 경우 수익이 생명줄이기 때문이다.

제품 편성도 면밀히 검토해보면 크게 와닿지가 않는다. 기존 홈쇼핑 중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신설된 곳이 NS, 홈앤쇼핑 등 상당수 있으며 모두 중소기업 편성 비율을 높였지만 결과적으로 성공 사례는 만들어내지 못했다. 수익에 집착한 결과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이자 '제6홈쇼핑'이기도 한 '홈앤쇼핑'만 해도 그렇다. 홈앤쇼핑은 사업 승인 당시 '중기제품 80% 이상 편성'이라는 조건을 수행키로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인기가 있어 소위 '수익이 나는' 제품 위주로 편성하거나 심지어 대기업 제품들도 간간이 보이는 등 초기 취지가 다소 변질됐다.

결과적으로 기존 6개의 홈쇼핑 대부분 좋은 취지에서 시작됐지만 지금은 '돈 벌기'에 급급할 뿐 하나같이 높은 판매수수료, 형평성에 어긋나는 제품 편성 등 고질적 문제를 안고 있다. 6개 중 '차별성'을 추구하며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홈쇼핑을 찾기란 쉽지 않은 셈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발표한 공영 TV 홈쇼핑 신설 방안에는 알맹이가 빠져 있다. 그간 반복돼 온 고질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기존 홈쇼핑이 하지 못했던 역할을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지금까지 소홀했던 문제 발생 방지를 위한 감시와 적절한 조치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등 기존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다는 얘기다.

게다가 중소기업청,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련 부처들의 의견 조율도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어 추진 시점도 상당히 미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늘어나는 채널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편함은 당연히 안중에도 없다.

제7홈쇼핑 사업권을 누가 따내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고민하기에 앞서 '왜' 신설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한번 더 해봐야 하는 시점이다.

미래산업부 차장 jscs508@

객석

인생 뭐 있어?



박 형 수
기획재정부
감사담당관실 사무관

인생 뭐 있어?

서로 의지하며
살라하네

훈훈한 정
나누고 살라하네

사람답게
후덕하게 사는게
인생이라네

인생 뭐그리 대단하다고
천년만년 살것처럼
아웅다웅

한줌 흙으로
빈 손으로 갈 걸

그립고, 아쉽고, 보고싶고
참고, 웃고
그런거지

인생은 미완성
쓰다가 만 편지

그래도
인생은 살만한 세상

연분홍 치마가
봄 바람에

동백꽃 매화꽃
휘날리는 그 속으로

빙그레 미소로
다가오네요



기자수첩

금감원 홈피, 파밍인 줄 알았어요



김 우 람
금융시장부/hura@

금감원의 홈페이지에는 각종 통계자료가 공시돼 있다. 기사를 쓰기 위해서는 각종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해 기자들 입장에선 매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의 금융통계시스템은 그 자체로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시스템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 시스템을 활용하는 데 매우 불편하다는 것이다.

금융권에서는 벌써 수년 전부터 액티브엑스를 걷어내자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무풍지대였다. 금감원의 통계정보시스템도 액티브엑스 없이는 접근할 수 없었다.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하자.

금감원에서 내려받은 액티브엑스를 설치하려면 사용자가 익스플로러의 일부 보안을 해제해야만 했다. 순간 피싱이나 파밍 사이트에 잘못 들어온 줄 알고 한참이나 홈페이지 이곳저곳을 훑어봤고, 또 컴퓨터를 다시 시작했다. 스마트폰으로도 그 사이트를 접속해봤더니 사기사이트가 아니라 진짜 금융감독원 사이트였다.

어른들이나 컴퓨터 사용법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는 '그림의 떡'이었다. 게다가 브라우저의 보안 설정을 해제하라는 금감원의 설치 안내 메시지는 더 충격적이다.

금감원의 안내가 당연히 필요한 사항이었는지 의문이 들었다. 그래서 핀테크 보안과 관련된 프로그래머에게 금감원의 금융통계정보를 보려고 익스플로러 보안 설정 몇 가지를 껐는데 이 과정이 꼭 필요하냐고 물어 보았더니, 그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 사이트를 만든 사람이 그냥 그렇게 만들었을 뿐이다"라고 말했다.

이 프로그래머는 "아마존 사이트는 아무런 추가 프로그램 설치 없이 신용카드 거래까지 가능하지 않느냐. 그건 프로그래머의 의지에 달렸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들은 이런 사소한 것이 사용자를 보안의 사각지대로 내몬다는 것을 알고 있을지 의문이다.

이투데이

社是
正道言論
經濟報國
未來指向

www.etoday.co.kr

발행인 김상우 편집인 이종재 논설실장 김경철 편집국장 강 혁

논설실	(02)799-2657	온라인뉴스부	(02)799-2640	사진팀	(02)799-2634
정치경제부	(02)799-2650	자본시장부	(02)799-2658	금융시장부	(02)799-2665
산업부	(02)799-2664	미래산업부	(02)799-2663	부동산시장부	(02)799-2661
문화부	(02)799-2669	사회팀	(02)799-2656	국제팀	(02)799-2654

광고접수·광고문의 (02)799-2601 / 2602 구독신청·배달안내 (02)799-2684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2010.10.4 등록번호 서울 가 00344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156-807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62길 1 이투데이빌딩 대표전화 (02)799-2600 팩스 (02)784-1003

※ 이 광고에 사용한 모든 서체는 KBIZ한마음체입니다



저작권 걱정 뚝!

중소기업 전용서체 무료배포

사용하는 문서프로그램의 서체에 이용 가능범위가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를 위반하여 저작권 침해로 법적조치를 받는 중소기업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의 고민과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하여
협동조합, 중소기업 등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KBIZ한마음체를 배포합니다.
저작권 고민 없이! 광고, 상표, 인쇄물, 현수막, 홈페이지 등에 마음껏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KBIZ한마음체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무료배포하는 중소기업 전용서체
KBIZ한마음체 종류는? 고딕체, 명조체
KBIZ한마음체 사용방법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 방문 〉 메인화면의 '무료서체 배너' 클릭 〉 다운로드 〉 설치 후 사용
KBIZ한마음체 문의는? 중소기업중앙회 02-2124-3093~4 *자세한 사용방법 및 라이선스는 사이트에서 확인가능

KBIZ 중소기업중앙회

"의료법 정보 공유… '상생 생태계' 만든다"

'병원경영 콘퍼런스' 기획한 닥프렌즈 신철호 대표
"유권해석 제각각… 업계 경험 나눠 인식 높여야"



"의료법의 해석과 경험 등을 공유해 상생할 수 있는 의료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신철호〈사진〉 닥프렌즈 대표가 의료법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국내 병원들 대부분이 의료법을 위반하고 있는 상황에서 악의적이 아닌, 정말 법을 인지하지 못해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해서다.

신 대표는 "병원 내외 시설물, 홍보물, 위생관리는 물론 온라인, 모바일 등 국내 병원들의 다수는 의료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의료법의 모호함과 수많은 자의적 유권해석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 많은 병원들이 의료법 관련 유권해석을 보건복지부나 보건소에 문의해도 돌아오는 것은 모호한 답변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일부 병원들 사이에선 의료법을 이용해 경쟁 병원을 신고하는 등 악용 사례도 늘고 있다. 신고를 당하게 되면 해당 병의원들은 과태료는 물론, 영업정지 조치를 받게 되고, 문제가 없더라도 이 과정에서의 인력과 자본 손실을 피할 수 없어 속앓이를 할 수밖에 없다.

신 대표는 "사진 및 폰트 사용 등 수많은 저작권 신고는 물론 개인정보보호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으로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의료인들을 대상으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집단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이 각종 문제를 야기하는 의료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닥프렌즈는 다음달 7일 서울 세텍(SETEC)에서 '병원이 알아야 할 거의 모든 법률'이란 주제로 '한국 병원경영 콘퍼런스 2014'를 개최한다. 신 대표는 "법조계 종사자들도 의료법의 해석을 어려워한다"며 "전문가들이 알고 있는 의료법의 해석과 사례 중심의 지식, 경험을 공유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의료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취지로 이번 콘퍼런스를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신 대표는 우선 단기적인 관점에서 병원들의 의료법 인식을 높이는 데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장기적으론 건전한 상생 생태계를 만들어야 하지만, 단기적으론 법률을 알고 이해해 피해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콘퍼런스에선 의료법, 저작권법, 개인정보보호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병원 경영에 있어 거시적인 부분, 개선 실행에 필요한 부분들을 모두 다룰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매년 개정되는 의료법, 유권해석과 사례 정보를 콘퍼런스를 통해 공유해 나갈 계획"이라며 "수많은 대처 사례를 모아 병의원 간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고, 이중 중요한 것들을 책으로 발간하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닥프렌즈는 병원에 IT와 경영을 융합시켜 병의원들의 질적 성장을 추구하는 의료 IT기업이다. 모바일을 통해 주치의를 만나고 쉽게 상담할 수 있는 플랫폼인 '닥톡' 서비스를 출시하는 등 의료 접근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김정유 기자 thec98@

신동빈 회장, 대영제국 지휘관 훈장

한·영 기업간 공동 번영 공로



신동빈〈사진〉 회장이 21일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수여하는 훈장인 대영제국 지휘관 훈장(CBE)을 받았다. 이날 서울 정동 영국대사관저에서 영국 여왕을 대신해 스콧 와이트먼 주한 영국대사가 훈장을 수여했다.

대영제국 훈장은 영국의 이익에 공헌하거나 경제, 문화예술, 기술과학,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이룬 사람들에게 주어진다. 이 중 지휘관 훈장은 기사(Knight) 작위 다음으로 높은 훈장이다.

신 회장은 영국에 대한 롯데그룹의 투자를 비롯해 전경련 부회장으로서 한·영 양국 기업체간 공동의 번영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았다. 신 회장은 1980년대 초반 노무라 증권 런던지점에서 6년간 근무하여 영국과 개인적인 인연이 있기도 하다.

롯데그룹은 2006년 롯데쇼핑을 국내와 영국 런던 증시에 동시 상장하면서 글로벌 기업으로의 기반을 닦았다. 2010년에는 롯데케미칼이 영국 화학섬유업체 아르테니우스를 인수해 운영하면서 해당 지역의 경제 발전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 롯데백화점은 2012년 '롯데 브리티쉬 페어'를 개최해 국내에 영국의 다양한 상품을 소개하기도 했다.

한편, 신 회장은 핀란드 국민훈장 백장미장(2006), 프랑스 레지옹 도뇌르 오피시에 훈장(2007)을 수훈한 바 있다.

이선애 기자 lsa@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오른쪽)이 20일 허동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에게 성금을 전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왼쪽 사진). 같은 날 김영기 LG 부사장(오른쪽)도 성금 120억원 기탁증서를 전달했다. 노진환 기자 myfixer@·사진제공 LG그룹

연말 앞둔 재계… 기부 행렬

현대차 250억·LG 120억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성금

연말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재계의 기부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현대자동차그룹, LG그룹은 20일 서울 정동에 있는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나란히 성금을 기탁했다.

현대차 정의선 부회장은 이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허동수 회장에게 성금 250억원을 전달했다. 정 부회장은 "이 성금이 따뜻한 나눔의 마중물이 돼 우리 사회 각계각층의 이웃사랑을 더욱 활발히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그룹의 전문성을 활용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전달된 성금은 '장애인, 학대피해아동, 다문화 가정'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이웃 및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 현대차그룹은 2003년부터 12년간 총 1590억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

LG 김영기 부사장도 이날 허 회장에게 이웃사랑 성금 120억원을 전달했다. 김 부사장은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웃을 돕는 나눔 활동은 지속돼야 한다는 것이 LG의 생각"이라며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내년 1월 31일까지 진행하는 '희망2015 나눔캠페인' 출범식과 '사랑의 온도탑' 제막행사를 진행했다. 현대차와 LG는 올해 모금 캠페인의 1, 2호 기부자로 등록됐다. 장효진 기자 js62@

'슬픔이 있는…' 책 낸 하늘나라 우체국장 송길원 목사

"세월호 아픔 그냥 잊어선 안 돼"



전남 진도 팽목항에 '하늘나라 우체통'을 세운 행복발전소 하이패밀리 대표 송길원(57·사진) 목사가 세월호의 아픔이 담겨 있는 책을 발간했다.



뉴시스

희생자나 유족에게 보내는 편지를 비롯해 참사와 관련한 글을 접수하는 곳인 이 우체통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00일째인 지난 7월 24일 팽목항에 세워졌다.

송길원 목사는 최근 '슬픔이 있는 곳이 성지다'란 책을 펴냈다. 성경에 나오는 엘리야 이야기를 토대로 세월호 참사와 영화 '밀양'의 신애(전도연 분)가 당한 고통 등 재난심리를 상담자 시각으로 해석했다. 또 재난당한 이들에게 어떻게 다가가고 위로할지도 조언한다.

송 목사는 "슬픔도 총량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울게 해야 하고 충분한 시간을 보내야 한다. 어설프게 얼버무리거나 대충 무마하려고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중요한 것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고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할 것이냐 하는 문제"라고 밝혔다.

하늘나라 우체통에는 지난 19일까지 2243통의 편지가 접수됐다. 현장을 방문해 직접 써 넣은 편지도 있고, 전국 각지에서 우편으로 보내온 것도 많다. 편지 내용은 주로 정부의 허술한 대응과 세월호 선장에 대한 분노, 희생자 애도, 유족에 대한 위로가 많다고 송 목사는 설명했다.

송 목사는 내년 세월호 참사 1주년에 맞춰 하늘나라 우체통에 접수된 편지를 모아 희생자 애도 서간집을 내기로 했다. 잊지 않고 있는 국민이 많다는 걸 이 땅과 하늘나라에 알리기 위해서라고 그는 강조했다.

박태진 기자 tjpippo@



20일 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에서 임직원과 부녀회원들이 사랑의 김장 김치를 담그고 있다. 사진제공 현대오일뱅크

현대오일뱅크 '사랑의 김장 나누기'

현대오일뱅크는 20일 충남 대산공장에서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열고 김치 3000포기와 쌀 2만7000포대를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했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이하는 이 행사에는 현대오일뱅크 임직원과 부녀회원, 지역주민 등 약 150명이 참석해 이웃간의 훈훈한 정을 나눴다. 임직원들은 독거노인,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 등 한겨울 추위와 배고픔으로 고생하는 이웃들에게 손수 담근 김장김치를 직접 전달하는 시간도 가졌다.

또한 이날 충남도청에서는 '나눔의 쌀' 전달식도 함께 진행됐다. 현대오일뱅크는 송석두 충청남도 행정부지사, 한환규 현대오일뱅크 상무 등이 참석한 가운데 6억원 상당의 쌀 2만7000포대를 충남도에 전달했다. 나눔의 쌀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거쳐 충남지역 어려운 가정에 고루 분배될 예정이다.

한편, 현대오일뱅크는 농산물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민과 소외 이웃을 돕는다는 취지로 2003년부터 매년 대산공장 인근 지역의 쌀을 수매해 기부하고 있다. 조남호 기자 spdran@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 발끈한 이유는?

전처와 관계·성격 비하 내용 기사에 공개 반박문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39·미국·사진)가 필드 밖에서 격한 감정을 드러냈다.

우즈는 19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골프다이제스트 댄 젠킨스 기자의 패러디 기사에 대해 '더플레이어스트리뷰'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개적인 반박문을 게재했다.

젠킨스 기자가 우즈와의 가상 인터뷰 형식으로 쓴 이 기사에는 우즈와 전처 엘린 노르데그린과의 관계에 대해 기술했고, 우즈의 성격이 좋지 못하다는 식의 비하도 섞여 있다. 또 우즈가 고용인을 해고하는 것을 즐기고, 팁을 주지 않는다는 등의 구체적인 내용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우즈는 "운동선수라면 누구나 비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번 경우는 벨트 아래를 가격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우즈는 "잘못된 보도나 의견이 많아도 그냥 넘겨왔지만, 이번에는 그럴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글을 쓴 해당 기자는 다음 기사에서 패러디와 풍자가 무엇인지 우즈를 위해 쓰겠다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오상민 기자 golf5@

김효주, 순직소방관 유족에 위로금 5천만원



한국 여자프로골프의 '차세대 에이스' 김효주(19·롯데·사진)가 순직한 소방관 유가족에 위로금을 쾌척한다.

김효주는 25일 오전 강원도청 통상상담실에서 최문순 도지사에게 지난 7월 발생한 광주 헬기 추락 사고로 순직한 강원도 소방본부 소속 소방관 5명의 유가족을 위한 위로금 5000만원을 전달한다.

김효주는 강원 원주 출신으로 순직한 지역 소방관들에 대해 애도의 마음을 전하며 시즌 종료 후 위로금을 전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혀 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효주는 올 시즌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투어 5승을 올리며 다승왕과 상금왕(12억897만원), 대상(610포인트), 최저타수상(70.26타)을 차지, 4관왕 영예를 안았다. 오상민 기자 golf5@

인사

◆문화체육관광부 ◇과장급 전보 △대변인실 홍보담당관 장진상 △기획조정실 창조행정담당관 이진식 △문화예술정책실 인문정신문화과장 고욱성 △문화예술정책실 박물관정책과장 김동안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산업정책과장 김현기 △문화콘텐츠산업실 미디어정책과장 노점환 △관광체육레저정책실 관광정책과장 최상현 △관광체육레저정책실 관광개발기획과장 김재현

◆국민안전처 ◇실장급 △안전정책실장 이재율 △기획조정실장 전담직무대리 정종제 △재난관리실장 전담직무대리 김계조 ◇국장급 △정책기획관 최복수 △대변인 전담직무대리 고명석 △기획조정실 비상안전기획관 전담직무대리 오의섭 △안전정책실 안전총괄기획관 권영수 △안전정책실 생활안전정책관 김동현 △비상대비민방위정책관 김인태 △재난관리실 재난예방정책관 윤재철 △재난관리실 재난대응정책관 전담직무대리 윤용선 △재난관리실 재난복구정책관 전담직무대리 임종철 △특수재난실 민관합동지원관 전담직무대리 전영옥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장 이정술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 여운광 ◇과장급 △운영지원과장 김성연 △대변인실 홍보담당관 우성현 △안전감찰관실 감사담당관 이성형 △안전감찰관실 안전감찰담당관 정윤한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상황총괄담당관 전재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상황담당관 임재웅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상황담당관 전상률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상황담당관 정한율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상황담당관 전담직무대리 신재택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실 기획재정담당관 유재욱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실 창조행정담당관 김찬선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실 국제협력담당관 전담직무대리 김병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김용진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실 정보통계담당관 허정희 △안전정책실 안전총괄기획관실 안전기획과장 이병철 △안전정책실 안전총괄기획관실 안전제도과장 황순조 △안전정책실 안전총괄기획관실 재난안전산업과장 한성원 △안전정책실 생활안전정책관실 안전개선과장 민병대 △안전정책실 생활안전정책관실 안전점검과장 홍종완 △안전정책실 생활안전정책관실 안전문화교육과장 김범석 △안전정책실 생활안전정책관실 승강기안전과장 박종복 △안전정책실 비상대비민방위정책관실 비상대비기획과장 이종수 △안전정책실 비상대비민방위정책관실 비상대비자원과장 장명환 △안전정책실 비상대비민방위정책관실 비상대비훈련과장 이상대 △안전정책실 비상대비민방위정책관실 민방위과장 성기석 △안전정책실 비상대비민방위정책관실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장 정안식 △재난관리실 재난예방정책관실 예방총괄과장 김중열 △재난관리실 재난예방정책관실 재난경감과장 홍경우 △재난관리실 재난예방정책관실 기후변화대책과장 정근영 △재난관리실 재난예방정책관실 지진방재과장 한상만 △재난관리실 재난대응정책관실 자연재난대응과장 이상권 △재난관리실 재난대응정책관실 사회재난대응과장 전만권 △재난관리실 재난대응정책관실 재난자원관리과장 홍순철 △재난관리실 재난대응정책관실 재난정보통신과장 심진홍 △재난관리실 재난복구정책관실 복구총괄과장 최규봉 △재난관리실 재난복구정책관실 재난구호과장 황선업 △재난관리실 재난복구정책관실 재난복구정책관실 재난보험과장 전담직무대리 박종윤 △특수재난실 특수재난지원관실 담당관 조종묵 △특수재난실 민관합동지원관실 담당관 박일웅 △특수재난실 조사분석관실 담당관 곽진욱

◆법제처 ◇과장급 전보 △법제지원단 법제교류협력팀장 김효선

부음

▲고승욱(국민일보 온라인뉴스부장)·승임·승자·승민·승경씨 부친상, 김승호(전 한국석유공사 비서실장), 강익수(천안북일고 교장), 조태선(캐나다 거주), 김용태(한국GM PT연구소 부장)씨 장인상 = 20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발인 23일 오전 8시, 02-2072-2091

▲김주헌(현대자동차)·옥선·귀선·연숙·현옥(교사)·영욱(교사)씨 부친상, 이석호(청호나이스㈜ 대표이사 사장)·이상구(SK에너지)·박성조(CJ㈜ 제일제당 부사장)·최동진(㈜동양 건설부문 대표)·오세탁(울산엔지니어링) 장인상 = 20일 오후. 울산시 남구 여천동 1200-9 울산영락원 301호, 발인 22일 오전, 052-256-6896

▲이원준(프로축구 FC서울 스카우터)씨 장인상 = 20일, 부산시 북구 낙동대로 1596 한중프라임 장례식장 302호, 발인 22일, 장지 부산 영락공원, 051-305-4000

▲최재영(기획재정부 국장)·영준(부산 다대고등학교 운영과장)씨 모친상, 이원기(누리엔지니어링 상무)씨 장모상, 고우경(한신대 교수)씨 시모상 = 19일 오후 11시,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22일 오전, 02-2258-5940

▲이상돈(중앙대 명예교수)·상복(뉴질랜드 거주)·상열(사업, LA거주)·상기(연세GD치대원장)씨 모친상, 이삼(뉴질랜드 거주)씨 장모상 = 20일 오전 10시 30분, 분당 서울대병원, 발인 22일 오전, 031-787-1506

▲이영덕(부산상공회의소 조사연구팀 부장)씨 모친상 = 20일 오전, 부산시 부산진구 범천동 시민장례식장 201호, 발인 22일 오전 9시, 010-5064-4275



창조의 열정, 아름다운 상상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는 2014년 광고대상 영예의 종합대상 수상작으로 삼성의 '오천만의 약속'을 선정했습니다. 브랜드 대상에는 SK텔레콤의 '성숙의 나무' 크리에이티브대상에는 SK(주)의 '대한민국 선수 여러분 고맙습니다' 기업 PR대상에는 SK이노베이션의 '과거, 현재, 미래' 소비자만족 대상에는 SK브로드밴드의 'B home CCTV'우수브랜드상에는 한국투자증권의 '고객을 위한 원칙과 고집'이 뽑혔습니다. 또 금상은 금호건설, 은상 코웨이, 동상은 두산그룹이 각각 차지했습니다. 이와 함께 자동차·은행·카드·식음료·화장품·기업PR 등 7개 부문에 걸쳐 부문별 최우수상으로 기아자동차, KB국민은행, 신한카드, 롯데칠성음료, 아모레퍼시픽, 동부그룹 등을 선정해습니다.

이투데이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단을 구성, 올해 만들어진 수많은 광고 작품을 대상으로 엄정한 심사를 진행해 16점의 수상작을 결정했습니다. 이투데이 광고대상에 참여해주신 광고주와 광고인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수상자 여러분께는 축하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2014 이투데이 광고대상

	상명	업체	작품명
본상	종합 대상	삼성그룹	오천만의 약속
	브랜드 대상	SK텔레콤	성숙의 나무
	크리에이티브 대상	SK㈜	대한민국 선수 여러분 고맙습니다
	기업 PR 대상	SK이노베이션	과거, 현재, 미래
	소비자만족 대상	SK브로드밴드	B home CCTV
	우수브랜드상	한국투자증권	고객을 위한 원칙과 고집
	금상	금호건설	건설은 패션이다
	은상	코웨이	물쉼표 시간
	동상	두산그룹	사람이 미래다
부문별 최우수상	자동차	기아자동차	쏘렌토
	은행	KB국민은행	기업의 성공스토리를 이어갑니다
	카드	신한카드	Code 9
	식음료	롯데칠성음료	맑고 깨끗한 청춘은 별이다
	화장품	아모레퍼시픽	헤라 옴므 에센스 인스킨
	기업 PR	동부그룹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금융
	공공서비스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 절전

생활속 정보와 공공성 주목

심사평



성 동 규
중앙대신문방송학부 교수

중국경제의 급팽창과 삼성전자·현대자동차로 상징되는 한국 대표 기업의 수익성 급락 등 2014년의 한국경제는 북풍한설(北風寒雪)에 휩싸여 있다. 한류 열풍으로 관광객이 급증하고 관련 산업들도 덩달아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고 청년들의 취업난 가중, 복지예산의 급증으로 인한 정부의 재정위기 등 도처에 위기감이 높아만 가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의 불안은 광고에 의존하고 있는 언론시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신문과 방송 등 전통적인 미디어 시장은 갈수록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상대적으로 광고 수입이 높은 KBS 등 지상파 방송사들마저 올해 수백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고 한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투데이는 2011년부터 광고대상을 시작하여 올해도 이를 지속해 감으로써 광고인들에게 창작 의욕을 고취시키고, 독자들에게 광고의 의미를 제고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깊은 환영과 감사의 말을 전한다.

다양한 스마트 미디어가 쏟아져 나와도 결국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양질의 정보가 중요한데 신문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정보매체이다. 그런 점에서 어려운 경제 여건이지만 기업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광고를 통하여 신문매체의 마중물이 되어 주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의 광고대상 심사 기준은 원칙으로 돌아가 생활에 유익한 정보와 마케팅, 광고의 기여도와 공공성을 담은 작품을 선정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광고대상의 대상은 이를 가장 종합적으로 표현한 삼성그룹의 '오천만의 약속'이 차지했다. 삼성의 대표적 브랜드인 갤럭시 노트폰과 아시안게임이라는 국가적 스포츠 이벤트를 묶어 낸다는 상징성을 잘 표현한 작품이다. 브랜드대상은 SK텔레콤의 '성숙의 나무'를 선정하였다. 한국의 ICT를 선도하고 있는 SK텔레콤이 이를 기반으로 국가경제를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매우 함축적으로 시각화한 작품이다. 크리에이티브대상은 SK(주)의 '대한민국 선수 여러분 고맙습니다' 광고다. 이 작품은 세월호 사건 등으로 우울한 분위기 속에 희망을 준 아시안 게임의 대한민국 선수단을 통해 기업의 의지를 잘 담았다고 평가되었다. 기업PR대상은 SK이노베이션의 '과거, 현재, 미래'가 결정되었다. 기업의 사업 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카피로 훌륭히 메시지를 표현하였다.

앞으로도 이투데이의 광고대상이 좋은 광고 작품을 선정하여 광고주 및 광고제작 종사자들에게 힘을 실어줄 뿐만 아니라 광고산업의 활성화에 많은 공헌을 하기를 기대한다.

대상

삼성그룹

오천만 국민 마음 담아… AG 선전 기원



올해는 다 함께 힘을 모아 오랫동안 준비하던 '2014 인천아시안게임'이 열린 뜻깊은 해였습니다. 삼성 역시 2014 인천아시안게임의 메인 스폰서로서 많은 사람이 대회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데 보탬이 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번 광고는 2014 인천아시안게임의 열기를 함께 나누고 응원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그리고 아시안게임을 기회로 대한민국이 하나 돼 좋은 에너지를 만들고 더욱 발전해 나가길 기원하는 바람을 담고자 했습니다.

표현하는 방법도 기존의 스포츠 이벤트 응원 광고와 달리 새롭게 접근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휴대폰 속 스케줄러 안에 2014 인천아시안게임 기간의 뜨거운 응원 열기를 표현해 5000만 국민이 기다리던 아시안게임이 시작됨을 알리고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아시안게임이 신선한 활력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또한 '오천만이 하나가 될 약속의 시간이 시작됩니다'라는 카피를 통해, 하나 되어 2014 인천아시안게임의 성공적인 개최와 대한민국 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하는 5000만 국민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이번 수상은 우리 모두가 함께 준비한 2014 인천 아시안게임을 많은 사람과 함께 즐기고자 한 기획 의도를 좋게 보아주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삼성은 본상의 의미를 잊지 않고 대한민국의 국가적 이벤트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더 많은 보탬이 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이 준
삼성 미래전략실 커뮤니케이션 팀장

마지막으로 오랜 시간 땀과 눈물로 2014 인천 아시안게임을 준비하고, 최고의 기량을 보여준 대한민국 선수단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

브랜드대상

SK텔레콤

ICT코리아… '빠른' 넘어 '바른' 가치 전달



SK텔레콤은 지난 5월 창사 30주년을 맞아 미래 30년 성장축이 될 'ICT노믹스' 추진 방향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는 ICT가 생산과 소비뿐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혁명적 변화의 촉매로 작용해 모든 산업이 서로 연결되고 재융합해 혁신이 끊임없이 창출되는 시대를 말합니다. 이에 따라 의식주와 건강, 교통 등 일상생활에서도 기존에 없던 새로운 가치가 창출되고 새로운 생활방식이 등장하게 됩니다.

SK텔레콤은 ICT노믹스 시대를 맞이해 세계 최고의 모바일 네트워크 인프라와 연구개발 역량을 기반으로 향후 'ICT 코리아'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ICT노믹스의 가치를 누구나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맹목적 성장을 위한 기술의 발전보다는 우리 사회 전체를 위한 기술 발전, 즉 더 빠른 변화를 넘어 더 나은 방향으로의 변화가 ICT노믹스 시대에 진정으로 필요한 변화라 믿기 때문입니다.



윤용철
SK텔레콤 PR실장

SK텔레콤의 2014년 기업광고 캠페인은 이러한 ICT노믹스 시대를 맞이하여 SK텔레콤이 지향하는 바른 변화의 가치를 표현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산업혁명 이후 대량 생산과 소비를 기반으로 더 빠른 경제 발전을 추구해왔던 속도 중심의 변화 대신, 올바른 방향에 대해 이야기함으로써 현대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게 무엇인지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이번에 수상한 'ICT노믹스 성숙의 나무' 편은 "성장을 넘어 성숙을 이야기합니다"라는 메시지를 통해 '빠른'을 넘어 '바른'이라는 SK텔레콤의 지향 가치를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서로 손을 뻗는 아이들의 이미지를 통해 성숙은 함께 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쉽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과거·현재·미래… 에너지개발 의미 전달

기업 PR대상

SK이노베이션





이항수
SK이노베이션 홍보실장

기업PR 대상 수상작인 '과거, 현재, 미래' 편에는 SK이노베이션의 수많은 혁신과 그 혁신의 결과물들을 담아내고 싶었습니다. 1억년 전 과거 에너지인 석유부터, 전기차 배터리,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 등 미래 에너지까지, 과거·현재·미래의 에너지를 끊없이 개발하고 있는 SK이노베이션의 혁신을 보여줍니다.

이번 캠페인을 제작하면서 고민 중 하나는 혁신, 에너지 등 자칫 어려울 수 있는 이야기를 어떻게 전달해야 대중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고회사와 함께 오랜 시간 고민을 거쳤고, TV CF에서는 선생님과 아이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는 듯한 밝고 경쾌한 내레이션 화법과 흰 여백 속 다채로운 시각물을 사용해 광고의 이해도와 친숙도를 높였습니다.

인쇄광고에도 위와 같은 장치들을 적용했고 석유, 배터리, 그린에너지 등 주요 혁신의 단어를 선으로 연결해 과거부터 미래까지 혁신에 혁신을 이어간다는 슬로건의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감사하게도 많은 분께서 '과거, 현재, 미래' 편을 큰 어려움 없이 받아들여 주셨고 좋은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아마도 SK이노베이션이 대중들에게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한 것 같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2011년부터 '생각이 에너지다', '물음이 있는 곳에 이노베이션이 있다 ASK Innovation'등 '혁신'을 기반으로 한 이야기를 담은 광고를 잇달아 선보여 주목받았습니다.

SK이노베이션의 2014년 슬로건은 '혁신을 혁신하다'입니다. 이 슬로건은 기존의 혁신에 안주하지 않는, 끊임없이 혁신을 거듭한다는 SK이노베이션의 태도가 담겨있습니다.

이처럼 SK이노베이션은 앞으로도 고정관념을 깨는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광고를 통해 대중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기업이 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겨주신 점 감사합니다.

다시 쓰는 '우생순'처럼… 국민에 희망 전파

크리에이티브대상

SK(주)





노찬규
SK(주) 상무

12년 만에 다시 우리나라에서 아시안게임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경제, 사회적 분위기 등으로 인해 국민의 관심과 열기가 예전만큼 못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선수들이 인천에서 하나, 둘 써내려 간 보름 동안의 각본 없는 드라마는 우리 국민에게 기쁨과 감동, 그리고 희망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우리 선수들이 주인공인 드라마에 SK도 든든한 후원자로 함께 했습니다. 17개 메달로 역대 최고의 성적을 거둔 펜싱과 데뷔 무대를 성공적으로 장식한 수영 꿈나무 이다린 선수, 그리고 매번 '우생순'을 다시 쓰는 남녀 핸드볼 선수들까지. SK가 길게는 10여년 이상 후원해 온 종목의 선수 모두가 이번 드라마의 주인공들이었습니다.

우리 선수들이 만들어준 감동의 드라마를 지면에 담아내는 것은 생각보다 힘든 작업이었습니다. 시의 적절한 광고 집행을 위해 대회 종료 직후인 월요일(10월 6일)에 지면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남녀 핸드볼 결승전이 대회 막바지에 편성돼 있어 예상 가능한 모든 결과를 가정하고 광고(안)를 여러 방향으로 준비했습니다. 마지막 경기, 남자 대표팀이 금메달은 아쉽게 놓쳤지만 그동안 선수들이 흘린 땀방울이 우리에게 선사한 감동을 광고로 표현하는 데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마지막 출고 순간까지 더 좋은 이미지를 찾기 위해, 우리 선수들에게 더 큰 고마움을 표현하려고 고심을 했고 그 결과 우리에게 행복한 가을을 안겨준 순간들을 잘 담아낼 수 있었습니다. 광고 제작에 도움을 주신 협회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SK는 앞으로도 우리 선수들이 끝없는 열정과 패기로 더 감동적인 드라마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변함없이 '든든한 조력자'로 함께 하겠습니다. '크리에이티브 대상' 수상이라는 영광을 주신 이투데이 독자 여러분과 관계자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젊은 청년에게
두산이 하고 싶은
열두번째이야기

누구나 아이디어는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창의적이라는 말을 듣진 않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새로운 시도를 망설이기 때문이죠

창의적인 사람은
아이디어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실패의 공포를 이겨내고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미래다 DOOSAN


라이트형제의 첫 비행 장소

"집 비워도 안심" 첨단생활 이미지 심어

소비자만족대상

SK브로드밴드





유창완
SK브로드밴드 본부장

SK브로드밴드는 고객의 행복한 삶과 컨버전스 시대의 무한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SK브로드밴드는 새로운 유선 대표 브랜드 'B'를 앞세워 유선 서비스 경쟁력 및 SK텔레콤 'T'와의 시너지 강화에 매진해 왔습니다. 이를 위해 고객들이 긍정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차별화된 '고객케어 프로그램'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B home CCTV 상품은 집 밖에서도 스마트폰을 통해 집안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긴급 상황 발생시 보안업체 지원까지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집을 자주 비우거나 반려동물을 집 밖에서 보고 싶은 고객에게 꼭 맞는 상품입니다.

이에 따라 SK브로드밴드의 B home CCTV 광고는 그만의 차별적인 혜택을 전달하기 위해 '그냥 홈 CCTV에 B하면(비하면)'이라는 카피 메시지로 자사 브랜드 'B'를 강조했습니다. 또 기존 제품 대비 향상된 서비스를 자신감 있게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소비자들에게 친숙한 일러스트레이션 기법을 활용해 사용 상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려 노력했습니다.

"함께하는 믿음직한 친구"… 진정성 담아

우수브랜드상

한국투자증권





이희주
한국투자증권 상무

한국투자증권의 금융철학은 '고객을 위한 원칙과 고집'을 지켜가며, '고객 자산증식의 진정한 동반자'로서 고객과 회사가 함께 성공하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을 바탕으로 저희는 언제나 '원칙을 지키는 투자', '성공하는 투자'를 통해 고객의 신뢰와 믿음에 보답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마음과 소통한다는 것은 무엇보다 '진정성'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화려한 포장보다는 내실을 바탕으로 한 진실된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만이 장기적으로 한국투자증권과 고객과의 든든한 연결고리가 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고객의 소중한 자산 하나 하나에 담겨있는 열망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자산을 함께 키워가는 믿음직한 친구'의 모습으로 항상 고객님들 곁으로 다가가겠습니다.

모두들 금융환경이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 어려움 속에서 희망을 봅니다. 'trueFriend 한국투자증권'은 언제나 고객들의 마음속에서, 그리고 나아가 우리나라 금융의 자랑스러운 브랜드로 성장해 나아갈 것이라 확신합니다. '고객의 마음에서 배우고, 늘 고객의 좋은 친구'가 되겠습니다.

"건설은 패션" 낙후된 거리에 열정 입혀

금상

금호건설



'건설은 패션이다' 캠페인이 올해로 벌써 7년차를 맞았다.

금호건설이 가진 다양하면서도 유니크하고 변화를 꿈꾸는 모습이 패션이 가진 그것과 닮아 있음에서 착안해 분양광고와 톱스타 연예인으로만 기억되던 기존 건설회사 광고의 틀을 깨고 파격적인 콘셉트와 소재를 활용한 새로운 시도였다.

캠페인 초기에는 카피만 앞세운 전형적인 과대광고가 아닌가 하는 우려의 시선들도 적지 않았지만 '울림'의 느낌을 표현한 복합문화관 '크링', 외관에 아름다운 곡선을 담아낸 '아부다비 관제탑', 파격적인 외관LED의 아시아나 그룹 메인 타워, 주거와 비즈니스의 조화를 추구한 '갤러리303' 등 금호건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하면서도 동시에 유니크한 표정을 통해 건설이 기존 이미지를 탈피해서 실제로 패션과도 같은 느낌을 줄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던 작업이었다.

특히 이번 '건설은 패션이다' 7차 캠페인은 낙후된 지역 공간을 아름다운 벽화 거리로 탈바꿈시키고자 금호건설이 진행하고 있는 사회공헌 프로젝트 '빛 그린 어울림 거리'를 모티브로 삼았다. 어둡고 쓸쓸했던 거리가 대학생 봉사자들의 벽화를 통해 환하고 아름다워지는 모습이 마치 헌 옷을 벗고 새 옷으로 갈아 입는 것과 같다는 아이디어를 벽화 속 해바라기가 모델의 드레스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모습으로 표현했다.

이번 7차 캠페인 제작 당시 '빛 그린 어울림 벽화 프로젝트'는 홍제동 개미마을과 서울 금천초등학교, 두 군데만 진행됐으나 지금은 이태원거리까지 총 3곳이 진행되었다.

앞으로도 '건설은 패션이다' 슬로건처럼 금호건설의 남다른 열정으로 더 많은 낙후된 거리가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기를 기원해본다.



조만석
상암커뮤니케이션즈 상무

영유아 건강한 물마시기 습관 평생 가게

은상

코웨이



코웨이 물성장2 '물쉼표 프로젝트' 캠페인이 2014년 광고대상 작품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코웨이는 압도적 시장점유율 달성과 고객만족도 1위 기업으로서, 코웨이만이 할 수 있는 사회적인 역할·기업철학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항상 고민해 왔습니다. 물과 공기, 생명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자 사회에 건강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화두 제시를 통해 고객 여러분과 소통코자 했습니다.

그 소통의 첫 번째 방법은 2013년 물 대신 기타음료를 즐겨 마시는 10대 청소년들의 물 마시기 습관을 개선하려는 목적으로 진행된 '아이들에게 깨끗한 물을 마시게 하자' 캠페인으로, 많은 공감과 반응을 얻었습니다.

이에 코웨이는 올해도 그 취지를 이어가면서 조금 더 근본적인 개선책을 도출코자 물 마시기 습관이 형성되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물성장 시즌2 성격인 '물쉼표 프로젝트'를 기획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깨끗한 물을 마시면서 얻는 변화를 통해 평생 지니게 될 건강한 물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하고, '물 마시는 일이 세상 가장 즐거운 놀이'가 되도록 실천 솔루션까지 제공하는 것이 캠페인의 핵심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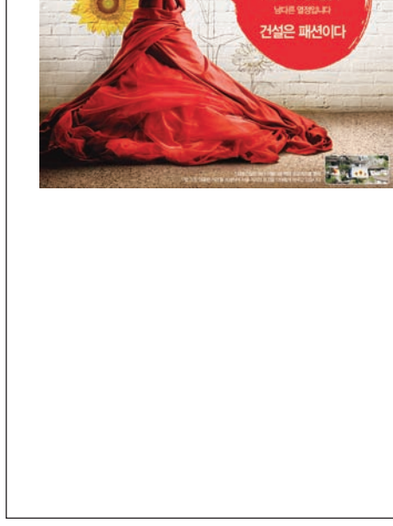
코웨이는 영유아가 하루에 가장 오랜 시간을 머무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루 두 번, 건강한 물습관을 기르는 브레이크, 물쉼표 시간'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교사와 영유아들이 직접 활용할 수 있는 물쉼표 키트를 제작해 이슈레이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실천 프로그램 및 완성도 높은 툴까지 제공함으로써 그 정교함과 진정성에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올해 코웨이는 전국 1000여개 영유아 교육기관과 물쉼표 프로젝트의 첫 걸음을 뗐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의 대표 활동으로 육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웨이는 단순히 업계 1위라는 기업 규모에 따른 호칭이 아니라 더 나은 사회를 위해 꼭 필요한 착한 기업, '생명에 대한 책임을 실천하는 기업'으로 생활환경 전반에서 고객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이디어가 혁신으로…'미래 인재' 격려

동상

두산그룹



먼저 저희 두산그룹 '사람이 미래다' 캠페인이 이투데이 광고대상 동상을 수상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산의 '사람이 미래다' 캠페인은 2009년 시작돼 올해로 6년째를 맞았습니다.

'사람이 미래다' 캠페인의 열두번째 이야기인 '창의적인 사람' 편은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도 그것이 현실의 변화로 이어지려면 실패에 대한 공포를 극복하고 도전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보통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을 창의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혁신을 이끌어 가는 주체는 단순히 아이디어만 많은 사람이 아니라 '실패의 공포를 이겨내고 도전하는 사람'인 것처럼 직원들의 좋은 아이디어가 혁신으로 이어지기 위한 두산의 생각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기업 PR 광고에 대한 여러 조사에서 '사람이 미래다' 캠페인은 대학생들이 가장 좋아하고 기대하는 기업 광고로 평가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두산은 '사람이 미래다' 캠페인을 통해 젊은이들과 소통하며 '사람'을 중시하고 '인재'를 키워야 한다는 생각을 함께해 나갈 것입니다.



최재준
두산그룹 상무

'올 뉴 쏘렌토' 강한 남자의 존재감 어필

자동차

기아자동차



먼저 뜻깊은 수상의 영광을 주신 심사위원과 이투데이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항상 이투데이와 기아자동차에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8월에 출시된 '올 뉴 쏘렌토'는 강인하고 당당한 SUV다운 면모와 차별화된 인테리어 감성품질, 그리고 동급 최대 공간과 첨단 사양까지 갖춘, 기존의 중형 SUV보다 한 수 위의 SUV로 탄생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남자들은 어떤 존재로 살고 있을까요?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전문가로서, 따르고 싶은 선배로서, 가족들에겐 따뜻한 아빠로서의 존재일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역할 속에서 자신만의 존재감을 드러내며 살아 가고 있는 이 시대의 남자들은 강인하고 당당한 이미지의 쏘렌토와 닮아 있습니다.

올 뉴 쏘렌토는 이러한 대한민국 남자를 이해하는 SUV로서, 그들의 당당한 존재감을 대변하고, 이를 북돋아주는 방향으로 전체 캠페인을 기획했습니다. 앞으로도 쏘렌토는 고객과 소통하는 SUV로서 고객의 이야기에 귀 기울기고, 고객과 공감하는 브랜드가 되기 위한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조용원
기아자동차 상무



유망주를 봅니다
사람을 봅니다

당신에게서 작지만 큰 시작을 봅니다
기회를 만드는 도전을 봅니다
변화를 만드는 가능성을 봅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큰 당신을 봅니다

사람의 가치를 맨 앞에 두는 투자
한국투자증권이 제시하는 새로운 원칙과 고집입니다

고객의 믿음에 최고의 서비스로 보답하겠습니다

2013 상반기 매일경제 리서치센터 평가 종합 1위 (2013.7.7)
2013 상반기 한국경제 리서치센터 평가 종합 1위 (2013.7.12)
2013 금융소비자보호 대상 금융감독원장상 수상 한국경제신문 (2013.9.24)
2013 한국경영인협회 가장 신뢰받는 기업 선정 2010,2011,2013년 3회 선정(2013.9.27)

true friend 한국투자증권

SK broadband

그냥
홈 CCTV에 B하면
출동서비스까지 되니까
안심!

CCTV
리모컨
말하기
소리듣기
경보음
긴급통화
화면캡쳐
동영상 녹화

홈 모니터링은 기본, NSOK출동서비스까지!

※ NSOK 긴급출동 서비스는 선택형 Package 상품입니다 ※ 월 9천원(단말 할부금 6천원+서비스이용료 3천원)

긴급출동 서비스 | 양방향 음성 전송 | 리모컨 기능 | 카메라 원격 제어 | 움직임 감지 기능 | 움직임 감지 영역설정
실시간 모니터링 | HD 영상 | 적외선 촬영 모드 | WiFi 무선 연결 | 클라우드 관리 | 암호화로 보안성 강화

B home CCTV



좌우 345도
상하 110도 회전 가능

가입문의 106 | www.skbroadband.com | 가까운 T world 대리점

중견·中企 맞춤형 '성공스토리' 모아

은행

KB국민은행



먼저 뜻 깊은 수상의 영광을 안겨준 이투데이 광고대상 관계자 여러분 및 독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KB국민은행은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기업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당면문제에 대한 맞춤식 솔루션을 제시해 주는 'KB Wise 컨설팅', 우량 중소·중견기업을 발굴해 지속 성장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KB Hidden Star 500' 등이 대표적입니다.

KB국민은행 기업금융 서비스의 특징은 바로 '고객 맞춤형 솔루션'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고객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 실질적 도움이 되어 드리고자 하는 KB국민은행의 서비스 철학이 반영된 것입니다. 이번 광고에서도 이러한 '고객지향적' 이미지가 잘 표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기업들의 성공에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적의 금융솔루션을 제공하겠다는 '든든한 지원자'의 개념을 '고객의 성공스토리를 이어갑니다'라는 카피로 표현하였고, 기업과 CEO를 상징하는 인물들을 명함 형식에 담아 열정적으로 일하며 세계로 뻗어나가는 기업 고객들의 모습과 그러한 고객들의 성공 릴레이에 함께하고자 하는 KB국민은행의 의지를 전달하였습니다.

톡쏘는 탄산처럼 도전하는 청춘 응원

식음료

롯데칠성음료



우선 칠성사이다를 아낌없이 사랑해 주신 소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또한 칠성사이다 브랜드를 높이 평가해 '2014 이투데이 광고대상'을 주신 이투데이 임직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칠성사이다는 6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국내 탄산음료 시장을 이끌고 있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음료 브랜드입니다. 칠성사이다 고유의 맛과 향이 만들어내는 청량감과, '맑고 깨끗한' 칠성사이다만의 브랜드 이미지가 대한민국 남녀노소 모든 소비자로부터 사랑받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칠성사이다는 기존의 '맑고 깨끗한' 브랜드 이미지를 기반으로 '청춘'을 이야기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업과 취업, 성공을 위하여 늘 정진하는 대한민국 청춘은 열정과 용기를 가지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또한 지니고 있습니다. '맑고 깨끗한 청춘은 별이다'라는 카피는 힘든 현실 앞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는 대한민국 청춘을 응원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메시지입니다.

담벽에 맞닿아도 포기하지 않고 이를 타고 오르는 담쟁이와 같이 어려움에 포기하지 않는 용기 있는 대한민국의 맑고 깨끗한 청춘을 응원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카드

신한카드

9가지 코드 달라진 삶을 컬러로 대비





위성호
신한카드 사장

먼저 신한카드에 이런 뜻 깊은 상을 주신 이투데이 관계자 및 심사위원단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한결같이 아낌없는 사랑을 보내 주시는 고객님들과 수상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신한카드는 2200만 국내 최대 고객 기반을 확보하고 있는 시장 점유율 1위 카드사로서 고객 가치 1등을 달성하기 위해 상품, 서비스, 마케팅 등 모든 업무 프로세스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2200만 고객의 삶의 단계나 취향의 변화에 코드를 맞춰 새로운 카드상품, 서비스, 마케팅을 제공해 나가는 코드나인(Code9) 시리즈는 실험적 도전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수상을 통해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 크게 다가옵니다.

1차 코드나인 론칭 광고는 빅데이터의 입체적 분석을 통해 도출된 남녀 각 9가지 코드에 맞는 서비스의 제공으로 변화되는 고객의 삶을 흑백과 컬러라는 대비 구조를 통해 표현했고 후속 광고를 통해 고객 한분 한분을 위한 다채로운 서비스를 쟁반이라는 오브제 위에 형상화해 2200만 고객의 그레이트한 삶을 위해 노력하는 신한카드의 정신을 표현했던 점이 주효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신한카드는 젊은 고객층에게 다가가기 위해 심플하면서도 색다른 분위기로 광고를 구성한 것에 좋은 평가를 해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화장품

아모레퍼시픽

남성이 선망하는 라이프스타일 표현





이희복
아모레퍼시픽 홍보팀 상무

먼저 국내 대표 럭셔리 브랜드 아모레퍼시픽 헤라 옴므의 에센스인스킨에 광고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겨 주신 점,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헤라옴므는 세련되고 당당한 모습으로 동시대의 트렌드를 리드하고 자신의 라이프를 즐기는, 현대의 프로페셔널한 남성을 대변하는 프레스티지 남성화장품 브랜드로서, 국내 그루밍 열풍을 선도해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수상한 헤라옴므 에센스인스킨은 헤라의 셀-바이오 과학으로 탄생한 '맨즈앱셀'이 들어간 에센스를 담은 기능성 스킨으로 남성 고객들의 피부에 에너지와 활력을 주는 고기능성 제품입니다.

백화점 남성 고객들의 구매 패턴을 보았을 때 여전히 일부 소비자들은 외산 브랜드에 대한 막연한 선망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번 캠페인에서 중요한 것은 백화점 남성 고객 사이에서도 헤라옴므가 선망의 대상이 되도록 하는 커뮤니케이션 전략이었습니다.

'남자가 봐도 멋진 남자는 그만의 에센스를 가진 남자'라는 남성들의 선망의 인사이트를 연결한 키메시지를 중심으로 남자들이 선망하는 타깃의 라이프스타일을 담은 비주얼을 활용해 브랜드와 제품에 대한 호감을 높였습니다. 이를 통해 결과적으로 헤라옴므가 남성들에게 선망받는 브랜드로 한 걸음 더 어필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기업PR

동부그룹

내 이야기같은 삶, 순간의 감동 전달





황태웅
(주)동부 브랜드팀 부장

'동부금융네트워크'는 동부화재, 동부생명, 동부증권, 동부자산운용, 동부저축은행, 동부캐피탈 총 6개의 동부그룹 금융 계열사가 네트워크화된 통합 브랜드입니다.

동부금융네트워크 광고는 일관성을 유지해 항상 곁에 있는 친구 같은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동부의 금융 6개사가 고객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하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고객의 가장 행복한 순간을 담아내고 있는 사진을 광고의 비주얼로 활용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모든 아빠, 엄마 곁에 동부금융이 있습니다'라는 보디 카피를 통해 '아빠 엄마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이해하고 함께하는 금융기업'이라는 인간적이고 따뜻한 브랜드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동부금융네트워크의 광고는 고객 누구나 인생에서 경험할 수 있는 삶의 순간을 소재로, 광고의 장면을 보는 고객이 마치 나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동부금융네트워크 광고 캠페인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이해하고 고객의 미래를 함께하고자 하는 금융전문 기업이라는 브랜드 정체성을 일관되게 전달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동부금융 고유의 인간적이고 따뜻한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표현할 예정입니다. 나아가 브랜드 콘셉트에 기반한 6개 금융 계열사의 차별적이고 우수한 금융서비스를 제안해 고객의 실질적인 금융서비스의 향상에도 기여해 나갈 것입니다.



재테크 1순위서 애물단지 전락한 '자문형 랩'

32개 중 21개 수익률 마이너스
유리·대신·레오 등 -12%까지
올해 누적손실 커 회복세 더뎌
한화자산운용·쿼드는 호성적



소수 압축형, 공격적 투자 스타일로 주목받아 온 자문형 랩이 올 들어 코스피 벤치마크를 하회하며 체면을 구기고 있다.

고액 자산가들의 재테크 1순위에서 그야말로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21일 자문형 랩을 판매 중인 A증권사의 내부 자료에 따르면, 연초 기준 판매 중인 32개의 자문형랩 중 무려 21개가 마이너스 성과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동기간 벤치마크인 코스피(-2.33)를 하회한 금융사는 유리자산운용(-12.94%), 대신자산운용(-12.89%), 레오(-12.38%), KTB(-10.95%), 케이클라비스(-10.05%), 알바트로스(-6.47%), 브레인(-5.76%), 프렌드(-5.73%) 등이다(기준일: 2014.10.31.).

이달 들어 수익률을 다소 회복하는 모습이지만 연초 이후 누적 수익률은 저조하다. 이 가운데 지난해 구재상 전 미래에셋운용 부회장이 설립해 주목받았던 케이클라비스투자자문이 A증권사에서 운용을 시작한 자문형 랩은 설정 이후 수익률이 -9.34%에 이른다.

운용사로 전환한 자문형 랩 강자 출신 브레인자산운용도 박스권 장세에서 손실이 두드러졌다. 베스트 펀드매니저로 정평났던 서재형 대표가 이끄는 대신자산운용의 자문형 랩도 상황이 안 좋기는 마찬가지.

반면 선제적 대응으로 동기간 자문형 랩 운용에서 눈부신 성과를 기록한 곳들도 눈에 띈다. 한화자산운용(24.30%), 쿼드(13.33%), 템피스(3.52%) 등은 동기간 벤치마크를 상회해 양호한 수익률을 기록했다.

현재 한화자산운용은 웅진씽크빅, 신세계인터내셔날, 흥아해운 등을 포트폴리오에 편입 중이다. 실제 주요 편입 종목으로는 △해운업종 내에서 대형사 철수에 따른 견조한 소형 컨테이너선 시황 및 신규선대 도입에 따른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종목 △중국 안경렌즈 소비 시장확대와 이에 따른 신규설비 가동률 확대가 기대되는 종목 △중소형 지주사로 NAV 대비 가치가 크게 하락 되어 있던 종목 등의 비중이 포트폴리오에서 30% 이상을 차지한다.

한화자산운용 관계자는 "현 시황에서는 향후 지속적 성장이 기대되는 종목과 중소형주 중 시장의 무관심으로 NAV 대비 현저히 저평가돼 있던 종목에 대한 비중 확대가 긍정적 효과를 주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네이버, CJ E&M 등 인터넷 미디어 업종과 메디톡스, SK케미칼 등 제약, 바이오업종과 화장품업종 등을 핵심 포트폴리오로 삼았던 쿼드자산운용은 앞으로 저평가됐던 조선 및 화학 일부 대형주에도 관심을 기울일 생각이다.

금투업계 관계자는 "불과 1~2년 전까지만 해도 고액 자산가들의 재테크 1순위로 부각되며 뭉칫돈을 끌어모았던 자문형 랩이 최근 박스권 장세에서 옥석 가리기가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경아 기자 kakim@

'연기금 운용부실' 논란 금감원 실태 점검 나서

현대증권발 '연기금 운용부실' 논란이 금융투자업계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를 상대로 연기금 위탁자금 운용 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검사에 돌입한 것.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각각 3곳에 대한 검사에 착수, 연기금 위탁자산 운용의 적절성 여부를 살펴볼 계획이다. 검사 대상은 현대증권과 삼성증권, 우리투자증권, 삼성자산운용, 트러스트자산운용,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이다.

금감원 측은 연기금이 위탁한 일임운용과 신탁재산 등의 적절한 운용 여부가 주요 점검 대상인 만큼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가운데 연기금 위탁운용 자산 규모가 큰 상위 3곳을 먼저 살펴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사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달 3일까지 10영업일이다. 금감원은 기금 자산을 운용할 때 일임재산과 신탁재산, 고유재산 간 자전거래의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또한 연기금 등 투자자의 이익을 침해하면서 해당 회사나 제3자의 이익을 도모했는지 여부도 검사 대상이다.

실제로 올해 초 현대증권에서는 한 직원이 기금 운용과정에서 랩어카운트에 담긴 어음(CP) 등을 시장가보다 낮은 장부가격에 처분하면서 약 1억원의 기금수익을 유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선영 기자 moon@

액면가 5000원으로 환산하면… 네이버가 1위

〈7,870,000원〉

거래소, 환산주가 공표 서비스



초고가주 환산주가 기준 15위 현황

(11월 19일 종가 기준, 우선주 제외)

순위	종목명	환산주가(원)	액면가(원)	현재가(원)	등락율(%)	거래량(주)	시총(십억)
1	NAVER	7,870,000	500	787,000	4.4	97,952	25,942
2	SKC&C	5,662,500	200	226,500	-6.6	131,778	11,325
3	삼성SDS	3,710,000	500	371,000	13.3	1,919,248	28,707
4	현대글로비스	3,000,000	500	300,000	12.8	109,758	11,250
5	삼성화재	2,945,000	500	294,500	2.4	95,701	13,952
6	SK텔레콤	2,895,000	500	289,500	8.4	156,048	23,376
7	한전KPS	2,372,500	200	94,900	8.2	159,237	4,271
8	아모레퍼시픽	2,281,000	5,000	2,281,000	-0.8	23,692	13,334
9	쿠쿠전자	1,960,000	500	196,000	-10.7	47,309	1,921
10	롯데제과	1,960,000	5,000	1,960,000	2	1,162	2,786
11	엔씨소프트	1,705,000	500	170,500	16	323,117	3,739
12	롯데칠성	1,680,000	5,000	1,680,000	-1	2,936	2,079
13	한전기술	1,487,500	200	59,500	-8.5	91,218	2,274
14	영풍	1,255,000	5,000	1,255,000	5.4	978	2,312
15	삼성전자	1,218,000	5,000	1,218,000	-2.1	248,411	179,411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초고가주의 순위에 대한 체계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초고가주의 환산주가 공표 서비스를 홈페이지와 Checkexpert(코스콤)를 통해 제공한다고 21일 밝혔다.

거래소는 액면가 5000원을 기준으로 한 환산주가 공표를 통해 투자자에게 실질적인 초고가주 순위를 제공하기 위해 공표 화면을 개발했다.액면가 5000원을 기준으로 환산한 초고가주 1위는 네이버다.

한국거래소 홈페이지 게재, Checkexpert 화면 제공 및 보도참고자료(월간)를 배포할 계획이다. 홈페이지에서는 주식-순위정보 화면에 환산주가 상위 조회 화면이 오픈되고 Checkexpert에서는 Check에서 제공하는 종목시세 화면에 환산주가 테이블이 추가된다. 또한 매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환산주가 상위 30위를 공표한다.

거래소 측은 환산주가 공표 서비스로 투자자들이 실질적인 초고가주의 환산주가 순위를 정확하고 쉽게 인식하고 투자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보도참고자료는 이달부터 제공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와 Checkexpert는 내년 실시간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정유현 기자 yhssoo@

삼성SDS '시총 4위' 굳히기

3위 하이닉스와도 3조6000억 差

어제 39만8000원에 장 마감
해외자금 유입 땐 추가 상승

삼성SDS가 수급악화 국면에서 벗어나면서 유가증권시장 시총 4위 자리를 굳히고 있다. 해외투자금 유입 가능성이 확보되면서 향후 3위권까지 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삼성SDS는 20일 39만8000원을 기록했다. 상장 첫날인 지난 14일 공모가의 2배인 38만원에 형성된 시초가를 뛰어넘은 것이다. 상장 직후 시세차익 실현을 위한 매물이 쏟아지면서 13.82% 급락하기도 했지만 이후 상승세를 타며 장중 한때 40만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상장과 함께 시가총액 4위로 뛰어오른 만큼 향후 주가 추이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유가증권 시장의 시가총액 순위는 변화가 없지만 1위 삼성전자(178조2322억원)를 제외한 2~5위권 경쟁은 치열한 상황이다.

이날 현재 재계 2위 현대차는 시가총액 36조7862억원을 유지했다. 이어 SK하이닉스가 34조3981억원으로 3위, 삼성SDS는 30조7964억원으로 시총 4위에 이름을 올렸다. 시총 5위는 한국전력(29조810억원)이다.

시총 4위 삼성SDS는 3위 SK하이닉스와 총액 기준 3조6000억원 차이다. 한때 시총 차이가 5조원 규모였지만 순식간에 좁혔다.

현대차의 경우 한전부지 고가 매입과 엔저 영향을 받고 있다. SK하이닉스는 당장에 반도체 수급 문제와 악재 등에서 자유롭지만 점진적으로 삼성SDS와 격차가 줄어들고 있어 조만간 3위 자리를 내줄 것이라는 증권가 관측도 이어진다.

반면 삼성SDS는 세계적 주가지수인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지수에 조기 편입된다는 호재도 나왔다. MSCI는 정기 변경일인 이달 26일 삼성SDS를 MSCI 한국지수에 편입하기로 했다.

일반적으로 시장에 갓 나온 종목은 편입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삼성SDS는 상장 직후 시가총액 4로 직행한 만큼 MSCI 측은 당초 계획보다 일찍 한국지수 대상에 이 회사를 포함시켰다.

현재 삼성SDS의 외국인투자 비율은 1.2% 수준. 반면 회사가 MSCI한국지수에 편입되면 해외펀드의 매수세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약 5000억원의 해외 자금이 편입되면서 삼성SDS에 대한 외국인 투자 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준형 기자 junior@

FNC엔터 공모가 '2만8000원' 확정

상장으로 329억 조달… 기관투자자 수요예측 경쟁률 185대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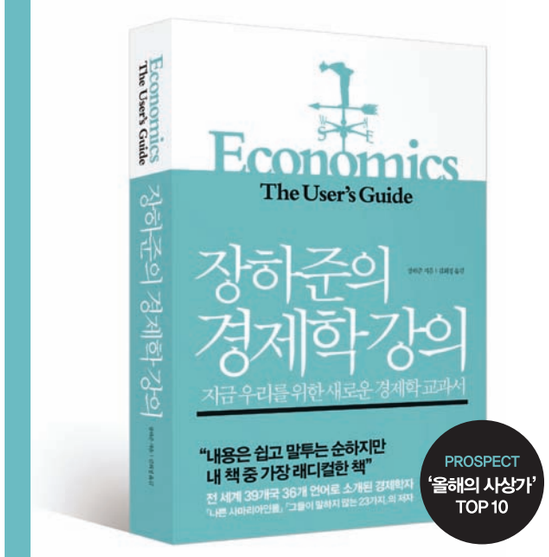
FNC엔터테인먼트는 지난 18~19일 양일간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한 결과 공모가가 28000원으로 확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상장으로 총 392억원을 조달하게 된 FNC엔터는 중화권 진출 강화, 드라마 자체 제작 자금 및 운영자금으로 해당 공모자금을 사용할 계획이다.

FNC엔터는 전체 공모 물량의 80%인 112만주에 대해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을 실시한 결과 18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상장 주관사인 유진투자증권 관계자에 따르면 자산운용사와 보험사를 비롯해 증권사 등 총 260개의 기관이 참여했다.

일반인 대상 청약은 전체 공모 물량의 20%인 28만주를 대상으로 오는 24~25일 양일간 진행된다. 대표 주관사인 유진투자증권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상장 예정일은 12월 4일이다.

FNC엔터는 국내 최대 아티스트 육성 아카데미를 기반으로 음악, 프로듀서, 연기자, 방송인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엔터테인먼트사다.

송영록 기자 syr@



모를 땐 어렵지만
알고 나면 별것 아닌 것이 있습니다.
자전거 타는 법, 스마트폰 사용법…

경제학도 그렇습니다.
처음 마주치는 약간의 어려움, 그것만 넘으면 됩니다.

나를 위한 경제학,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장하준 지음 | 김희정 옮김 | 16,800원



나를 위한 경제학을 시작할 시간
장하준의 경제학 강의

Stock premium
www.etoday.co.kr/stockpremium

재주 부린 '넥슨'… 뒤로 웃는 '한빛소프트'

신작 '트리 오브 세이비어' 기대작으로 부상하며 지분가치 상승

한빛소프트가 지분을 보유한 게임 개발업체가 넥슨과 공동 계약을 맺고 신작 게임을 서비스 한다. 이 게임은 국제게임쇼 '지스타2014'에서 2015년 최대 기대작으로 손꼽히고 있다. 이에 따라 게임이 흥행할 경우 한빛소프트의 지분가치도 시장의 주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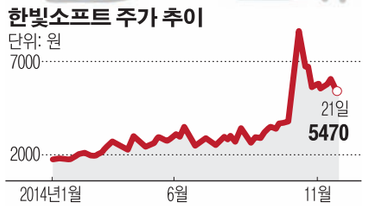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형게임업체 넥슨은 아이엠씨게임즈가 개발한 '트리 오브 세이비어'의 국내 판권을 획득하고 향후 마케팅 등 사업 전반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게임은 20일 개막한 지스타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다. 다양한 게임을 성공적으로 서비스하며 노하우를 쌓아온 넥슨과 손잡으며 흥행에 대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아이엠씨게임즈는 한빛소프트가 40%의 지분을 보유한 게임 개발업체다. 한빛소프트 설립자 김영만 회장이 김학규 대표의 가능성을 믿고 투자해 2003년 10월 31일 40%의 지분을 취득, 계열사로 편입시켰다.

이 회사는 '원조 게임 한류'라 불리며 전세계 누적매출 1억원 이상을 벌어들인 인기 온라인 게임 '라그라로크'를 개발한 김학규 대표가 그라비티에서 나와 설립한 업체로 '그라나도 에스파다'를 통해 해외에서 인정을 받은 업체다.



한빛소프트 주가 추이
단위: 원



한빛소프트가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그라나도 에스파다는 2006년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많은 화제를 낳으며 한국을 대표하는 인기 게임으로 자리잡았다. 2013년 기준 5년연속 100억 매출을 돌파하며 일본, 대만, 중국, 상가폴, 미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등 해외에서도 인기를 얻으며 아이엠씨게임즈의 이름을 알리기도 했다.

개발력을 인정받은 만큼 서비스 예정인 트리 오브 세이비어를 향한 업계의 관심도 상당하다. 5년 동안 공들인 다중접속 역할수행(MMORPG)장르로 거대한 나무로 뒤덮인 가상세계에서 펼쳐지는 이야기를 동화적인 그래픽으로 담았다.

특히 2015년에는 엔씨소프트, 네오위즈게임즈, 액토즈소프트 등 게임업체들이 오랜기간 준비해온 대형 온라인게임들이 출격을 앞두고 있어 관련 시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넥슨과 협력하는 만큼 가장 기대감이 높아진 상태다.

게임 업계 관계자는 "최근 온라인게임을 들여다보면 과거처럼 한 가지 게임으로 승부를 볼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에 업체들도 다양한 타이틀을 흥행시켜 수익을 내고자 한다"며 "넥슨도 자체 개발 게임 서비스뿐 아니라 좋은 게임을 가져다 운영하는 방식을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전략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라도 트리오브세이비어의 마케팅에 심혈을 기울여 흥행작으로 안착시킬 수 있게 심혈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정유현 기자 yhssoo@

거세지는 신일산업 '왕좌다툼'

윤대중씨측 임시주총 앞두고 세확대… 주주간담회 열어

신일산업 경영권을 놓고 적대적 인수합병(M&A)를 추진하고 있는 윤대중씨 측이 다음달 1일 열리는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주주간담회를 개최한다.

윤씨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임시주총을 앞두고 22일 오후 4시 서울 역삼동 소재 르네상스 호텔에서 서울 경기지역 주주들을 대상으로 주주간담회를 열기로 했다"며 "이 자리에서는 언론 등을 통해서 알리기 힘든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방안, 현 경영진이 저질러놓은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여러 조치들에 대한 원상회복 방안, 임총에서의 경영진 교체 후 주주가치 극대화를 위해 시급히 처리해야 할 사안 등에 대해 주주들과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번 임시주총에서는 임시의장을 선임한 뒤 대표이사 해임 및 신규이사 선임, 감사 해임과 선임, 검사인 선임 등의 안건을 다루게 된다. 이어 윤씨 측은 주주들의 의견을 모아 지방에서도 주주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신일산업 김영 회장은 지난 19일 황귀남 노무사 등을 대상으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신일산업은 공시를 통해 "황귀남 등의 의결권에 대하여 황귀남 보유지분 전체의 의결권을 제한하거나 황귀남 등이 공동보유하고 있는 지분 중 5%가 넘는 부분은 제한하고 5%만 인정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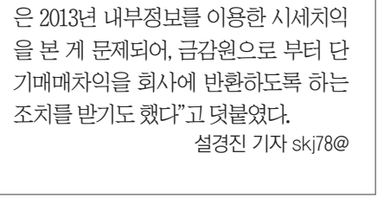
이에 대해 윤대중씨 측은 "주식회사의 주인인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권리 중 핵심인 주주총회에의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인 의결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현 경영진은 말도 안되는 정관조항(초 다수결의제와 주주들에 의하여 해임되는 경우 대표이사에겐 30억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정관)을 만들어 주주들의 견제를 막아놓고, 1년에 근 10억여원의 급여를 받아가면서 주주들에게는 그 동안 한 푼의 배당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영진은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해 싼값에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워런트를 보유하고 있다가, 주가가 올라가면 이를 행사해 막대한 차익을 보고, 주가가 내려가면 회사에 그 워런트를 사게 해 회사와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해왔다"며 "이 때문에 김영 회장은 2013년 내부정보를 이용한 시세치익을 본 게 문제되어, 금감원으로 부터 단기매매차익을 회사에 반환하도록 하는 조치를 받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설경진 기자 skj78@

신일산업 주가 추이
단위: 원



토필드, 셋톱박스 수출 "메리 크리스마스"

유럽지역 연말특수 기대
태국정부 쿠폰발급 호재

토필드가 안드로이드를 탑재한 셋톱박스 신제품을 성공적으로 론칭했다. 회사 측은 유럽지역 크리스마스 특수를 통한 매출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태국 정부가 디지털방송 전환을 위해 2200만 가구에 셋톱박스 쿠폰을 발급한 점도 내년도 매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토필드는 지난달 독일 법인과 핀란드 현지 유통망을 통해 미들엔드급·하이엔드급 안드로이드 셋톱박스 모델 공급을 완료했다고 21일 밝혔다.

토필드 관계자는 "이번 유럽지역의 안드로이드 셋톱박스 런칭은 크리스마스 특수를 통해 '토필드'라는 브랜드 네임을 유럽시장에 다시 한번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내년 1분기를 목표로 이탈리아 시장의 tivuon platform을 통해 catch-up TV와 VOD가 제공되는 제품을 개발 하고 있다. 이는 향후 토필드 매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전망이다.

이미 토필드는 호주시장에 미들엔드급 지상파 모델을 출시, 현지 유통망을 통해 리테일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 중이다. 회사 측은 지속적으로 판매추이를 모니터링하고, 다양한 전략을 통해 안정권에 진입한다는 전략이다. 이와 더불어 내년에는 호주 freeview+기반의 Hbb TV 브라우저를 통해 catch up-TV 서비스가 제공되는 기능을 추가해 소비자가 다양한 콘텐츠를 경험할 수 있는 신제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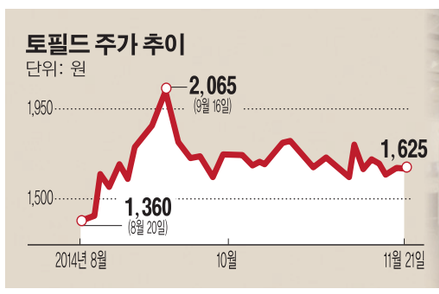
토필드가 론칭한 이번 제품은 단순 안드로이드 박스가 아닌 방송수신이 가능한 IP 하이브리드 셋톱박스다. 위성, 지상파, 케이블 등 모든 방송채널 지원한다. 특히 방송수신 기술과 함께 타사 제품들이 구현할 수 없는 토필드만의 PVR 기술 탑재했다. 이는 가정내의 대형TV를 최첨단 스마트TV로 변신시켜 준다.

토필드는 태국 정부의 디지털방송 전환 사업에 따른 수혜도 입을 전망이다. 태국 정부는 지난달 말부터 2200만 가구에 셋톱박스 쿠폰을 발급했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태국시장 진출을 시작으로 주변 국가의 셋톱박스 시장 진입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영록 기자 syr@

토필드 주가 추이
단위: 원







루보 'DAMEX2014' 참가

오일레스 베어링 기업인 루보가 19일부터 22일까지 대구광역시 엑스코에서 개최되는 'DAMEX2014' 제15회 대구국제자동화기기전에 참여한다. 이번 전시회는 19개국 324개사가 참가하는 글로벌 전시회이다. 특히 국내 대기업 및 중견기업과의 구매상담회, 해외 50여개사가 참가하는 등 활발한 수출상담회도 함께 열려 국내·외 시장 진출 거점 확보 및 기술 교류의 장이 될 전망이다.

진원생명, 에볼라 백신 생산한다

美 VGXI와 274만 달러 규모 공급계약 체결

진원생명과학은 미국 휴스턴 소재 플라스미드 전문 cGMP 생산시설인 VGXI와 에볼라 백신에 대해 274만 달러 규모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에볼라 백신 생산에 착수했다고 21일 밝혔다.

VGXI는 진원생명과학이 100%지분을 보유한 회사로 미국 식품의약국(FDA) 및 유럽 의약청(EMA)의 DNA 의약품 생산 규정을 충족하는 시설로 인증 받았으며, 세계백신회의에서 2년 연속 백신산업 CMO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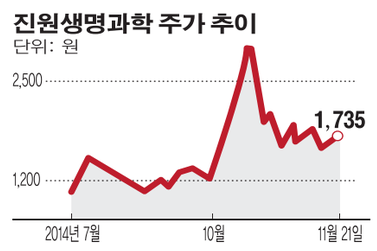
진원생명과학은 이미 소규모 에볼라 백신 생산에 착수했으며 이번 생산은 임상1상 시료다.

진원생명과학은 지난 9월 25일 미국 나스닥 상장사인 이노비오와 공동으로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성 출혈열 예방 DNA백신을 개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DNA 백신 후보물질과 비임상연구자료를 확보하여 미국 FDA에 임상승인신청 준비를 마무리하고 있다.

박영근 진원생명과학 대표이사는 "본 공급계약의 체결은 전 세계를 공포에 빠뜨리고 있는 에볼라를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의 개발을 달성하기 위해 당사가 제시한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개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해외임상연구와 더불어, 필요시 혹시 모를 국내 위기상황을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euge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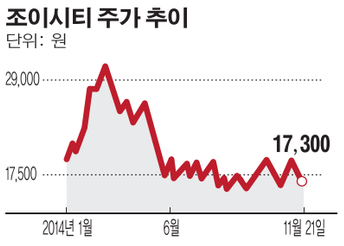
진원생명과학 주가 추이
단위: 원





조이시티-SCEK 협약 체결식. 조이시티 조성원 대표 (왼쪽)와 SCEK 카와우치 시로 대표.

조이시티 주가 추이
단위: 원



조이시티, 소니컴퓨터와 '콘솔 플랫폼' 시장 진출

조이시티는 소니컴퓨터엔터테인먼트코리아와 PlayStation 4(이하 PS4™) 전용 게임 개발에 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이시티와 SCEK는 올해 초부터 새로운 PS4™ 타이틀과 모바일 게임 공동 개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온 바 있다.

이번 협약 체결에 따라 조이시티는 SCEK와 협력해 프리스타일 시리즈 및 건쉽 배틀 소재의 PS4™ 타이틀 개발, 온라인과 모바일에 이어 콘솔 플랫폼 시장까지 진출하게 됐다.

조이시티는 프리스타일 시리즈의 성공 노하우를 바탕으로 콘솔 플랫폼에 최적화된 온라인 스포츠 게임을 개발할 예정이다.

2000만 다운로드를 기록한 모바일 게임 건쉽배틀의 IP를 활용한 PS4™ 타이틀 개발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콘솔 게임이 강세인 북미와 유럽 국가에서 경쟁 우위를 선점하고, 나아가 온라인과 모바일, 콘솔 플랫폼과 연동 가능한 멀티 플랫폼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전략이다.

한편, 작년 11월 북미를 시작으로 발매된 PS4™는 2014년 8월 10일 기준으로 전 세계 누적 판매량 1000만대를 달성한 바 있다.

조이시티 조성원 대표는 "콘솔 플랫폼에 특화된 노하우를 보유한 SCEK와 공동 사업을 전개하게 돼 기대가 크다" 며"이번 협약을 통해 해외 매출을 다각화하고 나아가 글로벌 게임 회사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 고 말했다.

정유현 기자 yhssoo@

'스마트폰 옷발' 받는 슈피겐코리아

'넥서스6' 케이스 판매증가

슈피겐코리아가 아이폰6에 이어 구글 넥서스6 출시로 다시 한 번 주목을 받을 전망이다.

슈피겐코리아는 구글 넥서스6가 19일(한국시간)부터 미국에서 정식 판매를 시작함에 따라 관련 제품의 판매량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21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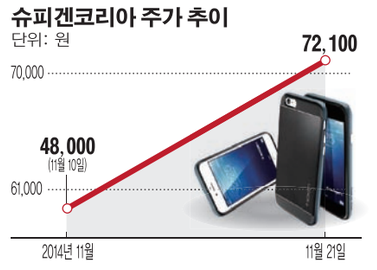
넥서스6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통해 예약 판매가 진행된 이후 몇 시간 만에 품절이 될 만큼 구매자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넥서스6가 정식 판매되기 전부터 슈피겐 브랜드 제품은 이미 각종 사이트에서 베스트케이스로 선정됐다.

미국의 온라인 뉴스사이트인 헤비닷컴에는 넥서스6 베스트케이스 톱5에 슈피겐 슬림아머가 1위에 올라 있다. IT전문 매체인 폰아레나에도 넥서스6 베스트케이스 톱10에 슈피겐 울트라하이브리드와 슬림아머 두 제품이 선정됐다.

회사 관계자는 "미국을 시작으로 각 국의 정식 판매가 예상돼 향후 슈피겐 제품 판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며 "제품 판매와 함께 브랜드 인지도를 더욱 높이는 기회로 삼고 영업과 마케팅에 더욱 집중 하겠다"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eugene@

슈피겐코리아 주가 추이
단위: 원



소프트센, 79억 '시도새올 정보보안 사업' 수주

소프트센은 대우정보시스템, 솔리데오시스템즈와 '시도새올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및 정보보안 강화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계약 금액은 각각 약 42억8000만 원, 약 36억5000만 원으로 총 79억 3000만 원이다.지난해 매출액 대비 30.85%에 해당하는 규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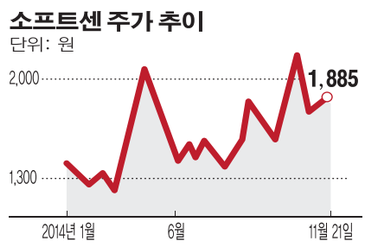
회사 관계자는 "해당 사업은 시·군·구 행정업무를 정보화하고 하나의 시스템에 탑재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는 시스템 구축하는 사업"이라며"노후장비 교체를 통해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한 정보보안 강화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모회사인 아이티센과 정보보안 분야에 공격적으로 진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소프트센은 3분기 매출액이 전년동기 대비 604% 증가하여 어닝서프라이즈를 달성하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도 흑자 전환에 성공하는 등, 하반기에도 꾸준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정유현 기자 yhssoo@

소프트센 주가 추이
단위: 원



가장 새로운 것을 찾는 당신에게 갤럭시가

가장 최근에 나온 것이 가장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이전엔 없던 기준을 만들 때 비로소 새로움은 시작되죠
그래서 갤럭시는 광대역 LTE-A 폰으로 모바일의 새 기준을 만들었고
당신에겐 이런 갤럭시가 가장 어울립니다



국내최다 광대역 LTE-A폰

Samsung GALAXY

지금, 갤럭시에서 가장 다양한 광대역 LTE-A 폰을 만나세요 (2014년 11월 11일 기준)

삼성전자 SAMSUNG